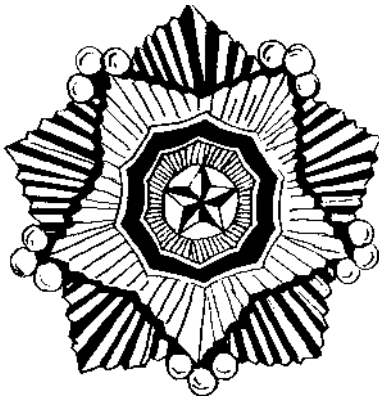




3

주체 102 (2013)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2(2013)년 제3호

(루계 제785호)

차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
명작창작전투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사설) (3)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6)

이 땅이 귀중해(시) 김 영 택(6)
배움의 원리길(시) 리 맥(7)
코나큰 햇길을(시) 최 향 실(7)
애국과 땅(시) 리 명 근(8)

주체문학의 대강 (9)

영원히 올라가는 기적소리(수필) 석 남 진(14)

그리움의 발자국소리 한 원 희(9)
김정은동지 우리러 인민은 따르네(가사) 리 계 주(15)
시 고압선철람아래에서 정 동 찬(16)
행복한 이 저녁 이밤은 박 정 철(16)
내 한생 따라서네(가사) 김 호 영(27)

대양의 축복받은 우리 여성들의 노래

3.8절의 《불향기》(혁명일화) (10)

항일혁명문학에 구현된 주체의

여성해방사상에 대하여(평론) 김 려 숙(11)

어머니 제찬(시) 김 형 준(27)

정든 일터(실화문학) 배 경 휘(18)

축하합니다(수필) 강 혜 옥(28)

꽃은 피여날수록 아름답다(단평) 함 정 남(61)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자!〉, 이것이 올해에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구호입니다.》

김 정 은

단편	사 랑	리 래 윤(46)
소설	삶의 뿌리	박 경 철(65)

무성하는 숲(단막희곡)	리 기 창(30)
밀 현(수필)	리 성 식(60)

평론	시에에는 시인의 정서적숨결이 흘러야 한다	리 동 수(40)
론	애국심의 뿌리는...(단평)	정 광 수(63)

◇ 시 ◇

전우에게 보내는 편지	최 명 길(17)
숲의 소원	박 상 민(26)
푸르른 밀밭앞에서	로 옥 선(29)
나무를 심네	홍 민 식(38)
펼쳐가리 푸른 산 푸른 들(가사)	함 영 근(38)
《광명성-3》호 2호기 너와 함께 외 1편	박 성 일(39)
봄들판의 새벽서정(시 묶음)	김 선 화(45)
나는 탄전의 교향악을 듣는다(시초)	류 정 실(79)

소설가 김문창과 장편소설 《열망》(자료)	박 승 일(77)
치마바위산(전설)	옥 성 일(64)
상식	(44)

표지2면: 《선군시대 녀성찬가》(노래)

표지3면: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선전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 명작창작 전투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

지금 온 나라 천만군민은 주체조선, 선군조선의 역사에 또 하나의 승리의 년륜을 아로새기게 될 희망찬 새해 주체102(2013)년을 맞으며 하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크나큰 격정과 환희속에 받아안고 새해의 장엄한 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다.

새해의 첫아침에 초소와 일터, 가정과 마을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뵈우고 친근하신 음성을 들으며 만세의 환호성을 목청껏 터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우리앞에는 더 밝고 광활한 전망이 펼쳐져있으며 크나큰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어있다는 환희로 넘쳐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는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세계에 높이 떨쳐나가시려는 백두의 선군령장의 철의 의지와 웅대한 구상이 집대성되어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원대한 포부와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은 확고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승리자의 높은 긍지와 밝은 앞날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는 고무적기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당의 령도 따라 천만군민이 위대한 장군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은 피눈물속에서 산악같이 일떠서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첫해에 이룩한 커다란 승리와 성과를 총화하시였다.

지난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치여 주체조선의 100년사를 긍지높이 총화하였으며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였다. 또한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면서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력을 더욱 높이 떨치였다.

지난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조국청사에 찬연히 빛날 역사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는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부강조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와 튼튼한 토대가 있었기때문이며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세계에 떨치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결심과 정확한 령도가 있고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천만군민의 고결한 충정과 애국헌신이 있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김일성, 김정일**조선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으로 솟구쳐오르리라하는것, 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난해의 투쟁속에서 체득한 진리이며 필승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는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의 앞길을 뚜렷이 밝힌 강령적지침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승리자의 높은 긍지와 밝은 앞날에 대한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장엄한 진군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하겠습니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나아갈 불변의 진로는 오직 주체의 한길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외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끝까지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개척하고 전진시켜오신 주체혁명위업,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며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의 천만군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통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펼쳐주신 주체의 길을 따라 일떠서게 될 불패의 대강국을 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올해 우리 군

대와 인민이 점령하여야 할 전투적목표와 그 수행 방법을 명확히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올해의 휘황한 전투적강령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백승의 진로를 밝혀주고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는 혁명적기치이다.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 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자!》,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올해의 투쟁구호이다. 이 구호에는 우리 나라를 새 세기 경제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고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기 위하여 한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비껴있다.

올해의 장엄한 총진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온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강성국가건설에서 전환적국면을 이룩하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전우, 동지로서의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갈 열의가 차넘치고 있다.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이며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들인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그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을 고무추동하는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올해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돐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반만년 우리 민족사에 처음으로 진정한 인민의 국가를 세우시고 탁월한 전략전술과 현명한 명도로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였으며 우리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의 기적을 창조하시며 우리 조국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있어 우리 인민의 존엄높고 영광스러운 오늘이 있고 무궁번영할 우리 조국의 밝은 미래가 펼쳐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뜻깊은 올해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로 즐기치게 이어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 선군태양으로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고 절세위인들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갈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새겨주어야 한다.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수령형상창조의 고유한 생리를 더 잘 구현하여 절세위인들의 위대성을 생동적으로 진실하고 감명깊게 보여주며 그 사상에 술적수준을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하여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올해의 총진군길에서 애국의 열정과 전승의 환희를 총폭발시키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안겨주는 작품창작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수령님의 위업, 장군님의 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가시는 선군조선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는 백전백승이며 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의 앞날, 백두산대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우리 작가들은 회세의 정치가이시며 걸출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형상을 문학의 모든 종류와 형태들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적극 창조함으로써 천만군민모두가 경애하는 원수님은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며 선군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시라는 절대적인 신뢰심을 지니고 원수님의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칭송한 송가창작에 힘을 넣어 태양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승리와 영광을 펼쳐온 력사의 전통을 이어 위대한 태양의 노래가 백두산대국의 하늘가에 더 높이, 영원토록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한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치여 일심단결의 위력, 혼연일체의 기상을 높이 떨치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강령적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열정의 불을 지펴주고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들에서 시대의 진군가, 승전가로 높이 올릴 명작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하여야 한다.

올해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인 농업과 경공업부문을 비롯하여 주체적인 실용위성을 제작발사하여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떨친 그 기세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총돌격전이 세차게 벌어지고있는 전투장들에 깊이 들어가 대중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새로운 시대정신의 체현자, 시대의 전형적성격들을 더 많이 찾아내고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대중의 심장을 울리는 작품, 대중의 사랑을 받는 작품들을 창작하여야 한다. 특히 우주를 정복한 위성과학자들처럼 나라의 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울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지니고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높이 최첨단돌파전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는 우리 시대 과학자, 기술자들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하여야 한다.

새로운 시대정신의 체현자들을 형상하는데서 **김정일**애국주의를 피끓는 심장에 소중히 간직하고 사회주의조국의 룡성번영을 위한 오늘의 성스러운 투쟁에서 애국적열의와 헌신성을 높이 발휘해나가고있는 우리 시대 애국자들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정일애국주의는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빛이고 숨결이며 부강조국건설의 원동력이다.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오늘의 투쟁은 우리 조국을 천하제일강국으로,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위업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세계에 떨치고 더욱 부강하게 하려는 애국적열정과 헌신성은 오늘의 총돌격전의 위력한 추동력으로 된다.

위대한 태양의 나라를 온 세상이 우러러보게 하려는 각오,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자기의 품에 안고 더운 피로 가꾸려는 헌신성을 지니고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길에서 누가 보건말건 진심을 바치고 뼈심을 들이며 조국의 부강번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 고상하고 훌륭한 애국적품모의 체현자들의 형상을 적극 창조하여야 한다.

우리 시대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하는데서 대오의 앞장에서 대중을 불러일으키며 대중을 이끌고나가는 일군들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사업태도에 강성국가건설의 성과가 달려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며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일욕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최대의 마력을

내어 높은 실적을 내는 일군들의 형상을 적극 창조함으로써 시대를 선도해나가는 우리 작가들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여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활짝 열어놓는데서 앞장서나가야 한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시대의 명작을 창작하자면 우리 작가들이 자신의 실력을 끊임없이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세우기 위하여 분발하고 또 분발하며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문학을 선진적인 문명강국의 높이에 올려세우겠다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탐구하여 자기의 실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열어나가는데서 모란봉악단의 창작태도와 창조기풍을 따라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모란봉악단을 본보기로 하여 주체예술의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나감에 핵폭탄보다 더 위력한 예술의 힘으로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한 의지이다.

우리 작가들은 모란봉악단의 결사판철의 정신과 혁신적인 안목, 진취적인 창조기풍을 따라배워 침체와 부진, 도식과 경직을 배격하고 끊임없이 새것을 탐구하고 창조해나가야 한다.

창작은 피끓는 심장으로 하는 전투이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볼데 대한 당의 요구를 심장에 새기고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대표할수 있는 명작을 반드시 내놓겠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자기의 온넛과 심장을 불태울 때 우리 당이 바라고 시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명작을 내놓을수 있다.

그리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품속에서 혁명을 배우고 참다운 문학을 깨우치며 자라난 우리 당의 작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원한 선군혁명동지,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서의 성스러운 사명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작가들이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올해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는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로 빛내이는데 이바지하는 명작창작전투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남호두회의이후 백두산으로 나오는 길에서 새로운 주력사단과 함께 녀성중대를 따로 조직한것은 유격대오의 급속한 확대발전과 전반적항일무장투쟁의 새로운 양상을 시사해주는 경이적인 사변이었다고 말할수 있다.》

《녀성중대의 탄생, 그것은 봉건적질곡에 의해 수천년동안 뒤고방에 갇혀있던 우리 조선의 녀성들이 혁명투쟁의 제선에 당당히 나섰다는것을 의미하는 중대사였다.》

《녀성중대가 사람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게 된것은 우선 녀대원들이 어떤 정황에서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도덕품성을 가지고 성심성의로 인민을 도와주고 존대하면서 처신을 잘한데 있었다.》

《녀대원들은 인민들앞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연설도 하고 글도 가르쳐주었다. 녀성중대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자랑이었고 진귀한 꽃이었다.》

이 땅이 귀중해

김 영 택

해마다 씨앗을 뿌리어
곡식은 거두어들였어도
가난과 설움만을 더해주던 땅
땅은 있었어도 삶은 이어갈수 없었던
해방전세월이었다

봄 여름 가을...
피눈물이 마를새 없어
목숨조차 원망스럽던 그 세월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으며
땅의 주인으로 농민을 내세워준
오, 1946년 3월 5일이여

《토지는 발같이하는 농민에게!》
토지개혁법령의 눈부신 글발이
3월의 하늘가에 빛나던 그날 그 순간부터
아름다운 꿈의 무지개 피는 땅은
그대로 농민들의 삶이었다

웃음과 희망을 심어가꾸던
그 땅은 누구도 빼앗지 못해
수류탄뭉치를 안고 적땅크를 맞받아간
농민전사의 가슴속에는
분여지의 한줌 흙이 고이 간직되어있었나니

어찌하여 그리도 소중한 목숨을
한치의 땅을 위해 서슴없이 바쳤던가
전쟁의 불길속에서

타지 않는 신념으로
억척같이 땅을 안고왔던가

수령님 찾아주신 내 나라에서
땅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조국이며 삶의 터전
그 땅에서 열매맺고 무르익는 오탁백과는
대대손손 누려갈 행복의 열매며 향기

우리의 제도를 압살하려고 날뛰는
원수들의 《제재》와 《봉쇄》가 악랄해질수록
수류탄마냥 총알마냥
이 땅의 열매들은 여물지 않았더나
사회주의성세의 굳건한 성돌로 쌓이지 않았더나

애국의 숨결이 후덥게 흐르는 땅
없으면 못사는 땅
그 땅을 가꾸는 농민을
반만년력사우에 값높이 올려세워주신
수령님 고마움을 세세넌넌 전해가는
토지개혁법령발포의 날이여

정을 묻고 사랑을 묻으며
세월이 갈수록 더더욱 귀중해만지는
땅의 주인들이
오늘도 심장속에 삶의 기둥으로 세운 진리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꽃피는
아, 이 땅은 곧 조국이다!

배움의 천리길

리 맥

류랑의 눈물로 얼어붙은
국경의 나무 포평을 지나
오가산 아흔아홉굽이를 넘어
먼 천리길우에
발자욱소리 오늘도 울려오는듯

찬바람 불고 날은 또 저무는데
흘러가는 류랑의 걸음들을 거슬러
찬바람에 옷자락 날리시며 걸으시는
원수님의 모습 오늘도 어려오는듯

강계 개천을 지나
뒤쫓아오던 지킴은 눈보라도
모닥불 피어오르던
어느 고개마루에서 잠들고말았는가
만경봉 푸른 소나무는
이슬에 젖어 봄안개 걷어올리며
어리신 원수님을 마중하였나니

아, 배움의 천리길
아버님의 그 높이신 뜻
어머님의 그 한없는 사랑 자욱마다 새기시며
비운이 드리운 이 나라 강산에
봄을 안아오신 그 걸음 그 자욱소리

세월의 바람도 눈도
그 자욱우로 스쳐갔건만

지워버리지도 묻어버리지도 못한
한가닥 그 길우로
조선이 함께 걸어왔구나

그 길을 거쳐
내 조국 승리와 영광의 력사가
그 길을 거쳐
꽃들이 기쁨이 피어나는
내 나라 해빛 따사로운 영원한 봄이
걸어왔구나
조선이여

국경의 나무로부터
만경대에로 뻗어온 그 길우로
달려가고 또 달려가누나
압제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이 20세기가

오, 오늘도 그 자욱소리 울려오누나
어리신 원수님께서
길을 다우치신 배움의 천리길이어
봄을 안고 해빛을 안고 걸으신
그 길 오늘에도 잇닿았고
그 길 우리앞에 영광의 길 열어주었구나

(1973).

크나큰 첫걸음

최 향 실

수수한 두루마기에
학생모를 쓰시고
만경대를 향해 팔도구를 떠나실 때
수령님은 열두살이시였다

일제의 발밑에 짓밟힌
조국의 현실
조선을 알아야 한다신
아버님의 높이신 뜻 받들어

수령님은 그 어리신 나이에
눈보라치는 험한 천리길을 떠나시었거니

아, 가슴뜨거워라
눈보라 사나운 천리
배움의 천리길을
아버이수령님
정녕 혼자 걸으시었던가

걸음걸음마다에서
 신음하는 인민의 한숨을 들으시며
 총창끝에 멍이 진
 인민들의 모습을 마음속에 새겨넣으시며
 수령님 조선을 안고 걸으신 천리길

이 세상 누구도 걸어본적 없고
 상상조차 해볼수 없는
 천리길의 그 한자욱 한자욱우에서
 위대한 애국자
 인민의 아버지의
 크나큰 첫걸음이 시작되었으니

크나큰 그 첫걸음
 마음속에 소중히 안아볼수록
 수령님 찾아주신 내 나라
 수령님 꽃피워주신 인민의 이 락원
 그 길우에 더 높이 솟아 빛나는구나

그래서 눈보라 험한 천리를 걸으시던 그때로부터
 90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도
 조국땅 한가운데 그대로 뻗어있는
 배움의 천리길

아, 그 길을 따라걸으며
 아이들은 조선을 알고 조선을 빛내갈 큰 뜻을
 심장에 새겨안더라
 인민은 언제나 그 길우에
 애국의 마음을 엮고 살더라

수수한 두루마기에
 학생모를 쓰시고
 만경대를 향해 걸으시던
 아버지수령님의 모습과 더불어
 배움의 천리길은
 천년만년 조국땅우에 뻗어있으리
 대대손손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뻗어가리라!

애국과 땀

리 명 근

그가 누구이든
 애국으로 흘린 땀은
 물이 아니다
 그래서 식지도 않는다
 마르지도 않는다

그 땀으로
 조국의 재부가 창조되고
 조국이 철벽으로 수호되고
 조국의 만년토대가 닦아진다

병사가 훈련의 산야에 뿌린 땀방울이
 조국수호의 총창에 섬광으로 번뜩인다
 탄부가 막장에 뿌린 땀방울들은
 불붙는 탄이 되어 이 땅을 후덕혀준다

과학자들이 뿌린 탐구의 땀방울은
 조국의 미래를 장식할 구슬로 반짝이고
 체육인들이 아낌없이 뿌린 땀방울은
 하늘가에 송엄히 공화국기를 받들어올린다

이렇게 조국에 바친 땀방울들은
 얼마나 조국을 아름답게 하는가

이 땅에 솟아오르는 새집들
 가없이 펼쳐진 과원이며 풍요한 들판
 새 공장의 동음소리 언제의 푸른 물...

아, 애국의 성스러운 땀을 한생토록
 조국강산에 뿌려오신 우리의 **김정일**장군님
 그 땀과 열과 정으로
 조국을 무한히 사랑해오신 그 뜻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우리의 심장마다에 **김정일**애국주의를
 애국의 불길로 안겨주셨거니

이 땅은 빛난다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로
 참된 삶을 꽃피우며 뿌리는 땀방울
 애국의 땀방울은
 조국의 번영속에 남아있다

하기에 우리 흘리는 애국의 땀은
 정녕 물이 아니다
 량심의 피방울이다
 심장의 피방울이다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으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은 사람들에게 대한 정치사상교양과 생활인식의 힘있는 무기로 될뿐아니라 문화정서교양의 좋은 수단으로 된다.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목적은 사람들에게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주며 건전한 사상을 주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서적으로 키우는데도 있다. 우리의 문화정서교양은 자주시대의 미감에 맞는 혁명적생활감정과 민족적정서를 키우는 사업이다.》

《문학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고상한 생활정서를 안겨주며 그들의 문화성과 인간성을 높여주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문화정서교양을 잘하는것은 사람들에게 생활에서 아름답고 고상한것을 긍정하고 추악하고 저열한것을 부정하는 생활감정과 정서를 키워주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작가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여야 한다.》

그리움의 발자국소리

한 원 희

문양 곱고 가벼워 인기높은 우리 신발
흐름선에 떠실려 흘러나오고
기대풍 내 가슴에 샘솟는 그리움은
아버이장군님품을 찾아가네

날이 가고 갈수록 뵈고싶어
우러러 그리고그리면
우리 공장에 오셨던 그때처럼
아버이장군님 오늘도 오실듯

어제런듯 눈에 삼삼 안겨오네
최전연초소에서 오신 길 피로도 잊으시고
우리 공장 우리가 만든 신발 보아주시던
아버이장군님의 자애로운 그 모습

멋들어지게 잘 만들었다고
인민들이 참 좋아하겠다고
나도 한켠레 사서 신어보겠다고
기쁘시여 기쁘시여 웃으실 때

우리모두 눈물을 흘렸었지
인민을 찾아
눈이 오면 눈발을 헤치고
비가 오면 비속을 헤치며
못 넘으신 산과 강이 없으신 장군님

아, 오늘도 우릴 찾아
날마다 가까이 가까이 들려오는
아버이장군님의 발자국소리
그리움에 그리움을 더해주는 발자국소리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더해만 가는 그리움이
흐름선에 떠실린 신발에도 어려
끊임없이 쏟아져나오네

그 신발 신고서 신들메 매고서
천만군민이 발걸음높이 나아가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따라
강성국가건설에로 진군해가네

3.8절의 《봄향기》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더해만 가는 우리 조국땅우에 새봄이 왔다.

해마다 맞이하는 봄이건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여성들을 위해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정의 이야기가 꽃피난 5년전 그 봄날을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가슴뜨겁게 추억하곤 한다.

주체97(2008)년 3.8절에 있는 일이다.

이날 동평양대극장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3.8국제부녀절 경축공연무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공연을 관람하는 평양시안의 최고인민회의 여성대의원들과 녀맹책임일군들, 여성작가, 기자, 방송원, 창작가, 예술인들의 가슴은 끝없는 환희와 기쁨에 넘쳐있었다.

그런데 공연이 끝난 다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한 책임일군이 무대로 오르더니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성들의 명절을 축하하여 전체 공연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고급화장품과 식료품을 보내주시었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꿈결에도 뵈고싶던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공연을 관람한 영광과 행복감에 잠겨있던 사람들모두는 자기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공연을 보장하느라고 수고한 출연자들은 그렇다 쳐도 자기들이야 공연을 관람했을뿐이 아닌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고급화장품과 여러 종의 식료품이 천수백명에 달하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 그리고 남자들에게도 안겨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이 어린 고급화장품과 식료품을 받아안고 감격에 어깨를 들먹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일군들은 다시금 깊은 생각에 잠겼다.

머칠전 깊은 밤, 어느 한 도당책임일군을 전화로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봄향기》화장품을 얼마나 더 생산할수 있는가를 알아보라고 이르시었다.

잠시후 책임일군의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생산한 《봄

향기》화장품을 3.8국제부녀절에 쓰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순간 도당책임일군은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여성들의 명절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웅심깊은 사랑이 사무쳐와 목이 메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거둬 전화를 걸어주시며 도에서 화장품을 화물자동차나 버스에 실어보내면 도중에 깨질수 있으므로 기차를 보내어 실어오도록 하겠다고, 우리는 상품값을 물어주는데서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해당 일군에게 과업을 주어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생산하여 올려 보내는 《봄향기》화장품값을 봉투에 넣어 보내주겠으니 받아두었다가 그 공장에 넘겨주어야 하겠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이렇게 되어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이 어린 화장품을 실은 열차가 달리는 전설같은 화폭이 펼쳐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처럼 은정넘치는 조치를 취해주시고도 3.8절당일날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책임일군을 부르시여 화장품을 여성들에게만 주려고 하였는데 남자들에게도 주려고 한다고, 그러면 그들의 안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말씀하시었다.

3.8절의 《봄향기》.

그 향기는 《봄향기》화장품을 받아안은 사람들만이 아닌 이 나라 수많은 여성들의 마음속에도 흘러들었다.

그것은 계절의 봄이 실어온 자연의 향기가 아니었다.

우리 여성들, 우리 인민모두를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세워 영원한 강성국가의 봄날에 살게 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심장에서 분출한 위대한 인민사랑의 향기였으니 그 사랑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계시어 우리 조국의 앞날은 언제나 밝고 창창하다.

항일혁명문학에 구현된 주체의 여성해방사상에 대 하 여

김려숙

선군조선의 우리 여성들은 해마다 위대한 태양의
축복아래 3.8국제부녀절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대를 이어 베풀어주시는 여성사랑, 여성존중의 새
력사가 흐르는 선군조선에서 혁명의 한쪽수레바퀴
를 힘차게 떠밀어가는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
고 이날을 맞이하고있는 우리 여성들의 행복한 모
습을 생각할 때마다 항일혁명문학에 구현된 주체의
여성해방사상을 감회깊이 되새겨보게 된다.

주체문학, 선군혁명문학의 시원인 항일혁명문학
은 력사상 처음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 조선혁명의 근본문
제를 제기하고 자주적인 인간전형을 창조하였을뿐
아니라 주체의 여성해방사상을 형상적화폭으로 재
현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여성운동의 영광스러운 력사의 갈
피갈피에는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의 손길이
달아있으며 우리 여성들에 대한 수령님의 아버지사
랑과 하늘같은 은덕이 아로새겨져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주체의 여성운동의 시원을 열어놓
으시고 여성운동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마련하
시였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나라 여성들의
비참상을 눈물겹게, 가슴아프게 체험하시며 그들의
운명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여성으로서의 참다운 존
엄을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사랑을 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아버지수령님.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의 부드러운 선
률과 함께 떠오르는 생동한 시적화폭을 더듬어
보자.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시던 말씀 아 귀에 쟁쟁해

항일혁명투쟁의 준엄한 나날 우리 수령님 언
제나 마음속에 안고계신것은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였고 어머님께서 당부하시던 고귀한 말씀이
시였다.

이 나라 어머니들의 념원을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수령님 조국해방의 길에 나서시였고 여성들을
민족적, 계급적인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실 원대
한 구상과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으시였다.

주체문학, 선군혁명문학의 시원인 항일혁명문학
은 위대한 수령님의 여성해방사상을 구현하여 여성
들의 자주적인 존엄에 관한 문제, 그들의 운명전환
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여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몸바쳐나선 새형의 여성혁명가의 전형
을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문학력사에서 처음으로 자주성
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의 중요
한 고리로서 여성문제가 제기되고 해명되게 되었으
며 바로 여기에 주체문학, 선군혁명문학사에서 녀
성형상의 새 경지를 개척한 항일혁명문학의 특출
한 지위가 있다.

주체적인 여성해방사상을 구현한 여성형상창조
의 빛나는 전통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작하
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의 여성형상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조국광복회10대강령가》는 참다운 여성해방
의 강령이 담겨진 불멸의 혁명가요이다.

인류의 태양이시며 민족해방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대중적
인 혁명조직으로서의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
광복회를 창건하시고 몸소 《조국광복회10대강령》
을 작성발표하시였으며 그 내용을 담은 불후의 고
전적명작 《조국광복회10대강령가》를 창작보급하
시였다.

량반 상놈 남녀로소 가리지 말고
한결같은 평등 행복 누려가면서
연약한 부녀들을 존중하고 돌보아
인격 직위 보장함이 제7조로다

위대한 수령님의 여성해방사상이 자자구구마다
에 어려있는 이 구절에서는 일체식민지통치시기 가
장 가혹한 천대와 멸시를 받은 우리 여성들의 불
행한 처지를 련상시키면서 여성들에게 참다운 자
유와 평등을 보장할데 대한 사상이 강렬하게 울려
나온다.

참으로 《조국광복회10대강령가》는 여성해방의 혁명적강령을 담은 혁명가요로서 주체혁명문학에 불멸의 기념비적명작으로 솟아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가극 《꽃피는 처녀》와 혁명연극 《피바다》를 비롯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창작하시어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할 조선혁명의 뚜렷한 길을 명시하시였을뿐아니라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속에서 여성해방을 이룩할데 대한 심오한 혁명철학을 밝혀주시였다.

이 명작들은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망국노의 처지에서 헤매이던 우리 인민의 비참한 생활을 평범한 조선의 한 어머니와 순박한 농촌처녀의 형상을 통하여 보여주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높이 받들고 전체 조선인민이 각성하고 단결하여 항일전쟁에 떨쳐나서야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할수 있다는 혁명의 진리를 깨우쳐주고있다.

이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에서 제기한 인간문제는 단순히 여성해방에 관한 문제인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주성이 무참히 짓밟히고 초보적인 삶의 권리마저 빼앗긴 조선인민이 자기 처지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깨우쳐주는 혁명의 근본문제이며 따라서 주인공인 꽃분이나 어머니는 단순한 여성형상인것이 아니라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착취와 압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인민의 비참한 운명에 대한 일반화된 형상이다.

이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여성주인공들의 형상을 통하여 여성들의 운명문제, 여성해방문제를 민족해방, 계급해방에 관한 기본문제와 밀착시키고있는것으로 하여 이전시기 그 어느 문학도 제기하고 해명할수 없었던 여성문제는 물론 여성형상의 전지에서도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에서 성문을 활짝 열어제끼는 어머니의 모습은 오늘도 우리 인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고있다. 얼마나 장한 조선의 여성, 어머니의 모습인가. 힘있고 쾌기와 정열에 넘쳐있고 삶의 희열과 랑만, 승리에 대한 신심이 한껏 어려있는 모습이다.

평범하고 소박한 여성, 일제가 제 나라도 있으면서 왜 우리 나라를 먹으려고 하는지, 우리는 왜 이렇게 수난당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범벅 한그릇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것이 무엇때문인지조차 모르던 어머니가 항일유격대의 성시해방전투의 승리를 보장하는 결정적인 대목에서 성문을 열어제끼는 기사를 단행하는것이다. 성문을 활짝 열어제끼는 어머니의 모습은 수난의 피바다를 투쟁과 혁명의 피바다로 만드는데서 우리 인민, 우리 여성들의 자랑찬 힘의 과시로 된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는 조선의 평범한 어머니인 주인공이 혁명가로 자라나는 과정을 진실

하게 그림으로써 혁명이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것이 아니며 누구나 혁명의 진리를 깨닫고 결심하면 혁명가로 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명작은 인간의 자주성을 무참히 짓밟은 일제식민지통치제도의 본질을 인식하고 원수에 대한 적개심이 끓어넘쳐 혁명투쟁으로 나서는 주인공—어머니의 성격발전과정을 통하여 혁명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히고있다.

홍악무도한 일제의 야수적인 학살만행에 의하여 가정의 기둥으로 믿고 살던 남편을 잃고 철부지 어린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가야 할 앞날이 막막하여 통곡하던 어머니, 그러한 어머니가 혁명조직의 영향밑에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혁명의 진리를 깨닫게 되며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을 깨우쳐 부녀회에 묶어세운다.

어머니는 여성들을 각성시키고 단결시키며 폭악운반과 같이 생명을 내대는 위험한 일도 부녀회원들의 힘으로 해제끼고 단결되고 각성된 부녀회원들을 폭동에 준비시켜 항일유격대의 성시해방전투에 합세시킨다.

주인공을 피끓는 청장년이 아니라 여성 그것도 남편없고 왜놈이 살판치는 땅에서 아들딸을 키워야 하는 불쌍한 어머니로 설정한것으로 하여 명작의 인식교양적의의는 보다 강하며 주체형의 여성형상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것으로 하여 문학사적의 의 또한 크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에서 어머니의 성격적특징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이란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여성이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에 의하여 주체형의 혁명가로 새롭게 태어난데 있다. 특히 어머니의 형상은 총대로써난 혁명의 승리도, 여성으로서의 존엄도 찾을수 있으며 바로 이 길이 안해로서, 어머니로서의 본분도 다할수 있는 참된 길임을 깨우쳐주는 형상이다.

어머니의 형상은 이전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이 창조한 혁명가의 형상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주체형의 혁명가로서 주체사상을 세계관적기초로 하고 수령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숭고한 사상정신적품모를 체현한 형상이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여성의 운명문제는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총대로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속에서만 해결될수 있다는 심오한 진리를 밝히고 여성해방의 선구자들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함으로써 선군혁명문학의 첫 페이지를 빛나게 장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창조된 항일혁명문학에서는 혁명가요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에서 남녀평등의 권리를 찾기 위해 여성들이 직접 총을 들고 혁명에 나설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형상적으로 해명하고있다.

혁명가요 《여성해방가》와 《녀자투사가》 등

은 위대한 수령님의 녀성해방사상을 구현하여 녀성 해방문제를 직접 제기한 대표작들이다.

이 작품들에서 서정적주인공은 위대한 수령님의 반제민족해방사상과 반봉건민주주의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선 전위투사들이다.

혁명가요 《녀자투사가》는 새롭게 도래한 자주시대, 주체혁명위업이 개척되던 역사적환경속에서 녀성들을 20세기 용감한 녀성투사들이라고 부르며 무산계급의 혁명투쟁과 나아가서 남녀평등의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반수의 녀자들이 모두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고있다.

이십세기 용감한 녀성투사들
문명한 활무대에 나서 싸우자
로동자와 농민의 자유해방은
무산자의 굳고굳은 단결에 있다

만민이 행복스런 공산사회는
반수의 녀자의 힘 요구를 한다
붉은기를 펴 날려 우리 조선의
금강산 제일봉에 꽃으리로드

암흑의 인습으로 갇힌 녀성들
구속의 철망을 끊어버리고
남녀평등 새 사회를 건설하는데
우리들도 같이 나가 싸워이기자

가요는 1절에서 녀성들에게 로동자와 농민의 자유해방, 계급해방의 역사적과제를 깨우치고있으며 2절에서는 무산혁명이 반수의 녀자의 힘을 요구한다는것을 제시하여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실현에서 녀성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고있으며 3절에서는 녀성해방을 위한 투쟁에 다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고있다.

이처럼 혁명가요 《녀자투사가》는 녀성들이 세계적인 잠에서 깨어나 남녀평등의 새 사회 건설에 나설것을 힘있게 호소하고있다.

혁명가요 《녀성해방가》는 녀성운명문제를 정면에서 제기하고 그 해결에 심오한 총대사상을 구현한 대표작의 하나이다.

가요는 권리를 박탈당한 착취사회에서 녀성들의 불우한 운명을 가슴저리게 깨우쳐주면서 총을 들고 녀성의 권리를 찾을데 대한 녀성해방의 근본방도를 명백히 밝히고있다.

가요는 먼저 봉건유습이 가져다준 강제결혼과 그 구속에서 피는물나는 고역살이의 이모저모를 세부적으로, 화폭적으로, 정서적으로 펼쳐고있다.

권리를 박탈한 자본사회에
청춘의 붉은 꽃 못 피운 원한
아느냐 그대여 녀성동무들

남몰래 조용히 우는 눈물로
청춘의 고운 낮에 주름 생기고
매맞아 얻은 병 살기 싫어요

끝방안 감옥살이 언제 끝나나
꿈에도 싫어요 나는 싫어요
별시와 천대는 더욱 싫어요

...

청춘의 붉은 꽃 못 피운 원한, 남몰래 조용히 우는 눈물로 청춘의 고운 낮에 생긴 주름, 매맞아 얻은 병, 이 모든것은 오랜 세월 녀성들이 당한 온갖 별시와 천대의 축소판이며 그것의 함축된 표현이다. 여기서 토로되는 녀성들의 목소리는 이 모든것에 대한 반항, 항거자의 몸부림이다.

《매맞아 얻은 병 살기 싫어요》, 《꿈에도 싫어요 나는 싫어요/별시와 천대는 더욱 싫어요》, 《지주놈 장리빚에 날 팔지 말고/차라리 이내 몸을 없애버려요》라는 절절한 목소리에 이어 혁명가요는 녀성들을 투쟁으로 호소하는 용기백배한 내용으로 심화되고있다.

녀성들 우리 동무 다 일어나라
부르조아제도를 없애버리고
동등한 권리 위해 총들을 들자

...

녀성들모두를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며 총들을 들고 남녀평등의 권리를 찾을데 대한 열렬한 호소는 항일혁명문학에서만 토로될수 있었다.

가요는 《아느냐 그대여 녀성동무들》과 같이 녀성을 대상으로 하여 물음의 형식으로 문제의 본질에 육박해들어가면서 그 물음에 대답하는듯한 《살기 싫어요》, 《꿈에도 싫어요》라는 울분의 목소리를 터치고 그 다음절들에서는 마치도 서정적주인공이 기막힌 녀성들의 신세타령을 더는 들을수 없어 분노의 격정을 터쳐 그대들, 녀성들을 향해 총을 들고 나서라고 호소하는것과 같은 생활론리, 형상론리를 타고 감정정서가 흐르고있다.

총대만이 그대들, 녀성들을 해방하는 길이라고 절절히 깨우치며 투쟁마당에 불러내는 가요의 전투성과 혁명성은 주체문학, 선군혁명문학의 첫 기슭에서 창조된 녀성문제와 녀성형상의 새로운 의미를 깊이깊이 새겨준다.

참으로 총대로 녀성해방을 이룩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녀성해방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항일혁명문학은 오늘 선군시대 우리 녀성들에게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령도따라 주체녀성운동의 빛나는 전통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게 한다.

영원히 울려가는 기적소리

석 남 진

나는 직업적인 특성으로부터 자주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다.

하여 사람들의 고상하고 열렬한 정신세계에 접하여 감동되고 그 무엇인가 크게 웨치고싶어 심장이 세차게 뛴다는 경우를 드문히 체험하곤 한다.

어느날 나는 철도부에서 혁신자로 소문난 한 일군을 취재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후 자진하여 서해지구의 한 철길대에 내려간 사람이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자연히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타고가신 야전열차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다. 해별에 타고 판골이 두드러진 그의 얼굴에는 숙연한 표정이 어려있었다.

우리가 건물안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밖에서 열차의 기적소리가 울리었다. 순간 마주앉은 일군의 불편이 실룩이더니 그 어떤 간절한 빛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는 치미는 걱정을 억제하는듯 잠시 말을 끊고 담배를 피워물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난 저 기적소리를 평범히 들을수 없습니다. 나 예겐 저 기적소리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울려가신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처럼 들려오고 오늘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타신 야전열차가 달리는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말을 이어나갔는데 어떤지 나는 그의 이야기속에서 계속 야전열차의 기적소리가 울리는것만 같았다.

그는 열차의 기적소리를 들을 때마다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었고 그 그리움을 안고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나갔던것이다.

취재를 끝내고 그와 헤어졌지만 나의 뇌리속에서는 그가 안고사는 그 야전열차의 기적소리가 의연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사권한 노동자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이런저런 말을 나누다가 그는 방금전 기록영화를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함남의 불길창조자들 이라시며 자기들을 평양에 초청하시고 축배잔을 찹어주시던 장면을 다시 보았다고, 그날을 돌이켜보니 위대한 장군님 생각에 눈물이 난다고 하면서 비날론로동계급의 심정을 반영한 작품을 잘 써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생각이 깊어져서 밖으로 나왔다.

불빛이 환한 거리를 걸어가던 나는 우연히도 룡해운성의 한 일군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에게서 뜻하지 않던 꿈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꿈이래도 정말 생동한 꿈이더라니까요.》 하고 그는 말하였다.

《한창 일을 하던중 위대한 장군님께서 타신 야전열차에서 울리는듯 한 기적소리가 들리더군요. 난 사람들과 함께 그 열차의 기적소리를 따라 걸어지며 달려갔지요.》

그런데 그 기적소리속에 경애하는 김정운동지를 받들어 이 땅에 반드시 강성국가를 일떠세워야 한다는 우리 장군님의 당부가 들리는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라 깨어나보니 글썽 항에서 배고동소리가 울리더군요. 아마 배고동소리가 기적소리에 대한 꿈을 불러온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순히 배고동소리가 기적소리에 대한 꿈을 불러온것이 아님을 알고있었다.

그의 가슴속에 차있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꿈에서조차 야전열차의 기적소리를 불러일으킨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기적소리가 단순한 기적소리만의 의미를 하는것이 아니기때문이었다.

그 기적소리는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시며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경애하는 김정운원수님을 높이 받들어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를 반드시 이룩하라고 고무하시는 다정하신 음성처럼 울려온것이다.

그렇다. 오늘도 우리의 귀전엔 그날의 그 기적소리가 울려온다.

이 나라 사람들 어느 누구에게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솟구치지 않으랴.

그것은 시간이 흐르고 날이 흐를수록 내물이 강물과 합쳐지고 바다로 향하면서 세차지듯 그렇게 더욱더 강렬해지고 간절해지는 숭고한 감정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이께서 일터에 남기신 사랑의 발자취가 간직되어있고 어떤 사람에게엔 따뜻하게 잡아주신 그이의 손길, 그이의 뜨거운 열과정이 스며여있다. 어떤 사람은 그이께서 찍어주신 기념사진을 늘 보면서 눈굽을 적시고 어떤 사람은 그이께서 하신 간곡한 당부를 늘 되새기며 살며 이해한다.

이러한것이 바로 우리모두가 간직한 그 기적소리가 아니고 무엇이라.

지금 온 나라는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성공으로 끝없는 환희와 기쁨속에 부글부글 끓고있다.

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위성발사에 참가한 한 일군의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되었다.

그는 우리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정도가 있었기에 뜻깊은 2012년에 과학기술위성을 싸울 릴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할 수 있었다고 울먹이며 말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위성발사의 추동력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정도에 의해 우리 조국이 세인을 경탄시키며 우주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는것을 어느 누가 모르랴.

그 일군은 《광명성-3》호 2호기가 우주에서 지구로 보내는 발신음을 들려주었다.

쨍-하고 장내를 울리는 요란한 발신음속에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의 선율이 울리였다.

나에게는 어쩐지 우리의 위성이 내보내는 그 소리속에 렬차의 기적소리가 울리는것처럼 느껴졌다. 동시에 눈앞에는 렬차가 떠올랐다.

기록영화화면에서 늘 보던 그 렬차, 우리의 장군님께서 문건들을 보시고 일군들과 담화도 하시며 사업하시던 그 렬차가...

아,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그 야전렬차가 점점 크게 확대되면서 가까이 다가오는것만 같았고 렬차의 기적소리는 우리를 부르는 어버이의 음성처럼 친근하게, 눈물겹게 들려왔다.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도밑에 날에 날마다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보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축복인듯싶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광명성-3》호 2호기가 성공적으로 우주에 날아올랐다는것을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1돐을 맞으며 인공지구위성발사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군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에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찾아뵙고 충정의 보고를 올리시였다. 인민의 마음속에 간직되어있는 그 그리움을 담아 위대한 장군님께 새해의 첫 인사를 드리고 온 나라 가정들에 화목과 행복을 축원하는 축복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커다란 힘으로 분출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우리 천만군민은 앞으로도 순결한 량심과 몇몇한 자랑을 안고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의 보고를 계속 드리게 될것이다.

하어 위대한 장군님의 야전렬차는 오늘도 멈춤없이 인민을 찾아 달리면서 인민을 불러 기적소리를 울리고있으며 매일도 영원히 달리면서 우리를 최후승리로 부를것이다.

나는 우리 시대의 한복판을 거세차게 흐르면서 온갖 부흥의 기념비들을 일떠세우고 행복의 천만꽃들을 활짝 피우는 충정의 대하를 보면서 뚫어오르는 걱정을 토로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높이 모신 내 조국땅, 천만군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그날의 기적소리와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리상은 이 땅위에 기어이 꽃피나리라고...)

가 사

김정은동지 우리러 인민은 따르네

리 계 주

만나면 그이결을 떠나고싶지 않고
헤어지면 뵈고싶어 간절히 그러보네
자애로운 품에 안고 행복만을 더해주시는
아 천출명장 **김정은**동지 우리러 인민은 따르네

환하신 그이 영상 뵈오면 새힘 솟고
영명한 그이 말씀 새기면 신심높네

백승애로 정도하며 우리 조국 이끄시는
아 천출명장 **김정은**동지 우리러 인민은 따르네

운명의 하늘처럼 떠받든 우리 장군
조선의 태양으로 모시는 우리 장군
천년만년 세월가도 변함없을 충정 안고
아 천출명장 **김정은**동지 우리러 인민은 따르네

고압선철탄아래에서

정 동 찬

여기는
통림언제에서 평양의 하늘가로
송전선이 흘러간 산마루
송전선감시초소
나는 그리움에 젖어
고압선철탄아래에 서있다

벼랑을 뚫고 숲을 지나 몇백리...
눈보라속 하늘길에 당겨온 전선줄도
산발을 타고 줄지어선 철탄들도
평양을 향해 멀리 뻗어간
그이 오가시던 행군길을 지켜보는가

내리고내리는 천만송이 함박눈도
전선줄에 무겁게 매달리는데
먼 하늘에서부터 높아오는
고압전류의 흐름소리
웅—웅

야전숨웃자락 날리며 언제에 오르시던
장군님 우러러 근위병들 터치던
환호성 울려오는듯

굽이굽이 물길굴에 남겨놓으신
그이의 거룩하신 자옥자옥을 물머리에 띄우고
달려오고달려오는 청천강의 세찬 격류

내 눈빛속에 비껴오는 평양으로 뻗은 길
멀어져가는 야전차뒤에
뽕양게 휘말려오르던 그날의 눈보라
장군님의 불같은 걸음에 보폭을 맞추며
어서 평양으로 날으자고
내 숨웃자락에 감돌아치던 눈보라소리

내 마음 달려가는 평양의 밝은 하늘이여
너는 그이께서 푸른 강 물줄기를
조국의 동맥으로
저 하늘 천리길에 번쩍 들어올린
화광이 아니냐

빛과 열이 흐르는 은빛전선을
조국의 하늘에 걸어놓고
그리움의 송가를 탄주하는 고압선
장엄한 울림소리에 피를 끓이며
고압선철탄밑에 나는 서있다

행복한 이 저녁 이밤은

박 정 철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
찬란한 그 빛발이 어려서인가
더더욱 아름답구나
저 가로등의 은백색불빛도
새 거리 창가마다 빛나는 불빛도

행복한 이 저녁 이밤
공원에 유원지에 집집의 창가에
달리는 궤도전차안에
《광명성》 그 빛발은 흘러흐른다
기쁨의 웃음꽃을 피우며 피우며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

너는 리상의 언덕에 솟아오른
행복의 별
희망의 별

이 조선을 강국으로 펼치시려
한평생을 다 바쳐오신 아버지장군님
우리 행복한 앞날을 영원히 밝혀주는
그이 리상의 찬란한 그 빛발

장군님의 그 리상 그 념원대로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이룩해가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그이 신념이 안아올린

거세찬 애국의 불길

그 빛발아래
내 환희롭게 안아보나니
우리 누려갈
우주강국의 그 문명 그 혜택
세계를 굽어보며 더 높이 솟아오를
우주강국의 그 미래

힘이 용솟음친다
지구를 박차고
또다시 우주에 자리길을 펼친
선군의 무한대한 그 힘이
이 심장의 피 펄펄 끓인다

신심 드높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을
저 우주에 열어놓고 담차게 내짚은
그 담력 그 기상으로
부강번영의 길
우리는 힘차게 걸어가려니

아, 승리만을 떨쳐갈
이 땅의 끝없는 해와 달과 날들을
눈부신 불빛마다 다 비껴안아
아름답구나
《광명성》빛발이 흘러넘치는
행복한 이 저녁 이밤은

전우에게 보내는 편지

최 명 길

축하하네 전우여
온 나라가 떠받드는
인공지구위성과과학자 공화국영웅으로
과학자들 소개될 때
그대가 나의 병사시절의 옛 전우임을 알았네

출근길 달리는 전차안에서
신문을 펼쳐들고 웨치고싶었네
오늘 아침 신문과 방송에 소개된
위성과과학자 공화국영웅 그대
병사시절 나의 옛 전우였다고

나는 그들에게
병사의 성미대로 말하고싶었네
잠자리도 나의 옆
그대는 포장 나는 조준수
나는 중대시인 그대는 소문난 공학박사

고향떠나 초소에 함께 섰던 우리
저녁 텔레비존앞에 앉아
고향소식 들을 때면
제 고향자랑에 가슴달던 우리 아니었던가

그대의 희망은 무엇이었던가
조국을 과학으로 빛내갈 그 마음
우리 중대는 다 알고있었지
세계의 권위있는 과학자가 되겠다던...

그대 제대되던 날 역두에서

전우들과 한 약속 잊을수 없네
이제 우리 다시 상봉하는 날
당당한 과학자와 상봉의 약속을
《전선에서 만나자》노래에 담아 불렀지

병사들의 약속은 생명과도 같은것
그날 나는 굳이 믿었네
그날 나는 보았네
당당한 과학자가 될 그대의 모습을

우리는 어제날의 병사들
초소를 떠나 조국땅 그 어디에 살아도
위성과과학자 그대를 잊지 않을것이네
그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드린
우리 중대와 동지들의 제일자랑이 아닌가

아마 그대의 모교엔 벌써
공화국영웅이 된 그대의 사진과 공로가 빛날거네
우리 중대의 전우들과
그 안해들의 마음속에도

축하를 보내네 공화국영웅 나의 전우여
내 지금 그대와 헤어질 때 부르던 노래
《전선에서 만나자》노래를 이어
새 노래를 짓고있네
우주를 정복한 과학자들 축하하는 노래
우리 상봉의 그날에 부를 노래를 짓고있네

전우여 부디 안녕히!



정든 일터

배 경 휘

마이싱직장에서는 이번에 또다시 최고생산년도 수준을 돌파한 기쁨을 안고 묘향산관광을 가게 되었다.

그런데 직장장 장영화가 몸이 불편하여 함께 갈 수 없다는 말이 퍼지자 온 직장이 웅성거렸다.

하루는 장영화가 현장을 돌아보는데 분장반장이 묻는 것이었다.

《직장장동지가 병때문에 묘향산에 가지 못하신다는게 사실입니까?》

장영화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못 갈것 같애. 그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겠어. 가서 잘 보고와서 이야기를 해달라구.》

반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시선을 떨구는 그 얼굴에 서운해하는 기색이 렁력히 어려있을 뿐.

장영화가 발효작업반현장에 들어서니 멸균공 명철이의 청높은 음성이 들려왔다. 키가 큰만큼 목소리도 높다.

《직장장동지가 안 가면 가서 뭘해? 나도 안 가겠어.》

《어딜 안 가겠다는거예요?》 하고 장영화가 묻자 명철은 당황히 시선을 돌려버리는데 반장이 물었다.

《직장장동지가 관광을 못 가신다는게 정말입니까?》

《왜? 내가 못 간다고 뭐가 특별히 달라지는건 아닌데...》 하고 장영화가 톡조로 말하며 웃자 발효반장은 고개를 저었다.

《직장장동지가 없으면... 재미가 없다고 할가, 섭섭하지요.》

장영화는 소리내어 웃었다.

《왜 그래요? 난 잘 놀줄도 모르는데... 명철이

가 나때문에 자기도 안 가겠다고 하면 문제시하랴요. 직장장이 뭐라고... 난 못 가도 부문당비서동무가 가지 않나요?》

그러자 명철이가 참을수 없는지 쑥 나섰다.

《체, 들놀이를 나갈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가야지 그중 한사람만 빠져도 흥이 납니까?》

《우리 명철이가 제법이다!》 하고 반장이 눈을 빛내며 환성을 올리는데 다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자기에게 쏠리는 기대어린 시선들앞에서 장영화는 자기를 것처럼 믿고 따르는 직장사람들에 대해 뜨거워지는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직장장동지, 우리가 잘 모시고 갔다가 오겠으니 함께 갑시다.》 하는 누군가의 간청에 장영화는 웃고말았으나 현장을 떠나 내려오는 그의 생각은 점점 깊어졌다.

그동안 겹친 피로로 인해서 몸살이 나고 대상포진이라는 병이 생겨 병원에서는 장영화에게 극력 안정하며 치료를 하라고 하였었다.

그래서 모처럼 가는 관광도 마다하러 하였는데 직장종업원들의 심정이 이러하니 생각이 많아졌다. 명철이의 볼부은 목소리가 귀전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집에 가서도 그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내가 우리 사람들의 그 마음을 마다할수 있는가? 그들이 것처럼 나를 생각해주는데 내가 거기에 보답해야 옳지 않는가? 아무리 아파도 쓰러질지언정 어떻게 자기의 편안만 생각하겠는가?

관광을 떠나면 책임자로서 머리 쓸 일이 가득하다는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있었다. 백수십명의 집단을 데리고 움직인다는것이 간단한가? 그 일

역시 지금의 건강상태에선 자기에게 과중한 부담이
란것을 알고있었기에 관광이 생산과 같은 전투과제
가 아니라는데서 빠지려 하였지만 일이 이렇게 되
고보니 물러설수 없었다.

직장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쓰러질지언정 가야 하
지 않을까?

한숨을 내쉬는 그의 눈에는 따뜻하면서도 심중
하고 엄격한 표정이 어리었다. 언제나 자기에게 높
은 요구성을 제기해온 그는 이번에도 그 모든 고
통을 이겨낼 결심을 굳히고있었다. 지금까지 그렇
게 살아온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밖엔 살수 없는
장영화였다....

다음날 장영화가 자기들과 함께 관광을 간다고
하는 말에 노동자들의 얼굴에 웃음이 퍼졌다. 그
러면 그럴테지.

그로부터 얼마후 관광지에서 돌아온 장영화는 끝
내 더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때에야 직장사람들은 자기들이 즐거움에 겨워
시간가는줄 모르고있을 때 자기들과 함께 시종 웃
으며 모든 생활상편의를 보장해주던 직장장이 남모
르게 얼마나 피로와했는가를 알게 되었고 다시한번
자기네 직장장이 어떤 인간인가를 생각하게 되었
다. 과연 우리 직장장은...

장영화가 입원한 호실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직장
사람들로 조용해보지 못하였다. 물기를 머금은 눈
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녀성노동자들, 따뜻한 얼굴
로 위문하는 사나이들... 그들에게 웃음으로 대답하
는 장영화의 마음은 한없이 뜨거워지기만 하였다.

그들속에 명철이도 있었다. 그는 아무말없이 서
있다가 직장장과 눈이 마주치자 빙그레 웃었는데
그때 그 눈에 어린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를 따
뜻하고 부끄러워하는 빛이 장영화의 가슴을 후덥
게 덥혀주었다.

순간 몇달전에 있던 일이 우렷이 눈앞에 떠올
랐다.

조용한 사무실안에는 두사람, 자그마한 중년녀인
과 키 큰 젊은 청년이 있었다.

직장장 장영화와 발효작업반의 명철이었다.

장영화는 날카롭게 명철을 쏘아보았다.

《난 동무가 그렇게 한심하게 일처리를 할줄은
몰랐어. 그래도 동무가 문제를 똑바로 보고 자기
앞처리는 할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해요. 동무가 거
기에 갈 사람이라면 마음대로 하라요. 그러나 여
기서 조직생활을 하고 여기서 자기의 운명을 개척
하려고 한다면 똑바로 생각하고 자기 집단에 발을
붙이라요.》

명철은 고개를 수긏하고 곳곳이 서있을뿐이었다.
후리후리한 키에 눈이 어글어글한 미남의 청년인

그는 생기기만 잘난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도 막히
는것없이 잘했다. 더우기 두뇌가 명석하고 컴퓨터
기술이 높은것으로 하여 장영화는 그를 아주 귀중
한 인재로 여기여왔다.

정보산업시대인 오늘 모든 생산공정이 컴퓨터화
되어가는 실정에서 노동현장에도 컴퓨터인재가 절
실히 필요한것이다.

그런데 컴퓨터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관은 마이싱
공장뿐이 아니었다.

시내의 어느 회사에서도 그러한 인재가 요구되었
다. 그 회사에서 명철의 존재를 알고 일정한 기간
그를 자기네한테 동원시켜줄것을 공장에 제기해왔
는데 사업상 긴밀히 련관된 이 기업소의 간절한 요
구를 공장에서는 물리치지 못하였다.

명철을 보내며 장영화는 말했다.

《거기서는 한 40일이면 된다고 해요. 그러니 그
동안 가서 일을 잘하세요.》

사실 직장에서는 당의 예방의학방침관철을 위해
높이 세운 항생소생산계획을 수행하자니 로력이 극
도로 긴장했고 또 컴퓨터전문가로서 명철이 할 일
이 많았다. 하지만 공장의 다른 기관과의 관계를
위해서 장영화는 많이 양보하였다.

헌데 그후 두달이 지났지만 그곳에선 명철을 돌
려보내려 하지 않았다. 명철이도 그곳에 재미가 붙
었는지 직장에 돌아오려 하지 않았다.

그를 보낼 때엔 배운 지식과 기술을 거기 가서
더 련마하고 자질을 더 높이라고, 그것이 그의 앞
날을 위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하며 보냈지만 오늘
그가 직장에 돌아오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니 장영
화는 마음속에 섭섭한 생각이 스며드는것을 어쩔
수 없었다.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마음이 변
할수 있을까?

회사에선 그를 그냥 놔두려고 할수 있어도 그
의 립장에선 약속한 기일이 지났으니 돌아가겠다
고, 만약 더 일해야 한다면 공장과 직장에 련락
하여 다시 지시를 하도록 하라고 해야 옳은 처
사가 아니겠는가?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고 종구
나 하고 지내고있었다. 거기에 있으면 직장에 있
는것보다 편안할수 있고 생활조건도 공장에서보
다 좋을수 있다. 그것이 좋아서 직장생각을 하지
않는것인가?

정말 그렇다면 너무 섭섭한 일이라고 생각되었
다....

사실 명철의 컴퓨터기술은 장영화의 남다른 관심
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었다. 컴퓨터를 배우고싶어
하는 명철의 지향에 공감하고 장영화는 김책공업중
합대학 교원들이 직장의 현대화를 도와주려고 왔을
때 작업반장에게 말하여 교원들의 방조자로 명철을
붙여주게 하였고 많은 시간을 떼주어 그가 컴퓨터

를 깊이있게 배울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근 한해동안 명철은 열심히 컴퓨터를 배워 프로그램까지 짤수 있게 되었다. 작업반장은 명철이가 작업반사업에서 떨어져 컴퓨터에만 붙어 있는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었지만 장영화는 애써 반장을 타이르곤 하였다.

《반장동무, 지금은 컴퓨터의 시대인데 배우게 놔두세요. 작업반에 그런 기술자가 하나 있으면 앞으로 써먹을데가 많아요. 모든 작업을 컴퓨터로 조종해야 하는데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젊은 사람들이야 날수 있는것 날라고 해야지요.》

좋은 두뇌와 천천적재능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것이 아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키워주는것도 일군의 몫이라고 장영화는 생각하였다. 그는 명철의 재능과 명석한 두뇌를 귀중히 여기었고 그의 발전을 위해 부모이상으로 원심을 썼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그가 자기를 키워준 집단의 귀중함을 잇는다면 참으로 섭섭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파연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을가? 내가 그에게 원심을 기울여 키운것이 잘못된 일인가?

가슴이 쓰렸다. 인간이라면 의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은 부모나 형제, 동무들과의 사이에도 의리를 지켜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집단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것이다. 바로 그것을 그가 잊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서 장영화는 이날 저녁 명철이를 불러들였던것이다.

믿음과 기대가 컸던만큼 노여움도 컸고 그래서 짹짹하게 다물러댔다.

명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여전히 날카로운 눈길로 쏘아보며 장영화가 물었다. 인정을 쏟을 때엔 친어머니같다가도 결함을 보면 참지 못하고 무섭게 변하는 장영화였다.

무슨 일이나 두리몽실하게 처리하는 법이 없고 일단 포착하면 끝까지 파고드는 그앞에서 한다 하는 남자들도 땀을 흘리곤 하였다. 장영화자신도 그것을 알고있었다. 그래서 속으로 자기가 너무하지 않는가고도 생각해보곤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 먹은것을 어찌겠는가? 직장장의 앞에선 결함을 감출수 없고 낱알이 파헤치기에 그의 예리한 눈길에 걸려들가봐 두려워들 하는데 아마 뒤에선 욕을 할것이다. 더우기 남자들이 녀자에게서 욕을 먹자니 싫을것이다. 그러나 생산과 집단생활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선 묵여둘수 없었다. 고인 물은 썩기마련이니까.

《래일부터 직장으로 나오겠습니다.》

대답이 씨원스럽다. 허나 이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직장장의 추궁앞에 억지로 하는 말인지? 그래도 그 대답이 반가웠다. 장영화의 목소리는 약간 누그러졌다.

《그렇게 하라요. 동무는 여기서 지금까지 일을 잘해왔고 여기서 귀중한 존재로 자라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기의 지난 성과를 귀중히 여기고 여기서 자기의 정치적생명도 빛내이고 여기서 인생의 탑을 쌓아가야 하지 않을까? 난 동무를 똑똑한 사람으로 보았는데 그렇지 못한것 같애요. 똑똑히 처신해요. 잊지 말것은 동무가 그 회사에 가서 보낸 두달은 동무의 직장생활에서 공백으로 되었다는거예요, 동무가 일처리를 잘못했기때문에...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래요. 가보라요.》

돌아선 명철은 씨엿씨엿 걸어나갔다. 욕을 먹은 기분이 좋을수는 없다. 그 뒤모습을 바라보는 장영화의 마음도 가볍지 않았다. 속이 알찌근하였다. 욕이란 잘못된 일을 바로잡자고 하지만 언제나 해놓고나면 기분이 좋지 않았다. 늘 칭찬만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장영화는 송수화기를 들었다.

《장영화 전화받습니다.》

《여보, 언제 퇴근하겠소?》

남편의 목소리였다. 장영화는 얼굴이 밝아졌으나 의아한 어조로 물었다.

《왜요? 아직 좀 더 있어야 해요.》

《오늘이 당신 생일이란걸 잊은게 아니요? 난 배가 등가죽에 붙겠소. 오래간만에 영준이가 며느리와 함께 왔는데 좀 일찍 들어올수 없소?》

장영화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올랐다. 생일이라? 자기는 까맣게 잊고있었는데... 직장일밖에 모르는 자기를 리해해주고 집에서 제기되는 일을 다 맡아주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더구나 멀리 중요한 초소에 나가있는 맏아들이 처와 함께 왔는데... 아직도 늦게까지 직장사무실에 있으니 집에서 얼마나들 기다렸겠는가? 매일이면 그 애들이 떠나겠는데... 이제 가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애들이다.

《알겠어요. 곧 가겠어요.》

송수화기를 내려놓는 그의 눈앞에 다시 명철의 얼굴이 떠올랐다.

여하튼 자기가 명철을 불러다 말을 해준것은 잘한 일같았다. 명철이는 자기의 마음을 알아줄것이다.

...명철의 마음은 무거웠다. 직장장이 요구하는 뜻은 알만 하였다. 원칙상 옳은 말이기에 그것을 부정할수는 없었다. 그러나...

회사사장의 너부죽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명철을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무슨 과장이라는 사람을 불러 명철에게 일감을 주게 하였는데 왜 그런지 그 태도가 사람을 떠보는것 같아서 불쾌하였다. 하긴 그가 자기의 존재가치를 알수는 없고 그저 가시아버지의 말이나 듣고 써보자는거겠으니 그럴수도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일감도 별로 써원치 않았다. 컴퓨터로 할 일이란것이 자료들을 분류하여 기억시켜놓는것인데 그것은 그에게 일이라고 할것도 못되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지만... 현대하는 일에 비해서 대우는 괜찮았다.

보건대 회사에선 그에 대해 만족해하는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두달이 지나도록 공장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지 않았고 명철이도 어느 사이에 이 생활에 적응하여 여기를 떠나고싶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장영화직장장이 그를 찾아 침을 놓는것이였다.

그의 말이 옳다. 이렇게 뜨내기생활을 계속할수는 없는것이다. 회사에 아주 옮겨오든지 직장으로 돌아가든지 해야 할것이다. 가시아버지는 그가 실력을 발휘하면 사장이 생각이 있을것이라고 하였다. 명철이만큼 머리 좋고 실력있는 컴퓨터기술자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것을 모를 사람이 아니라는것이다. 그런데 사장은 지금 평양에 올라가있다. 자주 평양에도 가고 외국에도 나가는 사람만큼 그가 언제 명철에게 관심을 돌릴지 알수 없지만 실력가를 중히 여기리라는것은 의심할바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그것은 회사의 전망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니까. 그래서 초조감을 누르고 기다려왔는데 오늘 직장장의 추궁을 받고보니 자기가 확실히 뽕뽕하게 처신한것 같았다. 아니, 뽕뽕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어느새 회사쪽에 가있었기에 그렇게밖에 할수 없었었다.

그러면서도 그가 회사에 가겠다고 의사표명을 하지 못하는것은 지난날 직장에서 받은 믿음과 사랑을 헌신짝 버리듯 외면할수 없기때문이었다. 과연 장영화직장장이 그를 위해 얼마나 마음을 써왔던가? 그것을 잊으면 사람이 아닐것이다.

그가 오늘과 같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것도 장영화의 노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었다.

처가에서는 원래 명철이의 부모가 군에 있고 그가 홀로 공장에 다닌다는데서 사위감을 미타하게 여겼었다. 그래서 딸이 총각을 달고다니며 떨어지기 어려워한다는것을 알자 소동을 일구며 딸을 무섭게 달구기도 하고 명철이에게 물리설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발효작업반에 올라온 장영화직장장이 명철을 부르더니 휴게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장영화는 명철을 눈여겨보며 조용히 물었다.

《요새 명철이가 풀기없이 지내는것 같은데... 뭐 고민하는게 있어요?》

명철이 고개를 숙이고 침묵을 지키자 장영화는 안타까운듯 다시 물었다.

《처녀의 집에서 반대한다는게 사실이에요?》

《내가 군에서 왔고 입당도 못하고있으니까 눈에 차지 않겠지요 뭐.》

명철은 원래 X군태생으로 도에 있는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도소재지에 배치된것이였다.

묵묵히 듣고있는 장영화의 얼굴엔 심각한 표정이 어리였다.

《그래서 명철동무의 생각은 어때요? 물려서겠어요 아니면 꼭 그 처녀와 결혼하겠다는거예요?》

《글쎄 우리 육당대로 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영희의 아버지가 그렇게 나오니 어쩔면 좋을지... 내가 너무 자존심이 없는것 같기도 하고... 그 동무가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 하는 장영화의 얼굴엔 따뜻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말없이 무언가 생각하는 그의 얼굴엔 점차 웃음기가 사라지고 신중하고 단호한 표정이 어리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처녀가 명철을 찾아와 자기 아버지가 찾는다며 함께 가자고 하였다.

《동무의 아버지가 왜 나를 만나겠다는거요? 다시는 일썌도 하지 말라고 한게 언제때...》

《그땐 그때고... 동무네 직장장동지가 우리 집에 오셨댔어요. 직장장동지가 얼마나 동무칭찬을 하는지 우리 아버지도 생각이 달라진거예요. 그렇게 일 잘하고 머리 좋고 재간둥이라면야 마다할게 있는가고 하며 저를 보고 데려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하여 처녀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가긴 했지만 명철의 마음속엔 불안과 의문이 그냥 맴돌고 있었다.

그런데 과연 처녀의 아버지의 태도가 전과 판판 달라졌었다.

그들이 들어가자 뚱뚱한 몸집의 그가 환한 얼굴로 마주나오며 《아, 우리 사위감 왔나?》하며 맞아주는데 언제 뻔뻔히 거절한적이 있었던가싶었다.

그들이 마주앉자 처녀의 아버지는 새삼스러운 눈으로 그를 여겨보며 입을 열었다.

《자네네 직장장이 정말 훌륭한 일군이더구만. 자네 사람복이 있어. 글쎄 임자네 직장장이 선군시대 공로자라는건 알고있었지만 그저 일 잘하는 사람으로만 알았지 인간적으로 그렇게 훌륭할줄은 몰랐소. 장영화직장장이 아니었다면 내가 훌륭한 사위감을 놓칠뻔 했거던, 하하. 내가 눈이 멀었지. 임자네 직장장덕에 나도 정신이 드는것 같애, 허

히.》

장영화가 그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나 처녀의 아버지가 그토록 감탄하는것을 보면 직장장을 만나보고 그의 인품에 반했던 모양이다.

하긴 장영화직장장에 대해선 온 공장이 혀를 내두르는것이니 그런 녀성일군 아니, 그만한 일군을 어디서도 찾기 어려울것이라는것이 온 공장의 한결 같은 견해였다.

세계적으로 항생소공업은 가장 깨끗한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공장주변은 수림화되고 깨끗한 공기속에서도 또 철저한 반격폐, 완전격폐를 보장하며 순수하게 정제된 공기와 물을 써야 하는데 지난 시기 신의주마이싱공장은 그러한 요구수준에 따라 서지 못하고있었다.

그렇게 수십년간 남자직장장들도 엄두를 내지 못하던 직장의 현대화사업을 완강하게 내민 사람이 다름아닌 장영화직장장이였다.

그리하여 항생소공장으로서의 초보적요구인 반격폐와 완전격폐를 실현하여 무균화를 보장하고 생산을 정상화하여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였는데 그것은 그때까지 누구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것을 녀성직장장인 장영화가 해낸것이다.

하여 마이싱공장이 전국에 소문을 내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감사를 받았으며 전국의 보건부문에서 이 공장 로동계급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야 한다는 은정깊은 믿음도 받아안게 되었다.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다는것이 말이 간단하지 실지 오늘의 실정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웬만큼 큰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년간계획만 수행하면 대단한것으로 여기는데 여기 마이싱공장에선 년간계획을 넘쳐수행하고 최고생산년도수준을 계속 돌파해나가고있는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자재와 원료보장이 다른데보다 잘되고 모든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였다. 설비, 동력조건, 자재 등 어느 하나도 걸리지 않는것이 없었다.

그런 조건에서도 마이싱공장에선 최고생산년도수준을 계속 돌파하고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온 나라에 자랑할만 한 일이였고 마이싱공장, 그것도 그 심장부인 마이싱직장에서 일한다는것은 누구나 가질수 있는 긍지가 아니였다.

그런데 다름아닌 마이싱직장의 장영화직장장이 것처럼 자랑스러워하고 귀중히 여기는 청년이 자기의 사위감이였으니 처녀의 아버지가 어찌 놀라지 않을수 있으랴.

결국 암초에 걸렸던 명철의 혼사문제는 장영화의 노력으로 얼음판에 박밀듯 풀려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것처럼 장영화에 대해 호감을 가졌던 가

시아버지가 회사사장을 한다는 옛친구에게 어떻게 흘렸는지 자기 사위를 마이싱직장에서 떼여 그 회사에 보낼 궁리를 하게 된것이다.

유혹이란 무서운것이다. 생활과정에는 허다한 유혹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자기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나간다는것이 결코 험한 일이 아니다.

인간이란 누구나 보다 좋은 생활과 활동조건을 바라기마련이기에 것처럼 유리한 조건을 쉽게 마다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리하여 명철이는 그 회사에 마음이 쏠리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장영화직장장의 요구를 뿌리친다는것은 인간으로 할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었기에 그는 직장장의 요구대로 다음날부터 직장장으로 출근할 결심을 하였다. 그래서 아침일찍 회사에 나가 이제부터는 공장으로 출근한다는것을 알려주고 갈 생각이였다. 만약 회사에서 자기를 필요한 존재로 여긴다면 다시 공장에 이야기하여 데려갈것이니 그렇게 하는것이 현명한 일이라.

헌데 생활이란 언제나 자기 생각대로만 되는것이 아닌것 같다.

다음날 아침 명철이 회사에 나가니 파장이 반가이 맞으며 말하는것이였다.

《그러지 않아도 자넨 찾으려던 참이였네.》

《전 공장으로 나가던 길에 들렀습시다. 이제부터는 공장으로 나간다는것을 알려주자고요. 동원기간도 지나고 해서...》

그 말에 파장의 얼굴빛이 달라졌다.

《공장? 가만, 그건 사장동질 만나보고 이야기하자구. 사장동지가 어제 저녁에 돌아왔는데 동무를 만나겠대. 그동안 동무가 일을 많이 했다고 하니까 만족해하는것 같애. 그래서 내가 동무를 찾으려고 했는데 마침 이렇게 나왔으니 잘됐어.》

그들이 방에 들어서자 사장은 전화를 하면서 의자를 권하였다.

이윽고 전화를 끊은 그는 미소어린 눈으로 명철을 쳐다보았다.

《그래 어떻게? 여기 일이 마음에 드오? 앞으로 할일이 많소, 정보기술의 시대니까... 여기서 일해볼 생각이 없소?》

명철은 가슴이 후두두 뛰었다. 지금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고있지 않는가싶었다. 《있습니다.》하고 대답하고싶었으나 전날 저녁에 있던 장영화와의 대화가 떠오르며 선뜻 말이 나가지 않았다.

사장이 그를 유심히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 회사엔 동무같은 인재가 필요되오. 앞으로 여기선 동무가 할일이 많소. 정보기술의 시대적 요구에 맞게 제품설계도 해야 하고 세계의 선진기술에 대한 정보도 적극 받아들여야 하고... 우린 동

무에 대한 기대가 크오. 어쩡소? 한번 손잡고 일해볼 생각이 없소? 보다 넓은 범위에서 사고도 하고 시야를 넓혀보지요.》

명철은 가슴이 쿵쿵 뛰며 몸이 붕 뜨는것 같았다. 당장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오르는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제야 자기에게 맞는 적합한 직업에 맞다들리지 않았는가싶었다. 그 전망은 얼마나 휘황한가? 지금껏 자기가 일해온 마이싱공장의 발효작업반과는 하늘과 땅차이인것이다. 거기에서도 자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수 있지만 거기에 자기가 없다고 일을 못할것은 없다. 그러나 여기에선 지금 자기가 둘도 없이 귀중한 존재로 되고있다.

그렇게 생각하니 회사로 오는것이 국가적립장에서도 옳바른 처사인것 같았다. 그 순간 그의 머리속에는 마이싱직장에도 아직 기술적문제들이 적지 않으며 직장에서 자기에게 기대하는바가 얼마나 큰가 하는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만큼 직장의 그 기대와 믿음에 비해볼 때 자기가 생각하는것이 자신을 정당화할 구실에 불과하다는것을 깨달을수도 없었다. 다만 사장이 말하는것이 자기가 바라는바와 일치하다는데서 더없는 만족을 느꼈을뿐이었다.

그러나 애써 마음을 다잡고 겸손하게 말하였다. 《사실 전 배운것도 없는데 사장동지의 그 기대에 보답할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힘껏 일할 생각뿐입니다.》

사장은 만족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한번 잘해보지요.》

파장도 금시 얼굴이 환해졌다.

순간 명철에게는 불쑥 장영화의 얼굴이 뇌리에 떠올랐다. 직장장이 자기를 기다리고있었는데...

그는 당황히 입을 열었다.

《저-전 이제 공장에 나가보아야 합니다. 동원기간도 지난만큼 직장에서 찾습니다. 그러니 회사에서 공장에 다시 연락을 하여 대책을 세워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공장사람인만큼...》

사장의 얼굴이 신중해지더니 고개를 끄덕이였다.

《동원기간이 끝났단 말이지? 그건 우리가 잘못한것 같소. 내가 공장에 말하지, 아예 달라고 말이야. 아무래도 올 사람인데 가긴 뭐 가겠소? 내가 공장에 말하면 되겠지?》

명철이 뭐라고 대답하기 전에 파장이 앞질러 대답하였다.

《그럼요. 공장에 말해서 직장에 알려주게 하면 될겁니다. 그렇지 않소, 명철동무?》

《예. 그렇긴 한데... 공장에서 놔주겠다고 하겠는지...》

명철이 당황히 중얼거렸다.

《그건 걱정마오. 우에 제기해서 소환하게끔 조치를 취하겠소.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국가에 더 큰 리익을 주게 해야 할게 아니요? 자, 식사하러 가지요.》 하고 파장은 일어섰다.

사장방문을 나서는 명철의 마음속은 어쩡지 개운치 않았다. 회사에 말하고 가려고 들린것이 그만 여기에 발목을 잡히고말았는데 과연 이것이 잘된 일인지?...

웬일인지 장영화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얼른거리며 자기가 철면피한 인간처럼 느껴짐을 피할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애써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사장이 공장에 전화를 하여 직장에 알려주게 하면 다 풀릴것이다. 내가 가지 않으려고 한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연락한것이니 모든것은 제대로 된셈이다. 직장보다 여기에 내가 더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

명철이 사장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가던 그 시각 그의 집에서는 가시어머니가 사색이 되어 딸의 주위에서 맴돌고있었다. 딸이 배를 그러쥐고 누워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어 신음하고있는데 남편은 출장을 갔지, 사위는 어디에 갔는지 연락할 길이 없으니 녀인이 당황하여 혼자 어쩔바를 모르고있는 것이었다. 회사에서는 명철이 사장과 함께 나갔는데 어디에 갔는지 모른다고 하였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이고- 엄마, 아이고 배야.》

딸은 어린애처럼 방바닥에서 뒹굴며 신음하고있는데 녀인은 울상이 되어 《왜 그러니? 갑자기 웬일이냐, 응? 네 남편은 어디에 가있다는거냐?》 하고 푸념하며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아침까지 편편하던 딸이 이렇게 대굴대굴 구는데 도대체 사위는 어디에 갔단 말인가? 말을 들어보면 어제부터 조금씩 아팠다고 하는데 참고있다가 아무도 없을 때 쓰러졌으니 지금 어쩡단 말인가? 믿고 의지할데라곤 사위밖에 없는데 그가 없으니 어쩌면 좋을지 알수 없었다. 그러다가 문득 전날 저녁에 사위가 다음날엔 공장에 나가야 한다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혹시 직장에 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는 황급히 송수화기를 들었다.

장영화는 서둘러 작업복을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점심식사를 하고 아들과 며느리를 바래주어야 하는것이다.

그가 책상우의 사업수첩을 집어놓고 안경을 주머니에 넣는데 전화종이 울리기 시작하였다.

송수화기를 들었다.

《뭐라고요? 예... 명철동무는 직장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예? 명철이의 안해가?...》

그 놀란 목소리에 T자형으로 놓인 앞책상에 앉아있던 책임기사가 의아한 시선을 그에게 던졌다. 장영화는 눈이 커져 긴장된 얼굴로 책상위의 한점만 응시하며 수화기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잠시후 송수화기를 내려놓는 그의 예리해진 눈길에 초점없이 허둥거렸다. 명철이의 처가 급병으로 앓고있는데 명철이는 집에 없다. 그는 직장에 출근도 하지 않고 어디에 갔는가? 허나 지금은 그를 찾는것보다 그의 안해를 빨리 병원에 데려가는것이 급선무이다. 명철의 가시어머니는 당황하여 어쩔줄을 모르고있다. 지금은 점심시간인데 공장의 소형버스운전사가 있을까?

장영화는 송수화기를 들고 자재파를 찾았다.

《과장동지입니까? 우리 직장동무네 가족이 지금 급해서 그러는데 당장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차를 좀 쓰게끔... 예,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급해서 그러니다.》

송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는 문을 향해 걸음을 옮기며 책임기사에게 말하였다.

《명철동무네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의 안해가 위급하대요. 내가 차를 끌고 거기 가겠으니 회사에 연락하여 혹시 명철이가 거기에 오면 처가 시병원에 실려갔다고 알려주도록 하세요.》

책임기사가 놀란 눈으로 쳐다볼뿐 대답을 하지 못했다. 직장장이 오늘 점심때 아들, 며느리를 바래주어야 한다는것을 알고있는 그였다.

소형버스에 앉은 장영화는 초조한 시선을 손목시계에 주었다.

차는 살같이 달렸으나 너무 더딘것만 같았다. 명철의 안해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제발 다른 일이 없어야겠는데...

자기를 기다리고있을 아들과 며느리, 남편의 얼굴이 눈앞을 스치었다. 헤어지기 전에 마주앉아 식사라도 함께 하자고 했는데... 남편이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들리는것 같았다.

《이건 그저 직장밖에 모른단 말이야. 제 집보다 직장에 더 정이 들었는가?》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장영화는 안타까이 속으로 부르짖었다.

장영화를 본 명철의 가시어머니는 눈물이 글썽하여 부르짖었다.

《아이구, 직장장동지가 오셨구만요.》

《환자가 어때요?》

《그저 표부리고서 대굴대굴 구는데 죽을것만 같은게...》

울먹울먹한 목소리이다.

방안에 들어가 환자를 본 장영화는 급성충수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부터 아팠어요?》

《어제부터... 조금씩 아팠는데... 아침부터 점점 더... 아-》 하고 젊은 녀인은 몸을 비틀었다.

《빨리 병원에 가야 하겠어요. 자, 어서... 떠나자요.》

그들이 병원에 도착하자 환자를 진찰한 의사는 왜 이제야 왔는가고 하며 즉시 수술준비를 시켰다.

장영화가 예견했던것처럼 급성충수염이었다.

《좀더 빨리 왔으면 좋았을걸.》 하는 의사의 말에 장영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환자를 위해 무엇인가를 더 못하는 안타까움에 그의 얼굴이 울상이 되었다.

《선생님, 어떻게나 꼭 살려주십시오. 네?...》

눈물이 배인 그 간절한 부탁에 의사가 딱한듯 대답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문제는 빨리 와야 하는건데...》

불안해하는 의사의 태도에 장영화는 가슴이 떨리며 속이 까맣게 타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정말 늦었다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다. 그런데 명철이는 이것도 모르고 어디에 가있는가?

수술이 시작되었지만 장영화는 복도에서 서성거리며 떠나지 못하고있었다. 집에서 남편과 자식들이 기다리고있다는것을 잊지 않고있었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수술이 끝나는것을 보지 못하고 가면 안될것 같은 심정이여서, 그대로 가면 마치 수술이 잘못될것 같고 명철이와 안해, 그의 가족앞에 죄를 짓게 되는것만 같았다.

집에선 자기 가족이 기다리고있고... 아들과 며느리는 당장 떠나야 하건만... 시간은 거침없이 흐르는데...

수술장앞을 초조히 거닐며 그는 어찌할바를 몰라하였다. 내가 여기서 할일은 다 하지 않았는가? 내가 있다고 수술이 더 잘되는것도 아니고 내가 없다고 하여 환자가 잘못되는것도 아니다. 저쪽에선 아들과 며느리가 안타까이 기다리고있겠는데... 차시간이 되어오는데...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으나 계단앞에서 멈춰섰다. 아니, 사람이 죽어가는데, 생사가 결정되고있는데 어떻게 떠난단 말인가?... 돌아섰다.

허나 차시간은 어길수 없다. 그는 다시 계단으로 걸음을 옮기다가 멈춰섰다.

그러기를 몇번...

그러다가 시계를 보니 발차시간까지 몇분 안 남았다. 깜짝 놀란 그는 할수없이 명철의 가시어머니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둘러 계단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병원문을 나서서 반달음으로 달렸다. 이제는 뛰여가도 기차가 떠나기 전까지 역에 도착하기 어렵

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타들며 찢어지는것 같았다. 제발, 제발하고 빌며 그는 숨이 턱에 닿아 역으로 달려갔다.

역사앞에 남편이 서있었다.

아들과 머느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기차가 이미 떠났는가?! 믿기 어려운 사실앞에 아득해지며 가슴이 철렁했다. 애들이 떠나갔구나, 아— 가슴이 무너져내리며 눈물이 솟구쳐올랐다.

그래도 남편에게 묻지 않을수 없었다.

《떠나갔어요?》

《...》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긴 무슨 대답이 필요하랴?

남편과 자식들에 대한 죄스러움에 가슴이 쏘아드는것 같았다.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고 떠나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섭섭해했을까? 멀리, 멀리로 가는 애들! 쉽게 만날수 있는 애들도 아닌데 그렇게 보내다니... 아, 내가 어머니구실을 너무 못하는구나.

몸부림치고싶은 심정이였다.

온몸의 힘이 다 빠진것 같은 허탈감에 간신히 몸을 가누며 서있었다. 이제는 돌아가야 하였다. 그러나 그대로 돌아설수는 없어 옆으로 지나가는 안내원에게 물었다.

《털차가 떠났어요?》

《떠났습니다.》

맥이 진한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싶었으나 무엇에 쫓기는듯 한 불안에 앉아 쉴 마음의 여유도 생기지 않았다.

《가자요.》

속삭이듯 남편에게 말하고 천천히 힘없는 걸음을 옮겼다.

촉은한 눈으로 그를 지켜보던 남편이 물었다.

《좀 쉬고 가지 않겠소?》

그래도 땀흘린 안해의 모습을 보고 그가 얼마나 급하게 달려왔는지 그리고 지금 그의 마음이 어떠할지 누구보다 깊이 헤아린 사람은 남편이였다.

《일없어요.》 하고 대답하는 장영화의 입귀가 떨렸다. 금방 울음이 터질것 같아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은 왜 늦었는가고 묻지 않았다, 늘 직장일로 바빠 돌아가는 안해를 알고도 남음이 있는 그이기에. 그러나 그 무거운 낮빛에는 숨길수 없는 불만이 어려있었다.

장영화는 마음이 아팠다.

어머니를 기다리고기다리다가 끝내 보지 못하고 서운해하며 떠난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보이며 가슴을 마구 허빈다. 그 서운해하는 얼굴이 눈앞에서 사라질줄 모른다. 목을 메우며 솟구치는 눈물이

다시 가득가득 고여올라 두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며 숨가쁘게 달려온 길을 맥없이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자기가 어떻게 남편과 헤어져 병원으로 들어왔는지 알지 못했다.

병원복도에 서서야 명철의 안해에 대한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과연 수술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의사실앞에 이르렀을 때 문이 벌럭 열리더니 명철이가 나왔다. 그를 보니 반가움이 왈칵 솟구쳤다. 그러나 장영화를 본 명철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다음순간 그 눈에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착잡한 표정이 어리였다. 당황함과 죄스러움과 고마움...

《직장장동지...》

《수술이 어떻게 됐어요?》

장영화가 다급히 물었다.

《잘됐습니다. 직장장동지덕에 저의 처가... 살아났습니다.》

《됐구만.》

장영화의 눈에 또다시 맑은것이 고여올랐다. 가슴을 무겁게 누르던 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는 환하게 웃었다. 명철의 처가 살아났다니 됐구나.

《수술이 잘됐다니 됐어, 정말 혼났됐어. 의사선생님들이 수고했구나.》

명철이 고개를 수그렸다.

《직장장동지...》

《왜? 일이 다 잘되었는데... 됐어. 선생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가자구.》

그러나 명철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줄 모르고 고개를 떨군채 서있었다. 머리를 들지 못하고 중얼거렸다.

《직장장동지, 제가 사람구실을 하려면 먼것 같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야?》 하며 장영화는 웃었다. 오늘 명철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구체적사정은 모르지만 지금 그의 심정은 헤아려졌다.

갑자기 명철이 머리를 번쩍 들고 눈물어린 눈으로 직장장을 응시하였다.

《직장장동진 저를 위해 것처럼 애쓰시는데 전...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직장이 얼마나 좋은 집단인지... 제 의리없는 인간은 되지 않겠으니 믿어주시시오. 직장장동지가 말씀하신대로 집단에 발을 붙이고 살겠습니다.》

장영화의 눈굽은 다시 젖어들었다. 명철의 그 말이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다. 가슴속에서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것처럼 시원해졌다. 그리고 뜨거운 속삭임이 마음속에서 솟아올랐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아. 우리 동무들은 정말 좋은 동무들이

숲의 소원

박 상 민

아침안개 허리춤에 질끈 동이고
숨는해 마주보며 푸른 웃음 날리는 산발
수려한 숲속에선 오늘도 고요히 흐르네
돌기돌기 년륜속에 새겨온 숲의 소원이

조용히 귀기울이면
숲의 간절한 속삭임은
이 가슴에 뜨거움을 가득 채워주는가
새로 심은 이깎나무도 연한 아지 흔들며
제 소원 들어달라
내 옷자락 붙잡고 보채이는듯

그러면 마음속에
따뜻이 샘솟는 나의 사랑
자식처럼 정을 다해 키워온 숲을
한가슴에 안아보는 류다른 행복이여!

물결같은 산발우에서
아름다운 춤가락 한껏 펼치는 숲에 싸여
푸르게 질어가는 내 삶의 뿌리로
조국의 산발들을 다 품어안고싶구나

굵직하게 살오른 거목들의 설레임은
이 숲에 바쳐온 내 사랑의 노래인가

낯은 정보다 키운 정을 더 크게 안고사는
어머니마음인듯 푸른 숲의 소원은 나의 소원

모란봉과 장산에 설레는 숲아
장자산기슭의 두그루 잣나무야
내 나라 행복한 숲의 자랑아
날마다 넓어지는 내 가꾼 숲에도
자애로운 미소 언제면 비껴올가

봄바람에 숲향기는 더없이 싱그러워
가슴속에 차오르는 그리움은 끝이 없네
우리 장군님 기쁨속에 모시고싶던 숲에
경애하는 원수님 모실 날만 손꼽아 기다리네

나무에 나무가 어깨부비는
조국의 장한 재부인 숲을 보시며
조선의 산을 쓰다듬어주시는 아버지
그 품에 안기고싶은 숲의 소원 나의 소원

아, 내 조국강산 어딜 가나
그 하나의 소원이 숲마다에 짝 찼구나
이 봄날 심어가는 어린 나무 아지에도
자양처럼 스며드는 소원이여!
내 나라 강산은 그 소원 안고 끝없이 푸르리라

야. ...

명철은 끝내 마이싱직장을 떠나지 않았다. 회사
사장은 아쉬워했지만 그가 의리를 저버릴수 없다는
말에는 리해를 표시하였다.

오늘 병원에서 말없이 자기를 쳐다보던 명철의
눈에 어린, 말로 표현 못할 정어린 표정이 지금도
장영화의 가슴을 따뜻이 적시고있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명철이는 직장의 기술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였
다. 그리하여 직장에서는 오늘 또다시 최고생산년
도수준을 돌파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
였다. 물론 거기에는 명철의 노력만이 깃든것이 아
니다. 직장에는 수많은 명철이들이 있다. 것처럼
진심으로 직장을 사랑하고 직장을 위해 발벗고 뛰
는 사람들이. ...

불현듯 장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생각하

는 자기들의 그 성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데 생각이 미쳤다. 각종 기술혁신을 비롯하여 많은
일을 한 그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아직 부족한것도 많고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서 쉽없이 혁신의 길로 달음질칠
수 있는것은 온 직장이 하나의 마음으로 뭉쳤기때
문이었다. 하나로 뭉친 그 힘이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갈 길을 찾게 하였으니 그 하나로 된 마음은 서
로서로 위해주며 의리로 뭉친 바로 그 정으로 이루
어진것이였다.

바로 이것이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토록
간곡히 가르치신 **김정일**애국주의의 구현이 아닐가?

허나 이 순간도 장영화는 자기가 명철이를 비롯
한 종업원들을 위해 바친 그 정이 바로 그들의 가
슴속에 자기 일터에 대한 뜨거운 애착을 심어주고
있다는것은 의식하지 못하고있었다.

축하합니다

강 혜 옥

달그락...달그락...

꿈속에서런듯 그릇소리가 나의 귀전에 귀맛 좋게 들려온다.

눈을 번쩍 뜬 나는 벽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계 바늘은 6시 30분을 가리키고있었다.

서둘러 부엌에 나가니 이게 무슨 일인가. 부엌에서는 이미 앞치마를 두른 세대주가 기름냄새를 풍기며 아침식사를 준비하고있었다.

《어마나!》

나는 가볍게 소리를 내며 웃었다.

때아닌 때에 봄소나기를 맞는 심정이랄가. 나는 놀라움과 감탄의 웃음을 금치 못하며 그의 등을 떠밀었다.

《미안해요. 내가 그만 깜박...》

하지만 싱글벙글 웃으며 하는 세대주의 말은 더욱 가관이였다.

《일없소. 오늘이야 3.8절이 아니요. 자, 어서 들어가오.》

두눈을 깜쩍 감으며 살갑게 등을 떠미는 세대주의 인정미에 가슴은 뜨거워지고 이 세상의 행복을 다 독차지한것만 같은 감정에 휩싸였다.

공장에 나가면 지배인이라는 직분으로 늘 바쁘게 사업하는 세대주였지만 오늘 아침은 영 판사람이 된듯싶었다.

이어 방안에는 소박한 밥상이 차려졌다.

색다른 음식은 없어도 세대주가 차려준 음식상이여선지 산해진미를 다 올려놓은듯 무척 풍성해보였다.

수저를 들며 하는 세대주의 다정한 인사말!

《여보, 축하하오.》

몽클, 나의 마음은 한없는 행복에 젖어들었다.

이때 중학교 3학년에 다니는 딸에까지도 향기 그윽한 꽃송이를 안겨주며 생글생글 웃는다.

《어머니, 3.8절을 축하해요.》

꽃송이를 받으며 나는 귀여운 딸애를 꼭 껴안아주었다.

집식구들한테서 축하의 인사를 받고보니 이 아침엔 별스레 모든것이 다 새롭게 안겨든다.

늘 마주있던 밥상, 언제나 함께 모여앉곤 하던 이 아침의 밥상이지만 불덩어리를 안은듯 가슴

은 뜨거워만진다.

창문턱에 놓여있는 화분의 꽃잎새조차 더욱 푸르러보이고 장식장에 놓여있는 새기술발명증서며 딸애의 최우등표창장까지도 모두 새롭게 안겨왔다.

더없이 소중한 우리 집, 나의 가정이라는 생각이 가슴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축하! 평범한 녀성로동자로 조국을 위해 크게 해놓은 일도 없이 한 가정을 꾸려온것밖에 없는 나였지만 이렇게 축하의 인사를 받고보니 생각도 깊어진다.

3.8국제부녀절!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서나 이날을 맞고보내지만 나는 이 땅에 사는 우리 녀성들이 제일 복 받은 녀성들이라고 말하고싶다.

문득 새해의 아침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를 하시며 온 나라 가정들에 화목과 더 큰 행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하신 축복의 말씀이 나의 귀전에 다시금 울려온다.

그 축복의 여운이런듯 3.8국제부녀절 이 아침에 우리 가정에도 웃음과 행복이 넘친다.

지난해 3.8국제부녀절기념 음악회 《녀성은 꽃이라네》를 관람하시면서 소박한 부부2중창과 가족중창도 들어주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영상은 그대로 온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에 파사론 해빛으로 비쳐들었다.

그 진정, 그 사랑이 고마워 목메여부르는 행복의 노래, 기쁨의 노래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충정다해 모실 한마음에 불타는 이 나라의 녀성들이다.

생각해보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속에 우리 녀성들을 위해 바쳐오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랑과 헌신의 자욱이 다시금 되새겨진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신 그때로부터 우리 녀성들은 흘러오는 세월과 함께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시책속에 참으로 행복한 삶을 누려오고있다.

온 나라 가정의 행복을 위해 그리도 찬눈비 다 맞으시며 험한 령, 험한 고지를 넘고넘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 그 불멸의 업적을 우리 군대와

푸르른 밀밭에서

로 옥 선

어디 안아보자
푸르른 네 아지 쓸어보자
서른해...
다시 찾은 어릴적 고향에서
좌좌 나를 반겨 설레이는 푸르른 밀밭아

안겨와라
울울창창 거목으로 자란
이깎나무 분비나무 장한 설레임속에
한그루 한그루 산판에 나무모 심어가던
그날의 벌목공들과 아버지의 모습

이제는 없는 나의 아버지와
그렇게도 숲을 사랑하던 그날의 벌목공들
푸르러 설레이는 밀밭을 보신다면
영암천 낮익은 저기 저 바위에 걸터앉아
《압록강 2천리》 한곡조 뽑았으리

그래서 오늘을 그려보며

벌목공들 이 나무를 심었던가
순환식채벌구역 새 산판으로
드바삐 떠나던 그 아침에도
간밤의 폭우에 드러난 네 뿌리 가슴아파
한삽 또 한삽 흙을 없어주었던가

아, 수령님 찾아주신 조국
장군님 지켜주신 선군의 내 나라에
천년만년 푸르러 설레이라고
한대를 베어내면 열대를 심던
아버지세대의 뜨거운 숨결이어
푸르러 설레이는 애국의 넋이어

그 숨결 안고살리
그 넋을 이어가리
한대를 베어내면 백대 천대를 심어가리
김정은원수님 받들어 산판마다
후손만대 행복의 재부를 주는
영원히 푸르른 보물고로 가꾸리라

인민은 영원히 잊을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자욱이 있고 한생의 념원이 다 깃들어있기에 우리 여성들의 삶과 행복은 이렇듯 빛나고 아름다운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경건한 마음과 자부심에 넘쳐 3.8절 이 아침을 행복속에 긍지높이 맞이하는것 이리라.

《3.8국제부녀절을 축하합니다.》

그렇다. 이 축하의 인사는 우리 여성들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사랑과 믿음의 표시이기에 이 축하의 인사속에 이 나라의 모든 여성들은 강성국가건설전투장마다에서 자기들의 힘과 열정을 아낌없이 다 바쳐간다.

나는 우리 조선여성들처럼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부강조국건설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참된 여성들은 아마도 없을것이라고 생각한다.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인 발사로 우주 정복자의 떳떳한 자랑을 안은 우리 과학자들속에는 바로 여성과학자들도 있다.

또 **김정일**애국주의로 불타는 조국땅 그 어느 전투장마다에나 수천수만의 우리 여성들이 서 있다.

정녕 수난의 그 세월에 또 고난의 그 나날속에 조국의 귀중함을 뼈저리게 절감한 이 나라의 여성들이기에 자기 가정의 행복보다 조국번영을 먼저 생각하며 자기의 모든것을 다해가고 있는것이다.

3.8국제부녀절 이 아침에 우리 여성들이 받게 되는 축하의 인사말!

이는 곧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어 우리 여성들의 행복한 삶은 영원하다는 내 조국의 따뜻한 속삭임이고 우리 가정, 우리 여성들의 행복을 영원히 담보해주는 사랑의 약속이며 더 밝고 창창할 래일을 위해 더 많은 땀을 바칠것을 량심과 의무로 자각케 해주는 인생의 당부이다.

무심히 가볍게만 받을수 없는 3.8국제부녀절의 이 인사말속에 봄날처럼 따뜻하고 자애로우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속에서 천만군민은 더욱 화려한 대가정의 꽃바다가 되여 이 땅을 아름답게 장식해갈것이다.

그 행복의 여운을 안고 축하의 인사는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 조국의 하늘가에 메아리로 울려 퍼지리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라고...

무성하는 숲



리 기 창

△때:현대
△곳:어느 한 산림경영소에서
△나오는 사람들
순림...반장
용섭...부지배인
탄실...반원
영란...원예전문학교 졸업생(순림의 딸)
성철...조장(영란의 애인)
래준...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 파장
그외 남녀반원들

1 경

△때:봄철
△곳:산기슭

△무대:왼쪽에 새로 심은 나무들이 일부 보이고
오른쪽에는 잎푸른 잣나무들, 그앞에 의자가 놓여
있고 속보판에는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
우며 나무심기에서 모범인 박순림작업반!》이라는
속보와 함께 그너머로 무성한 숲과 《산림애호》,
《모든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자!》라는 구
호들이 보인다.

△막이 열리면 성철조장을 비롯한 남녀반원들 질
통과 바게뜨, 샴들을 들고 나온다.

성철:(속보를 보자)동무들, 이걸 보라구. 우리가
나무심기에서 모범이야! 모범!

모두:야, 정말!

성철:그러니 이제 평양에서 열리는 국토관리총동
원운동열성자대회에 누가 참가할것 같소?

녀1:그거야 처녀시절부터 오늘까지 수십년세월
나무를 심고 가꿔온 우리 순림반장동지이지요.

모두:웁소!

녀2:하지만 반장동진 입원치료를 받고있으니 어
떻게 가겠어요?

모두:글쎄?!

남1:아니면 산림경영소에서 오래동안 사업해온
부지배인동지가 갈수 있어.

모두:하긴 그래.

성철:가만, 탄실동무가 보이지 않는다?

녀1:저기 석비레등판 술밭쪽으로 올라가더군요.

성철:거긴 왜?

녀1:글쎄요.

남1:탄실인 요즘 제멋대로란 말이야.

남2:아마 우리 반장동지가 남달리 생각해주니
까 그러겠지.

성철:그럴수록 더 잘 일해야지.

모두:그러게 말이요.

성철:자, 그만하구 심은 나무들에 물이나 마저
줍시다.

모두:예.(노래를 부르며 나간다.)

△용섭부지배인 들어오다가 그들쪽을 향해 소
리친다.

용섭:이 사람, 성철조장.

대답소리:예.

용섭:물주길 제껴 끝내고 저기 석비레등판의 예술
나무 뽑힌 자리에다 덧심기를 해야겠네. 알겠나?

대답소리:알았습니다.

용섭: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에서 나무심기정형울
료해하러 온단 말이지. 이제 저 푸른 산들을 보면
야, 허허.(시계를 보며) 가만, 내 이 정신 봤나.

△용섭 돌아서다가 질통을 멘채 수첩을 보며 나
오던 탄실이와 부딪친다.

용섭:아이쿠야. 탄실아, 앞을 좀 보구 다녀라.
탄실:어마나. 부지배인동지, 미안해요.(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집어들며 인사한다.)

용섭:(손에 잡고있는 애솔나무를 보자) 이 나무들을 어디서 가져오냐?

탄실:저기 석비레등판에서 가져옵니다.

용섭:뭐? 거기에 나무를 더 심자구 하는데 넌 정말...

탄실:저 사실은...

용섭:사실이고 구실이고간에 그 나무들이 어떤 나무들인지 알거나 하구 그러느냐.

탄실:예?

용섭:지난날 영예군인이었던 반장동무 남편이 풀한포기 자라지 못하던 석비레등판에 등짐으로 흙과 부식토를 올려다가 깔구 심은 나무들이야.

탄실:(놀라며)아니?!

용섭:그런 애국적소행을 발휘하고 순직한 반장동무 남편을 소개한 글이 신문에까지 났댔어.

탄실:신문에까지요?!

용섭:더우기 남편과 함께 나무를 심다가 허리까지 상했던 반장동무가 이걸 알면 얼마나 가슴아파 하겠나. 그러니 당장 그 자리에 갖다 심어놓으라구!

탄실:(바빠하며 달려나간다.)

성철:(종전에 나와 듣다가)부지배인동지, 조장인 제가 탄실동무를 잘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용섭:여보게, 탄실이가 우리 고장을 무릉도원으로 만들자면 아직 멀었는데두 일꾼들이 자화자찬한다고 뒤흔들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성철:예, 그러지 않아도 비판을 주자고 했습니다.

용섭:비판두 비판이지만 탄실일 새로 조직한 양묘작업반에 보내야겠네. 그 작업반에서도 보내줬으면 하는 눈치더란 말일세.

성철:부지배인동지, 그렇게야 어떻게?

용섭:그대신 원예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오는 반장동무의 외동딸인 영란이를 배치해주겠네.

성철:영란동무를요?!

용섭:(웃으며)동문 영란이와 남다른 사이라니까 좀 좋아.

성철:부지배인동지도 참... 저 평양에서 열리는 대회에 부지배인동지도 갑니까?

용섭:나야 뭘, 순림반장을 보내야지.

성철:입원중인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용섭:아마 그걸 알면 퇴원할걸세. 난 이번기회에 반장동무를 적극 내세워주고싶네.

성철:영란동무 아버지가 부지배인동지의 입당보증인이었다는걸 저도 알고있습니다.

용섭:그렇구말구. 참, 석비레등판에 심은 나무모를 가져올테니 도에서 내려와 보기 전에 빈자리를

제격 없애버리자구!(나간다.)

성철:걱정마십시오. 부지배인동진 정말 빈틈이 없습니다.

△성철 나가려는데 순림반장 비닐통을 들고 들어온다.

순림:성철조장, 그새 수고했겠구만.

성철:반장동지, 벌써 퇴원했습니까?(비닐통을 받아놓으며)혹시 무슨 소식이라도 듣고...

순림:소식이라니?

성철:평양에서 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가 있게 된다는 소식 말입니다.

순림:난 듣질 못했네.

성철:부지배인동지가 반장동지를 대회에 꼭 참가시키겠다고 얼마나 마음을 쓴지 압니까?

순림:아니 원, 내가 무슨 일을 한게 있대구.(비닐통을 가리키며) 난 이걸 구하러 산림연구소에 갔다오는 길이네.

성철:예?!(비닐통의 상표를 보고) 성장촉진제?

순림:새로 심은 나무의 사름률을 높이는데 특효가 있다더군.

성철:그새 치료는 받지 않구 그 먼델 가서 이걸 구해왔단 말입니까.

순림:탄실이가 이 성장촉진제가 좋다는 소릴 하길래 가져왔네.

성철:아니 뭘, 탄실동무가요? 허-참.

순림:왜?

성철:그런 소릴 곧잘하는 탄실동무가 저 석비레등판의 애솔나무들을 뽑았답니다.

순림:그게 정말인가?

성철:오죽했으면 부지배인동지가 탄실일 새로 조직한 양묘작업반에 보낼 생각을 다 했겠습니까.

순림:뭘라구?! 부지배인동문 어데 있나?

성철:석비레등판에 덧심을 나무모를 실으러 왔습니다.

순림:그래?!

성철:부지배인동진 도에서 나무심기정형을 보려고 오는 이번기회에 반장동지를 평가받게 하려구 무척 원심을 쓰더군요.

순림:내가 뭘한게 있대구 평가를 바라겠나.

성철:왜요? 반장동진 지난날 저희들을 어떻게 이끌어주었습니까.(회억에 잠기며) 탄실이 오빠는 군복을 입고 초소로 떠나게 되구, 탄실인 오빠대신 새로 입직하구 또 영란동문 원예전문학교에 입학해서 떠나던 날이었지요.

저희들이 뜻깊은 그날을 기념하여(무대옆에 있는 잣나무들을 가리키며) 저 잣나무들을 심을 때 반장동진 우리들에게 나무를 한그루 심어도 거기에 순결한 애국의 마음을 함께 묻어야 한다고 일깨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잣나무들이 사철 푸른빛

을 잃지 않고 곳곳이 자라듯이 저희들도...

순림:그만하구 탄실일 나한테 보내게.

성철:예.

△성철 나가려는데 영란 지함과 가방을 들고 달려나온다.

영란:어머니!

순림:아니, 영란이가!

성철:영란동무,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영란:성철동무, 안녕하세요.

순림:(웃으며)네가 언제 오나 자꾸 물어보더구나.(가방을 받아준다.)

성철:반장동지두 참, 그럼 전...(나간다.)

순림:아니 원, 호호. 영란아, 네가 이번에 여기로 자원해왔다면서?

영란:예.

순림:아버지가 계셨으면 얼마나 대견해하셨겠니. 너무 아버지처럼 숲을 가꿔가야 한다, 알겠니?

영란:어머니, 그래서 전 늘 아버지가 소개했던 신문을 이렇게 간직하고 다녀요.(신문을 꺼내 보인다.)

순림:그래.(신문을 본다.)

영란:어머닌 그동안 온 산판마다 잣나무, 가래나무, 왕밤나무랑 새로 심었다지요.

순림:오냐.

영란:그래서(순림의 손을 어루만지며)어머니손이 이렇게 다 터갈라졌군요.

순림:그만해라.

영란:어머닌 정말...(순림의 어깨와 허리를 주물러주다가 놀라며)어마나, 허리에 편게 가죽띠가 아니예요?!

순림:애, 누가 들올라.

영란:어머닌 어쩌면 아직두 이런 몸으로...

순림:누구한테도 내가 이런걸 띠구 일한다구 말하지 말아라, 알겠지?

영란:어머니, 이젠 저도 왔는데 몸을 좀 돌보세요. 그러지 않아도 부지배인동지가 저를 어머니네 작업반에 배치해주겠다고요.

순림:그래. 참, 내가 부탁하던걸 가져왔니?

영란:네.(지함을 열어보이며)이 약은 나무해충 방지약이구요, 이젠 또 나무뿌리가 실하도록 하는 첨가제예요.

순림:그러니 나무모들이 더 잘 자라겠구나!

영란:어머닌 그제 나무밖에 몰라. 저도 왔는데어서 집에 내려가자요.

순림:내 저기 석비레등판에 올라가보겠으니 먼저 내려가거라.

영란:거긴 왜요?

순림:아버지랑 심었던 나무들이 이번 무더기비로 인한 사태에 더러 뽑혀서 다시 심어야 할것

같구나.

영란:어머니, 그럼 저도 함께 가겠어요.(지함과 가방을 든다.)

순림:원 애두, 집터밭에 심은 나무모들이나 한번 가봐라. 아마 네 보기에도 기쁠게다.

영란:어머니.(순림의 손을 잡는다.)

순림:영란아, 내 얼른 가보고 오겠으니 내려가거라. 응?

영란:알겠어요.(서운해서 나간다.)

△잣나무쪽에서 산새들의 지저귐소리 울린다.

순림:탄실이아 정말 그랬을가?(잣나무들을 바라보며)저 나무를 심을 때 있었던 일을 벌써 잊었는가. 그의 오빠는 조국의 숲을 지켜 목숨까지 바쳤지만...

△이때 탄실 울먹이며 들어온다.

탄실:반장동지...(인사한다.)

순림:석비레등판 솔밭에서 나무를 가져왔다는게 사실이냐?

탄실:(고개를 숙이며)저...

순림:탄실이두 이 땅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를 사랑하는게 애국이라고 말했을테지?...

저 잣나무를 심고 전연초소로 떠났던 네 오빠가 그대 목숨바쳐 조국의 숲을 지키게 뭐겠니?

탄실:반장동지, 저도 오빠가 품속에 간직했던 이 절 보구서야...(수첩을 꺼낸다.)

순림:이건 뭬데?(수첩을 받아들고 펼쳐보다가 흠칫 놀라며)아니, 이젠 우리 고향의 산림조성전망도가 아니냐?

탄실:예, 저의 오빠네 부대가 위치한 주변의 산들중에 나무가 얼마 없고 메마른 돌박산이 있었답니다. 그런걸 흙이랑 부식토를 날라다가 깔구 잣나무랑 가래나무랑 애써 심고 키웠대요.

순림:메마른 돌박산에까지?!

탄실:그런데 뜻밖에도 부대를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병사들의 소행을 보시고 이 부대야말로 조국방선을 총대로 수호할뿐아니라 불타는 애국심과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자기들이 지켜선 초소에 푸른 숲을 이루게 한 애국자부대라고 높이 치하하셨답니다.

순림:애국자부대라고?!

탄실:그래서 오빠는 앞으로 군사복무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오면 자기네 중대에서처럼 모든 산판에 빠짐없이 잣나무랑 가래나무랑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겠다는 푸른 꿈을 안고 이 산림조성전망도까지 그렸었는데 그만 전사했으니 제가 오빠대신에...

순림:그래서 탄실인 석비레등판에 있던 애솔나무까지 뽑았나?

탄실:그런게아니라 이번 무더기비로 인한 사태로 뽑혀진 자리마다 잣나무모를 대신 심어보았어요.

순림:(더욱 놀라며)잣나무모를?! 그래서 이 성장 촉진제소리를 했었구나. 그렇지?

탄실:저를 용서하세요.

순림:용서라니?

탄실:전 오늘 부지배인동지의 이야길 듣고서야 지난날 영란이 아버지랑 석비례등판에 심었던 애솔나무에 대한 사연을 알았습니다.

그런것두 모르고 그만... 용서하세요.

순림:그런걸 어쩌서 우리한테 진작 말하지 않았니, 응?

탄실:저 혼자 심어보구 살아나면 말하려구 했어요.

순림:그렇단 말이지?!

탄실:정말 반장동지한테 죄스럽구 면목이 없어요. 부지배인동지 지시대로 양묘작업반에 가겠습니다.(격해서 달려나간다.)

순림:아니, 탄실이—

△음악이 울리는 속에 순림 따라가다가 엎어지면서 손에 쥐었던 수첩을 떨어뜨린다. 그것을 보자 수첩을 소중히 집어 들고 다시 펼쳐본다.

이때 《반장동지.》하고 부르며 남녀반원들 달려나온다.

모두:야, 반장동지 퇴원하셨군요.

순림:그새 수고들 했네.

남1:전체 차렷! 반장동지를.

모두:열렬히 축하합니다.(꽃다발을 안겨준다.)

순림:아니, 왜들 이러나?

녀1,2:영란이두 오구 또 이제 반장동지가

모두:대회에 참가하겠으니 말입니다.

순림:무슨 소릴, 참 석비례등판에 나무를 덧심냈는지?

모두:그렇습니다.

남2:그런데 이제 가보니 누가 거기에 몇그루의 잣나무모를 심어놓았더군요.

모두:누가 그랬을까요? 글썄?

녀1:혹시 영란이가 와서 심은게 아닌가요?

모두:그럴수도 있어.

순림:그건 탄실이가 심은거라네.

모두:아니 뭐, 탄실동무가요?!

순림:그렇다네.

녀1:그래서 탄실동무가 그쪽으로 올라갔었구나.

남1:그런걸 우린...

남2:탄실이가 엉뚱한데?

모두:정말?!

남1:(비닐통을 보자)나무성장촉진제? 정말 좋은 걸 구해왔습니다.

순림:(고개를 끄덕이며)아무렴, 이걸 탄실이가 심은 잣나무모에 줘보자구.

남2:(비닐통을 들며)이건 우리한테 맡기구 영란이도 왔는데 어서 내려가보십시오. 동무들, 가

자구!

모두:(나가면서)영란동무 아버지랑 잣나무를 거기에 심으려다 실패하구 하는수없이 애솔나무를 심었다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심는다구 살아날수 있을까?

△순림 그들이 나가며 하는 말을 듣고나서 생각에 잠긴다.

순림:정말 이제 잣나무를 다시 심어서 살려낼 수 있을까? (수첩을 더듬어보며) 하지만 우리 병사들은 여기보다 더한 돌박산에까지 잣나무랑 심어서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렸다. 우리도 그들처럼 한다면?!

△이때 작업복을 입은 영란 삼을 들고 노래하며 들어온다.

영란:나무를 심자, 나무를 심자...(순림이를 보자)어머닌 절 기다렸나요. 동네사람들이 그러는데 어머니가 평양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할거라더군요. 고생 끝에 락이라더니 이제야 그런 날이 왔군요. 어머니, 그렇지요?

순림:(고개를 숙인채 대답을 안한다.)

영란:왜 그래요. 허리가 또 아픈가요? 저 혼자 올라갈테니 쉬세요.

순림:영란아, 거기에 잣나무랑, 가래나무랑 심으면 어떻게?

영란:아니,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그런 소릴 해요?

순림:누가 그러든지간에 우리가 그새 다른 산판엔 다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었는데 아직 저 산만은 예전그대루...

영란:그럼 이제 와서 술발을 전부 들어낸다는 건가요?

순림:그럴수밖에 없구나.

영란:뭐예요? 그건 절대로 안돼요.

순림:뭐라구?!

영란:불편한 몸으로 나무를 심느라 수고한 아버지를 봐서라도 그래선 안돼요, 어머니.

순림:...

영란:더구나 도에서 내려와본다는데 공연히 그러다간 어머니 대회에도 못 갈게구 지난날의 공로도 물거품이 되고말거예요.

순림:뭐, 지난날의 공로라구?!

영란:그렇지 않구요.

순림:이 어머니말을 좀 들어봐라.

영란:싫어요. 지난날 아버지도 잣나무를 이미 심어보지 않았나요. 부지배인동지한테 말하면 승인할 것 같어요? 두고보라요.(달려나간다.)

순림:애야... 지난날의 공로라구?! 영란아, 아버지두(수첩을 보며) 이런 사연을 알았다면 아마 잣나무를 기어이 다시 심으려고 애썼을거다...

△이때 트랙포르가 밋는 소리에 뒤이어 용섭 들어온다.

용섭:반장동문 치료두 채 받지 았구 나왔소?

순림:부지배인동무.

용섭:방금 영란이가 나한테 말하던데 그게 사실이요?

순림:부지배인동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섭:아니, 난 승인할수 없소.

순림:이제 보니 부지배인동무도 나처럼 혁신적인 목이 흐려졌구만요.

용섭:내가요?

순림:몇해전 어버이장군님께서 리원군산림경영소를 찾아주시여 잣을 소나무에 접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잣접림을 보시고 것처럼 기뻐하셨다는 소식을 듣자 지체없이 달려가 그곳 경협을 배워가지구 와서 우리 산판에도 잣접림을 조성했던 부지배인동무가 아닌가요.

용섭:석비레등판만은 그들이 진데다가 메마른 토질이여서 잣접림을 할수도 없거니와 또 잣나무를 다시 심었댔자 살것 같지 았아 그러지요.

순림:그래도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한번 심어보지 았겠습니까.

용섭:거 괜히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마저 놓칩니다.(손목시계를 보고) 내 급히 출장갈 일이 제기돼서 그러는데 도에서 내려와보기 전에 나무를 덧심어놓구 보자구요.

순림:예?

△이때 우뢰소리와 함께 비구름이 밀려온다.

용섭:(하늘을 쳐다보고 밖을 향해)운전수동무, 폭우가 쏟아지기 전에 나무모들을 석비레등판에 올려가라구.

(대답소리)알겠습니다.

순림:(나가려는 용섭에게 수첩을 내밀며)탄실이 오빠의 수첩을 좀 보십시오.

용섭:그리구 내 반장동무에게 알려주려던 참인데 탄실이를 저기 새로 조직한 양묘작업반에...

순림: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전 우리 영란이를 먼저 보내렵니다.

△이때 영란 들어오다가 선다.

용섭:뭐요? 영란이를 먼저 보내다니?

순림:우리 영란이도 이해할겁니다.

용섭:반장동무를 생각해서 그러는데 왜 그러오?

순림:하지만...

용섭:중소, 까놓고 말하지요. 난 올해에 년로보장을 받게 될 반장동무를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에 보내자구 제기했댔소.

순림:예?!

용섭:그런데 내 말대로 하지 았고 제 고집만 부리니 정말 섭섭하웨다. (횡 나간다.)

△이윽고 트랙포르 떠나는 소리.

순림:(의자에 풀썩 주저앉는다.)

영란:(앞으로 다가서며)어머니, 부지배인동진 어머니를 위해 그러는데 어쩌면 그럴수 있어요, 예? 정말 어머니 자기에 대해선 너무 무정해요.(순림이를 흔들며 울먹인다.)

△이때 성철 삼을 들고 지나가다가 선다.

순림:무정하다구?!

영란:그래서 어머니여생애 차례질게 뭐가 있는가 말예요.

순림:뭐? 이제 보니 넌 탄실이 밋치에도 못가.

영란:(순림이의 손을 붙잡으며)어머니!

순림:비켜라(손을 뿌리친다.)

영란:아니, 어쩌면.

순림:난 지금까지 술한 나무를 심고 가꿔왔다고 했건만 제 딸자식은 삭정이로 키웠구나, 삭정이루.(가슴을 친다.)

영란:맘대로 생각하랴요.(흐느끼며 나가려고 한다.)

순림:어딜 가, 거기 서지 못해.

영란:(나가다가 멈춰선다.)

순림:영란아, 난 그래도 네가 저 탄실이처럼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리라 생각했다. 넌 그 나무를 심거나 하면 다 되는가 하느냐?

영란:뭐라구요? 어머니 정말 어쩌면. 후-

△성철이 들어오자 얼굴을 싸쥐고 달려나간다.

순림:저 애가?!

성철:(순림이 앞으로 다가오며)탄실동무대신 영란동무를 보내다니요? 그럼 또 반장동지와 헤어져서...

순림:왜, 섭섭한가?

성철:그래서보다도 영란동문 홀로 계시는 어머니의 일손을 돕자구 오지 았았습니까.

순림:그 마음을 몰라서가 아닐세. 부모들의 지난날의 공로는 생각하면서두 나라의 숲을 사심없이 가꾸려는 애국의 마음은 간직하지 못한게 가슴 아프네.

성철:예?

순림:(잣나무를 가리키며)자네와 영란이랑 저 나무들을 다시 심을 때 보이던 마음의 빈구석이 아직까지 남아있는것 같단 말이네.

성철:...

순림:난 탄실이 오빠의 이 수첩을 보구(수첩을 보이며) 많은걸 생각했네. 진정한 애국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살자면 조국땅에 어떻게 나무를 심고 가꿔야 하는가를 말일세.

성철:(수첩을 보며)저두 탄실동무한테서 이 수첩에 대한 사연을 들었습니다.

순림:응?! 그렇다면 우리가 석비레등판에 나무나 몇그루 덧심는것으로 만족해서야 되겠나.

성철:그렇지만 당장 도에서 내려와본다는데 앞으로 잣나무랑 심으면 어떨까요.

순림:지금 나무심기철을 놓치면 언제 심겠나. 자네두 텔레비전에서 봤을테지.

성철:예?!

순림: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식수절에 몸소 삼을 드시고 점심시간마저 미루시며 나무를 심으시는 모습을 말이네. 그런데 우린 빈구석이나 대충 메꾸려고 했으니... 정말 죄책감을 금할수 없었네.

성철:반장동지.

순림:이제라도 석비례등판의 나무들을 들어내구 잣나무를 심자구.

△우뢰소리.

성철:당장 비가 쏟아질것 같은데요.

순림:그렇다구 우리가 주저하겠나.

성철:예?!

순림:이번일을 통해 군인들처럼 우리 사람들의 가슴속에도 **김정일**애국주의열풍이 더욱 뜨겁게 일도록 하자구!

성철:알았습니다!

△번개와 우뢰소리에 이어 힘찬 음악이 울리면서 국부조명속에 무대는 석비례등판으로 된다.

△순림반장을 비롯한 남녀반원들 비바람속에서 삽과 곡괭이질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순림:동무들, 그 자리에 부식토랑 더 깔라구!

모두:넘려마십시오!

순림:그리고 앞으로 그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나무들이 끄떡없도록 사태막이를 더 튼튼히 쌓자구!

모두:알겠습니다.

순림:(곡괭이를 세차게 휘둘러대다가 신음하며 쓰러진다.)아—

모두:반장동지!(쓰러진 반장을 부축하다가 허리에 띠 낀 가죽띠를 발견하자 놀란다.)

남1:아니, 이게 뭘니까?!

남1,2:어마나?

성철:반장동진 상한 허리에 아직까지 이런 가죽띠를 띠구서...

모두:반장동지, 어서 병원으로 갑시다. 어서요.

순림:그런 걱정 말구 빨리 일을 다그치자구.(곡괭이를 다시 틀어쥐고 일어선다.)

모두:(목메인 소리로)반장동지.

△탄실 들어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두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번개와 우뢰속에 무대 어두워진다.

2 경

△때:1경으로부터 얼마 지난 후.

△곳:1경과 같은 장소.

△무대 밝아지면 남녀반원들 환희에 넘쳐 나온다.

남1:야! 이제 석비례등판에까지 잣나무랑 가래나무랑 심는다면 우리 고향의 모든 산들은 황금산, 보물산이 되겠지?

모두:아무렴. 오, 황금산, 보물산이여!(노래부른다.)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

심었더니 마을에 꽃이 피었소

△순림 잣나무모가 담긴 질통을 멘채 손에 나무패쪽들을 쥐고 들어온다.

모두:반장동지.

남1:(질통을 받아놓으며)이 잣나무모들은 양묘장에서 가져옵니까?

순림:우리 집 텃밭에서 키운거라네.

모두:야, 그렇습니까.

남1:(나무패쪽들을 보자)이 패쪽들은요?

순림:이제 심을 나무들에 동무들의 이름을 써서 달아놓자는거네.

모두:예?!

순림:동무들도 알겠지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병사들이 심은 나무들을 보시고 끝까지 책임지구 정성껏 관리하도록 나무를 심은 동무들의 이름을 써놓는게 좋겠다고 친히 가르쳐주시지 않았나.

모두:그래서 반장동진 이렇게!

순림:그러니 우리도 인민군군인들처럼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고 정성껏 관리하자구.

모두:그렇시다.(잣나무모와 패쪽을 들고 나간다.)

순림:탄실인 어텔 갔나?

성철:보지 못했는데요. 저, 반장동지. 출장갔던 부지배인동지가 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 과장동지와 함께 지금 산판들을 돌아보고있답니다.

순림:그래?!

성철:석비례등판의 나무들은 어떻게 할가요?

순림:(잠시 생각하다가)내가 사실대로 가서 말할테니 중단없이 계속 내밀게!(나간다.)

성철:(나가는 순림이를 뜨겁게 바라보며)반장동지는 정말...

△성철 돌아서 나가는데 영란 들어온다.

영란:성철동무.

성철:(뒤를 돌아보고)영란동무, 그래 언제쯤 떠날것 같소?

영란:아니, 이젠 동무까지...

성철:저, 그거야...

영란:언젠 뭐 손꼽아기다린다고 하더니 이젠 내가 멀리 가도 좋다는거예요?

성철:좋기야 뭐, 나두 사실은 섭섭하오.

영란: 거짓말.(돌아선다.)
 성철: 진심이라니까.(영란이의 손목을 잡는다.)
 영란:(뿌리치며) 놓으라요.
 성철: 아마 동무도 전사한 탄실동무 오빠에 대한 애길 들으면 어머니와 나의 마음을 이해할거요.
 영란: 예?
 성철: 우린 아직도 탄실이 오빠처럼 조국의 풀 한 포기, 나무 한그루를 불타는 애국의 마음으로 뜨겁게 품어안고 일하지 못했던 말ियो, 알겠소?(나간다.)
 영란: 아니, 성철동무.
 △영란 따라나가기려는데 용섭 혈색거리며 들어온다.
 용섭: 애, 영란아.
 영란:(돌아보고) 출장가셨다더니 오셨군요.(인사한다.)
 용섭: 어머니 어데 있느냐?
 영란: 저, 석비레등판의 나무들을 들어내고있을 거예요.
 용섭: 뭐? 그럼 끝내... 이걸 어쩐다?
 영란: 왜요?
 용섭: 도에서 내려왔으니 말이다.
 영란: 어마나, 저기 성철동무한테 말하세요.
 용섭: 응?!(성철이가 나간쪽을 향해)여 성철조장, 아니 성철이—(소리치며 허둥지둥 나간다.)
 영란: 아니, 그럼?!(뒤따라나간다.)
 △잠시후 배낭을 멘 탄실 들어온다.
 △이때 밖에서 《탄실이—》하고 순림이의 찾는 소리가 들린다.
 탄실: 반장동지가?! 어쩌면 좋담.
 △탄실 급히 나가려고 하는데 순림 숨가빠 들어온다.
 순림: 탄실아, 내 부지배인동지에게 제길 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저 석비레등판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어 뿌리를 내리게 하자꾸나.
 탄실: 예?!
 순림: 지금두 온 작업반이 거기에 달라붙었다.
 영란:(나오다가 그 말을 듣고) 어머니, 방금 부지배인동지가 와서 성철동무보구 작업을 중지시키라구 했어요.
 순림: 뭐라구?!
 탄실: 반장동지,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영란: 탄실동무!(따라나간다.)
 순림: 이젠 어쩐단 말인가?! 아니, 그럴수 없어.
 △순림 나가려는데 용섭 마주들어온다.
 용섭: 반장동무가 여기 있었구만.
 순림: 작업을 중지시키라구 했다면서요?
 용섭: 글썽 내가 도에서 온 파장동지한테 나무를 텃심는중이라구 했는데 이미 심은 예술나무까지 몽

땅 들어낸다니 어찌겠소.
 순림: 그래서 중지시켰단 말입니까?
 용섭: 더구나 그 파장동지가 누군지 아오? 전번에 여기에 내려와서 보구 영란이 아버지의 소행자료를 신문사에 보내줬던분이란 말ियो.
 순림: 예?!
 용섭: 그러니 이제 파장동지가 오면 내 의견대로 대답하는게 좋겠소.
 순림: 그렇게 해서 평가받으실진 않습니다.
 용섭: 뭐요? 그래서 반장동문 치료두 채 끝나기 전에 나왔소?
 순림: 예?
 용섭: 심지어 영란이 아버지의 피땀이 스민 예술나무까지 들어내면서 말ियो.
 순림: 아니, 그럼 제가...
 용섭: 그러지 않은들 누가 반장동무를 생각해주시 않을것 같소?
 순림: 부지배인동무, 난 그런 동정은 바라지 않습니다. 전 그럼.(나가려고 한다.)
 용섭: 어텔 가시우?
 순림: 파장동지를 찾아가서 말해보겠습니다.
 용섭: (막아서며) 그러다가 공연히 어쩔려구.
 순림: 아마 탄실이 오빠가 간직했던 이 수첩을 본다면(수첩을 보이며) 이해할거예요.
 용섭: (놀라며) 아니, 그게 탄실이 오빠의 수첩이었던 말ियो?
 순림: 그런데두 부지배인동무는 이걸 외면했었지요.
 용섭: 예?!(수첩을 받아들고 번져보다가) 아니, 산림조성전망도까지?!
 순림: 탄실이 오빠가 그걸 왜 그렸겠나요. 부대주변에 푸른 숲을 가꾼 병사들이 대견하시여 애국자 부대라고 높이 치하해주시구, 과일나무 우거진 중대와 마을을 찾으실 때면 감나무중대, 살구나무동네라고 사랑담아 불러주시구, 푸른 숲 설레이는 산과 들을 지나실 때면 푸른 산, 푸른 들이라며 정답게 외우시던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그 뜻을 우리 고향산천에도 꽃피우기 위해서가 아니었겠나요. 헌데 우린...
 용섭: 그래서 반장동문 얼마 되지 않는 석비레등판에까지 잣나무를 심자고 했소?
 순림: 이번 무더기비로 인한 사태에 나무가 뽑혀진 곳에다 탄실이가 잣나무를 심어놨더군요.
 용섭: 탄실이가요?!
 순림: 그래요.
 용섭: 그런걸 나는... 하지만 그때처럼 애써 잣나무를 심었던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책임지겠소. 좌우간 이번 검열이나 마친 다음에 보자구요.(수첩을 순림에게 준다.)
 순림: 예?!

용섭:나두 석비레등판에 잣나무를 심어서 자랄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용섭 나가려는데 성철 달려들어온다. 그뒤로 탄실, 영란 들어온다.

용섭:그래, 중지시켰나?

성철:부지배인동지!

용섭:왜?

성철:글쎄 이자 올라가보니 탄실동무가 심은 잣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뿌리를...

용섭:뭐, 뿌리가?!

순림:드디어 살아났단 말이지!

성철:그렇습니다, 반장동지.

순림:이젠 됐구나, 됐어.(눈굽을 훔치며) 부지배인동무, 우리 탄실이가 정말 기뻐합니다.

용섭:...

탄실:(앞으로 달려나오며)아니예요. 잣나무가 살아난건 반장동지가 치료도 끝나기 전에 연구소에 가서 성장촉진제랑 구해다주구 또 날마다 정성껏 가꿔줬기때문이에요.

용섭:그래서 반장동무가 퇴원했던 말ियो?!

성철:웁습니다. 반장동진 상했던 허리에 아직 가죽피도 풀지 못했습니다.

탄실:예?!

용섭:뭐요?! 그런 상태루 퇴원했던 말ियो?

탄실:반장동지...

영란:(그 모습을 보다가)어머니, 절 용서하세요.

순림:영란아!

탄실:영란이!

영란:탄실동무!(서로 손을 잡는다.)

성철:탄실동무, 영란동무, 우리 저 산들을 더 무성한 숲으로 가꿔가자구.

탄실, 영란:성철동무!

순림:아무렴, 그래야지. 호호.

모두:어머니!(순림의 품에 안긴다.)

용섭:(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책감에 잠겨 잣나무밑으로 걸어가서 푸른 잎을 쓸어만진다.)

△이때 남1 달려나온다.

남1:파장동지가 석비레등판까지 돌아보고 지금 여기로 옵니다.

순림:파장동지가?!

용섭:어느새 벌써 거기까지?

△이윽고 태준과장을 따라 남2반원들 나온다.

태준:반장동무,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순림:파장동지.(인사한다.)

태준:부지배인동무는 석비레등판에 애솔나무를 덧심는다더니 이자 가보니 잣나무랑 심었더군요.

용섭:(얼굴을 붉히며)글쎄 이 반장동무랑...

태준:저두 방금 이 동무들한테서 그 사연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용섭:예?!

태준:초소주변에 푸른 숲을 가꾸어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렸던 군인들처럼 박순림반장동무가 모든 산판에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고 가꿨을 뿐아니라 오늘은 또 석비레등판에까지 기름나무들을 심는걸 보며 전 김정일애국주의를 어떻게 실천으로 받들어야 하는가를 다시금 깊이 느꼈습니다.

순림:파장동지.

태준:이번에 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에 반장동무를 보내려고 한하는데 나도 적극 찬성합니다.

모두:(박수를 친다.)

순림: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남달리 크게 해놓은 일이 있다구 그러니까. 전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태준:자격이 없다니요?

순림:이번에 석비레등판에다 잣나무를 심은것이 탄실동무가 아닙니까. 그리고 뜻하지 않게 산불이 났을 때 목숨을 바쳐 조국의 숲을 지킨 그의 오빠를 대신해서도 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고향산천에 더욱 무성하는 숲을 가꿔갈 탄실동무와 같은 새 세대들을 대회에 보내어 귀중한 경험을 배워오도록 해야 합니다.

모두:(놀란다.)

탄실:아닙니다. 반장동지는 지난날 나무 한그루 제대로 심을줄 모르던 저뿐아니라 우리 새 세대들을 진정한 애국의 한마음으로 조국의 숲을 가꾸도록 자신을 밀거름처럼 바쳐왔답니다.

모두:웁습니다!

순림:그거야 반원들을 책임진 반장으로서 응당한 본분이 아닙니까.

태준:아버이장군님께서는 숲이 무성한 곳에는 반드시 애국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고보니 반장동무는 애국의 마음을 바쳐 저 산판들에 무성한 숲만이 아니라 모든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가꿔갈 젊은 세대들을 무성하는 숲처럼 키워왔구만요. 부지배인동무, 안 그렇습니까?

용섭:웁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장동무처럼 순결한 애국의 마음을 바쳐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글쎄 기껏해야 몇그루의 나무를 덧심어서 빈자리나 메꿀 생각밖에 못했으니, 허허.

모두:부지배인동지!

용섭:반장동무! 동무들!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무성하는 숲에 우리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더 깊이 묻읍시다!

모두:알았습니다!

△노래가 울리면서 모두 산으로 향할 때 무대배경에 무성한 숲이 끝없이 흘러간다.

나무를 심네

홍 민 식

3월의 이른 봄날 식수절에
내 나무를 심으러 산에 오르니
어제런듯 어려오누나
병사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시던
장군님의 숭엄하신 그 모습

한그루 나무가 얼마나 중하셨으면
바쁘신 현지도의 길에서
사랑담아 정을 담아
나무를 심으셨으랴

조국산천을 얼마나 사랑하시었으면
울창한 숲 드넓은 벌을 보시면
푸른 산 푸른 들이라고 정담아 외우시고
나무가 얼마 없는 산을 보시면
가슴아프시여 로동당시대의 금수강산으로
더 아름답게 꾸리자고 절절히 말씀하셨으랴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조약돌 하나까지도 다 가슴에 품어안고
뜨겁게 덥혀주시며
한평생 정을 다해 불태워오신
어버이장군님의 애국의 뜻

그 뜻이 꽃피어
이 땅엔 드넓은 사회주의청춘대지가 펼쳐지고
강줄기마다 만년언제가 솟고
희한한 물길이 뻗고
그 뜻이 열매로 주렁져

가 사

일터는 일터마다 최첨단돌파의 열풍
초소는 초소마다 천하무적 총검의 숲...

그 뜻에 젖어드는 이 마음
애어린 나무모 한그루도
가볍게 들수 없구나
한삽 흙도
무심히 떠올릴수 없구나

내 흘리는 더운땀 한방울한방울
샘물이 되어 적시여다오
내 바치는 진정 온넋이
밀거름 되어다오
그러면 애어린 나무는 거목으로 자라고
그러면 내 조국은 길이 부강번영하리니

경애하는 원수님 안겨주신
오, **김정일**애국주의
그 참다운 애국의 뜻은 정녕
이 땅을 살찌우는 젖줄기
내 조국을 꽃피우는 따사로운 해빛

아
이 가슴에 타오르는 애국의 불길
이 산판에 굽이치는 애국의 열풍
나무를 심네
한그루한그루 정을 다해 나무를 심네
조국강산에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심네

펼쳐가리 푸른 산 푸른 들

함 영 근

장군님 정을 담아 외워보시던
푸른 산 푸른 들이 눈에 어리네
품을 들어 가꿔오신 정든 산천을
설레이는 숲으로 덮어가리라

민족의 향취담아 불러주시던
살구나무 감나무 설레는 동네

이 선경을 가꾸시려 사랑을 바친
한평생의 그 소원 꽃피우리라

금수강산 이 산천을 물려주시려
온 심혈을 다 바치신 애국의 한생
불멸의 그 뜻으로 심장을 불태워
푸른 산 푸른 들을 가꿔가리라

《광명성-3》호 2호기 너와 함께 외 1편

박 성 일

고맙고 아름다운 이 땅에
삼가 인사드리는가
청청 맑은 아침하늘에 은하수인양
축복의 꽃레프인양
하얀 운무 뿔으며 하늘로 솟아오른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여

들어보자
지구를 박차고 솟아오르는
너의 폭풍같은 동음은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가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선군혁명명도의 발걸음소리에서 시작된것이나

우리가 환하도록 번쩍이는
운반로켓 《은하-3》의 동체는
우리의 선군령장 **김정은**원수님의
그 환하신 미소가 어려
그리도 눈부신것이나

너는 9분 27초만에 우주에 올랐어도
너는 흘러간 주체100년세월과
너는 흘러올 주체100년세월을 다 싣고
땅에서 하늘에로 오른것 아니냐

너는 주체의 년호가
영원함을 선언하며
이 땅에 흐르는 날과 날들을
승리의 날 경축의 날로 명절처럼 기쁘게 한
주체의 별 위대한 장군님의 리상의 별

어디서나 우리르노라 우리의 하늘
우리의 위성이 날으는 하늘이어서
저리도 맑고 푸르구나
저리도 높고 창창하구나
내 조국의 밝은 앞날이 비낀 우리의 하늘

가자 《광명성-3》호 2호기 너와 함께
우주정복자들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오늘의 이 환희 이 기쁨과 함께

가자
태양과 가장 가까운 우주에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지구를 굽어보며 조선을 떠밀어주나니
최후승리의 그날을 향하여
《광명성》 너와 함께!

세 포 바 람

후평바람
내평바람
옷깃을 찢어버릴듯
세월을 두고 소문났다는 세포바람아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떨쳐나선
거창한 대자연개조는
천년 잠자던 세포등판만이 아닌
사나운 세포바람 너까지 개조할 우리다

우리의 기상 맞보아라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발사
그 성공을 축하하여 웨치던 만세소리에
등판넘어 사라진 세포바람아

네가 아무리 옷깃을 물어찢어도
《광명성》발사환희로 뜨거운
우리의 심장 우리의 열정
어찌 식힐수 있단 말인가

거창하고 무한한 우주를 정복한
그 열정 그 담력앞엔
너 등판의 바람은
우주정복자들의 그 정신 안고 떨쳐나선 우리에게겐
열정의 불바람 위훈의 불바람

우리의 위성이 지켜보는
세포등판개간전투장에
이제 멀지않아 너의 바람대신 불어올게다
행복의 복바람 강성번영의 꽃바람이!

시에는 시인의 정서적숨결이 흘러야 한다

—지난해 《조선문학》잡지에 실린 시들을 읽고—

리 동 수

지난해 우리 시인들은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벽찬 진군의 한복판에 뛰어들어가 현실을 깊이있게 체험하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고무하는 혁명적인 시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과 피눈물을 뿌리며 영결하던 12월부터 서거 한복을 맞은 지난해 12월까지 우리 시인들은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뜨거운 경모와 그리움에 넘쳐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진정의 호소를 터치고 또 터치었다.

추도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전에》(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1호), 시 《김정일장군의 인민이여, 일떠서라》(문용철 1호), 장시 《장군님세월은 영원히 굽이쳐흐르리라》(리창식, 리태식 1호), 시 《장군님은 빨찌산복을 입고계신다.》(주명옥 1호), 《집에 대한 시》(강인철 1호), 《장군의 눈물은 뜨겁다》(김효봉 2호),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차영도 2호) 등은 시인의 심장을 울리는 시적충격이 크고 뜨겁고 열렬한것으로 하여 감명깊게 안겨오고있다.

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을 대변한 시인들의 절절한 심장의 웨침이었으며 열화와 같은 경모와 그리움의 분출이었다.

시인들은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제1비서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감격과 환희를 격조높이 노래하면서 그이의 령도밑에 강성국가건설의 총돌격전에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벽찬 진군을 긍지높이 노래하였다.

시 《오, 그날의 판문점》(김형준 4호), 《조선의 해돋이》(김재원 4호), 《영원한 메아리》(김길성 5호), 《나는 보노라》(김용엽 5호), 《그이가 우리의 원수이시다》(조광철 10호), 려시 《강성원은 노래한다》(백하 8호), 시 《8월의 조선에서...》(김형준 11호) 등과 같은 시들은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위인적풍모와 령도업적, 그이를 높이 모신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감명깊게 노래하였다.

이와 함께 백두의 혁명정신을 신념깊이 간직하려는 결의와 맹세를 담은 려시 《백두산을 안고살자》(1,2, 10~11호)를 비롯하여 창조와 건설로 들끓는 현실주제, 선군시대 김정일에국주의의 체현자들의 형상을 창조한 시가작품 등 비약하는 현실의

이모저모를 걱정해 넘쳐 노래불렀다.

시 《숲의 미소》(박상민 3호), 《땅의 고백》(서진명 3호), 《석탄, 너와 나는 불타는 하나》(류정실 3호), 《달이 알아 별들이 알아》(위명철 5호), 려시 《제강소여 너와 함께》(김정삼 5호), 시조 《나의 자리를 내어달라》(조광원 7호), 려시 《추억에 실린 못 잊을 나날》(주정웅 10호) 등은 모두다 인상깊게 안겨오는 작품들이다.

지난해 《조선문학》잡지에 발표된 시들을 읽으면서 말하고싶은것이 있다.

시에는 시인의 정서적숨결이 흘러야 한다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의 서정은 시인자신의 정서를 직접 표현하는 주정이다.》

시의 생명인 서정은 시인자신의 감정정서를 직접 표현하는 주정이다.

시는 일정한 시적론리를 타고나가면서도 추상이나 개념으로 론증하는것이 아니라 감성적인 주장다시말하여 시인자신의 내적인 정서심리세계를 통하여 정서적으로 공감시킨다. 그렇기때문에 시에는 시인의 정서적숨결이 흐르기마련이다. 일정한 감정의 기복을 타고 흐르는 정서적숨결이 느껴지지 않을 때 시는 생활에서 동 뜸 메마르고 생기없는 론리에 떨어지게 되며 결국 시의 본태에서 멀어지게 된다.

시에 시인의 정서적숨결이 흐르는 시들은 폐의 없이 시인의 심장에서 격발된 강렬한 충격 다시말하여 시를 낳게 하는 근원이며 동기인 시적충격으로부터 시작된 시들이다. 충격을 안지 못하고 붓을 댄 시들은 첫시작부터 매듭 알린다. 정황이 텅터지고 객관화된 사실이 라렬되면서 해설이 덧붙여진다. 시는 끝나가지만 격동된 충격이 없이 써나갔기때문에 숨결이 없는 시로 지루하게 결속된다.

시적충격이 크고 뜨거울수록 정서적숨결도 크고 뜨겁다.

추도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전에》에 흐르는 시의 숨결을 들어보자.

...

중중첩첩 고난과 시련을 헤쳐넘어
우리 인민을 강성국가의 문앞에 세워주시고

이제 수령님 100년사앞에 열어제길
력사의 문고리를 쥐신채
조용히 심장의 박동을 멈추신 장군님

아, 그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그런 기적은 세상에 없습니까
그런 기적이 있다면
그런 기적을 안아올수만 있다면
하늘도 땅에 끌어내리고
천만심장이 지구라도 들어올릴것입니다

...

우리는 이 시에서 비장한 숨결로 고패치는 심장의
세찬 박동을 듣는다.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일찌기 우리결을 떠나가
신 장군님앞에서 오열에 몸부림치는 안타깝고 절통
한 가슴이 시의 숨결에서 굵아쳐온다. 우리는 이
숨결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을 대
변한 시인들의 절절한 심장의 웨침, 열화와 같은
경모와 그리움의 분출을 본다.

어찌 그뿐이라.

...

사랑하는 인민에게 남기신것은
자신을 깡그리 불태워
그 한생 뿌리되어 받드신
만복이 꽃퍼나는 이 땅 이 강산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무적의 대장군

자신을 위해
자신을 위해 남기신것은
전호가에 혼술이 다슬고
전선길의 눈비가 스민
야전복 한벌뿐인 우리 아버지

...

(시 《김정일장군의 인민이여 일떠서라》중에서)

심장속 깊은 곳에서 뿜어치는 박동이 정서적숨결에
배여흐르는 진심의 호소로 하여 눈굽은 뜨거워지고
그리움의 정은 절절히 사무쳐온다.

시 《집에 대한 시》는 또한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주는가.

《집이 아니건만/집이라 불러야 하는》 장군님의
야전렬차가 멈춰섰다.

...

잠시라도 쉬시라고 청을 드리면
이젠 렬차가 집이 되었다고

떠나오신 집은 러판이나 같다 하시며
습관처럼 법칙처럼 눈보라강행군길에
고귀한 한생을 묵묵히 묻어오신
위대한 인간이 계시던 집
최고사령부의 야전렬차여!

...

위대한 성인
위대한 생애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세월과 더불어
선군혁명의 급행렬차에 계신다
이 행성을 진동하며 세계를 굽어보며
위대한 장군님 따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
탈선도 미정도 모르는 조선은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종착역으로
정시로 간다!

사람들에겐 누구에게나 아늑한 집과 따뜻한 아래
목이 있다. 하지만 장군님에겐 따뜻한 아래목이 따
로 없었다. 집이 아닌 집, 아래목이 없는 야전렬차
에서 한생 인민을 찾아 강행군을 하시었다.

이런 뜨거운 충격이 《집에 대한 시》를 낳
았다.

이렇게 충격이 크고 뜨거워야 시인의 뜨거운 체
온이 흐르는 정서적숨결이 시에 넘치게 된다.

시인의 심장의 울림을 타고 흐르는 정서적숨결
을 받아안을 때라야 독자들은 비로소 진심의 호소
에 절절히 공감하게 된다.

시 《장군의 눈물은 뜨겁다》 역시 심장에서 솟
구치는 뜨거운 눈물에서 충격을 받고 심장에서 고
동치는 울림을 그대로 분출시킨것으로 하여 격동
이 크다.

...

아, 흐느끼며 오열을 터뜨리시는
장군의 그 모습을 내 우러르노라
장부의 눈물은 피보다 더 진하고
불보다 더 뜨겁다 하였거니

천하를 쥐락펴락하시는
절세의 영웅남아 빨찌산장군
그 심장에서 솟구쳐 흘러나오는
그 고결한 눈물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

아버이장군님의 뜨거운 내적체험세계를 깊이 파
고들어가 장군의 심장에서 솟구치는 뜨거운 눈물
의 의미를 심장에 굴절시켜 심장의 웨침, 심장의
호소로 터친것으로 하여 그렇듯 눈물겹게 안겨오

는것이다.

시 《오! 그날의 판문점》, 《8월의 조선에
서...》는 선군혁명령도의 불멸의 업적과 담찬 장군
의 기상을 생활속에서 우려나온 첨예한 극적서정과
예술적환상을 타고나가면서 재치있게 엮은것으로
하여 시인의 개성도 뚜렷이 엿보이고 정서적숨결도
기복을 타고 안겨와 큰 격동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시인은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적과 마주선
최대열점지역에서 태어나 여섯달된 아기를 품에 안
으시고 병사들을 조국통일성전으로 부르신 극적사
변에서 강렬한 시적충격을 받고 시를 단숨에 펼쳐
나갔다.

...

오, 세계는 보았다
원수님품에 안긴 아기의 밝은 웃음
오, 세계는 경탄했다
아기의 불을 쓰다듬어주시는 원수님모습
세계군력사에 있었더니
아기를 안으시고 성전으로 부르신 명령!

온 나라를
조국통일성전으로 부르신
그날 -
그 순간
그이의 품엔
태어나 여섯달된 아기가 안겨 웃고있었다

이 격동적인 극적화폭은 장군님의 품은 곧 통일
된 조선이며 미래라는 신념과 확신으로 심장을 끓
게 한다.

백두산천지답사를 마치고 백두의 기상과 의지를
담아 현지에서 씌여진 련시 《백두산을 안고살자》
(1, 2)는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풍모와 투사들의
고귀한 넋을 변함없이 이어나가려는 의지와 신념
을 심장의 울림으로 절절히 노래한것으로 하여 공
명을 불러일으킨다.

홍안의 병사시절에 울랐던 백두산마루에 흰서리
를 이고 다시 오른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우로, 동지로 믿어주시고 또다시 백두산에 세워
주신 그 사랑, 그 은정에 눈굽적시며 뜨거운 숨결
로 노래한 시 《백두산에 올라》(황명성)로 련시
는 시작된다.

...

백두바람에 몸을 맡기고
천지의 푸른 물로 목을 추기니
내 병사시절로 되돌아가는듯
톡톡 흥벽을 치는 젊음넘친 심장의 박동

나는 백두산에서

심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너는 제대를 모르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의 병사다!

...

그렇다! 최고사령관동지의 품에 안겨 오늘 또
다시 백두의 《천만봉 눌러딘고 달려갈 기상》으
로 영원히 제대를 모르는 어제날의 병사로 살려는
심장의 맹세가 뜨거운 숨결을 타고 울려나오고있
지 않는가.

그들은 모두 백두산이 준 심장을 지녔다. 백두산
에 오른 순간 그들은 이런 체험속에 피를 끓였다.

...

끓어라 고동쳐라 나의 심장이여
백두가 안겨준 붉은 넋으로
내 언제나 태양 제일 가까이에서
그 태양을 지켜 길이 삶을 빛내는
백두의 초병되리

...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찬란히 빛내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 없인 순간도 못사는 삶
그이를 위해 고동칠 붉은 심장을
백두산이 나에게 주었다
나도 백두산이 준 심장을 지녔다

(시 《나는 백두산이 준 심장을 지녔다》중에서)

시 《눈과 꽃》(주경), 《장군봉의 이름모를 꽃
에 부치여》(김선화) 등도 시인의 심장에서 충격된
시상을 잡아 심장의 뜨거운 열을 끓여 숨결을 터친
것으로 하여 절절하게 안겨오는 시들이다.

직선적인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심장의 울림에
서 찾아낸 시적발견을 서정에 감싸 펼쳐보인것으로
하여 감성적으로 뜨겁게 안겨든다.

장군봉의 이름모를 꽃을 가슴에 안고 모래길 시
인의 심장의 목소리...

...

내 마음속에 소중히 너를 안고가노라
네곁에 어스때나 나도 함께 피리라
천지의 물안개에 깨끗이 꽃잎씻고
떠오르는 해돋이에 꽃술 곱게 단장하고
태양 우러러 향기풍기는
너처럼 내 살리라
아, 장군봉의 꽃이여!

장엄한 백두의 불덩이를 가슴에 안고 터친 심장의 메아리 《우리는 기발을 들었다》(황성하)는 웨친다.

...

순간 그 노을의 바다우에 솟아오르는 불덩이
삼라만상이 어둠에 덮인 천하를 밝히며
솟아오르는 해돋이
강토 3천리를 거대한 붉은 기폭으로 덮는
백두의 해돋이어

장엄하여라
성스러운 백두의 해돋이어
여기서 련련히 뻗어간 산과 수림들
붉은 기폭으로 휩싸안으며 밝아오는 새날이어
우리의 기발도 그 기폭의 한부분처럼 불타는가

...

삼천리강토를 거대한 붉은 기폭으로 감싸안은
백두의 해돋이를 가슴에 붙안고 불타는 심장의 웨
침에서 우리는 시인의 강렬한 숨결의 박동을 듣는
다, 우리는 그 기폭을 백두산에서 더 높이 들었다
는 웨침을...

장시 《울려라 인민대학습당의 종소리여!》(허
수산 5호)를 보자.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마련해주
신 인민사랑의 대학습전당에서 우리의 과학자, 기
술자들을 부르며 종소리 울린다, 인민대학습당의
장중한 종소리...

...

분발하고 분발하자
지식인들이여!
대학생들이여!
과학자들을 금방석에 앉히려는
장군님사랑 여기서 꽃피나거니

조국은 재사들을 부른다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자기 땅에 밭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오, 경사로운 30돐
인민은 노래를 드린다
인민은 감사를 드린다
인민에게 선물중의 선물을 주신
우리 수령님께!
우리 장군님께!

앞으로 또 30년
앞으로 또 300년

합각지봉의 청기와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더 푸르고 푸르러지리라!

조국의 미래를 위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인재전, 두뇌전의 전당,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그 뜻을 이어 내 나라, 내 조국을 세
계에 떨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과학중시
사상을 중심을 파고들며 폭넓게 일반화하면서 용의
주도하게 정서적숨결을 이어나간것은 장시의 생리
에 맞는 장끼로 된다.

1970년대의 일본새와 투쟁기풍을 노래한 련시
《추억에 실린 못 잊을 나날》 또한 인상에 남는
시편들을 남기었다.

그날에 산 한 평범한 당일군을 추억속에 노래한
《수훈식 후날의 이야기》는 련시의 절정을 장식하
는 시이면서 동시에 결속지어주는 시로서 련시의
특징에도 맞게 선택되고있다.

종업원전체가 모인 공장문화회관, 수훈자만도
1 000여명, 로장인 나도 국기훈장 1급인데 당비서
는 수훈자명단에 없다. 일만 알던 당비서의 됃됨을
알고있는 사람들은 모두 수군거린다....

...

-1만명 노동자들의 집집에
술가락 몇개인지 아는 사람 바로 누구며
속속들이 아는것만큼 집집의 걱정거리
도맡아 풀어준것도 당비서 아닌가

더는 그러지 말라며
인민들을 금방석에 앉히고
일군들은 그들의 심부름군이 되라는것
이것은 당의 바라심이라며 미소짓는 사람

...

그런데 어느날 《로동신문》이 전해준 회소식,
김일성훈장을 수여함에 관한 정령, 거기에 당비서
의 이름이 있을줄이야.

...

김일성훈장!
누가 내신한것인지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친구들 그때 우리는 알았더라
일군들의 공로는 인민이 검증하고 평가함을
그 검증의 평가를 당이 귀중히 여기었음을!

바로 여기에 시인의 숨결이 흐르고있지 않는가.
그런 당일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인민의 마음을
심장으로 감수하고 인민의 편에 서서 검증하고 평

가한 시인의 몫도 뚜렷이 자리잡고있는것이다.

시 《숲의 미소》는 사색속에서 탐구해낸 시적발견이 정서적숨결을 타고 고요히 비껴오는것으로 하여 여운있게 안겨온다.

봄의 미소가 숲에 비껴선가 아침이슬이 구운 푸른 잎들에서 해빛이 밝게 웃는데 봄의 미소는 숲의 미소인가, 밝게 웃는 해빛을 받아 반기는 미소인가, 숲에 정들어 숲을 떠나선 한생을 다시 산대도 산 뜻을 못 찾는 주인공은 속삭인다.

...

그분의 미소는 해빛!
사람도 산천도 따뜻이 쓰다듬어
행복한 웃음 머금고 삶을 누리라고
언제나 자애만을 주시던
아, 그림고그리운 우리 장군님

...

숲이 웃네
우리 장군님 태양의 미소 안고
숲이 웃네
태양을 향해 그리도 밝게 웃네

태양의 미소 안고 밝게 웃는 숲의 미소는 억만년 설레이는 조국의 푸른 숲이 울리는 가장 맑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미소, 절절한 그리움과 고마움에 겨워 드리는 심장의 미소인것이다. 바로 여기에 새것을 찾아낸 시인의 숨결이 있다.

시적충격을 안고 모태기며 그 충격을 숨결에 담아 절절하게 노래한 시초 《나의 자리를 내어달라》한편을 더 들어보자.

시초는 생활속에서 우러나오고 체험속에서 정립된 진실을 꾸밈없이 소박하게 펼친것으로 하여 공

감을 준다.

나의 생활이 가닿는 곳마다 눈에 뜨이는 영예군인자리, 누구나 앉지 못하고 비여두는 자리, 송구스런 감정 그지없어 비여놓지 말라고 호소하는 나, 만약 자그마한 위훈으로 편한 자릴 찾는다면 조국이 불러주는 이름에서 《영예》라는 두 글자를 지워달라. 병사시절의 그 눈비를 잊는다면 《군인》이란 말조차 지워달라.

...

오, 조국을 위하여
피를 흘렸다고 영예군인이 아니다
내 생명의 마지막피 한방울까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위하여
심장이 높이 고동칠 때에만
나를 불러달라 영예군인이라고
그리고 부디 내어달라 나의 자리를!

(시 《나의 자리를 내어달라》중에서)

그러나 아직 우리 시단에는 심장을 뜨겁게 울리는 시상을 안고 시를 시작하는것이 아니라 충격없이 붓을 댄 시들이 적지 않다. 그러한 시들에서는 시인의 열정과 숨결이 느껴지지 않으며 사실들만 초점없이 라렐되어 따분하고 지루한감을 준다.

서정이 메마른 시, 정서적숨결이 느껴지지 않는 시를 누가 읽겠는가.

우리 시인들은 시창작에서 도식을 깨고 새롭게 혁신하여 시대의 숨결과 시인의 열정이 느껴지는 시, 시대의 서정이 차넘치는 시들을 더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고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총돌격전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할것이다.

~~~~~

## 상 식

# 피형과 성격은 별개의 문제

일부 사람들은 피형이 사람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생각하고있다. 그들은 피형과 성격, 기질사이에 명백한 호상관계가 존재하며 사람들이 서로 다른 피형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서로 다른 심리적특징을 가진다고 믿고있다.

그러나 연구결과는 이러한 생각이 근거없는것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피형은 유전에 의한것이다. 유전자가 사람의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상에서의 항원을 결정하기때문에 서로 다른 피형 즉 A형, B형, AB형, O형이 있다.

성격과 기질 등은 유전과 후천성습관에 의해 성

숙된다. 유전요소측면에서 보면 성격을 결정하는것은 신경류형과 함께 아드레날린, 안드로젠, 에스트로젠 등 인체의 각종 분비기관들이 분비하는 호르몬이다. 후천성습관은 가정과 학교, 사회교육을 통하여 체득하게 되는 성격적특징이다. 교육은 사람에게 좋은 성격과 인격을 형성시켜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피형과 성격이 필연적으로 련관되어있다는 주장에는 아무런 과학적근거도 없다. 수많은 연구들에 의하여 피형과 성격이 전혀 련관이 없다는것이 증명되고있다.

## 봄들판의 새벽서정

김 선 화

### 새벽안개 가시기도 전

새벽안개 가시기도 전  
기상나팔소리인양  
통—통—통  
봄들판을 깨우는 프락푼 발동소리

그러자 저기 살구동네 흔들며  
수답들이 목청껏 화답을 하고  
오래재너머 추리동네에선  
노래소리높이 붉은기 퍼덕인다

오호라 또 하루 거름신고  
불이 나게 달려보세

이 새벽도 남먼저 논판에 서있는  
분조장의 두어깨는 축축히 젖었구나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높뛰는 가슴에 타끓는 맹세  
한치라도 단 한치라도 드린다면  
우리 어이 그이의 전사라 하라

뜨거운 땀을 묻어 푸른 들 펼치고  
불타는 진정 바쳐 금나락 안아오세  
떠들썩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음박치는  
새벽안개 가시기도 전

### 통 잠

아서라 아가야  
잠간 더 재우자꾸나  
능금같이 고운 얼굴 붉히며  
냉이국 남비뚜껑 열었다 덮었다  
깨울듯 말듯 바재이는 머느리에게  
감나무집아바이 넌지시 하는 말

저 봐라 아가야  
간밤새 많이도 갈아번졌구나  
흰김 문문 피워올리는 춘삼월대지  
눈뿌리 아득한 봄들판 한가운데  
드렁드렁 코고는 소리 듣기 좋구나  
아마도 풍년꿈 꾸는가부다

그래 교대운전수 너도 뒤지지 말아야지  
통—통—통  
자장가를 불러주는듯  
프락푼소리 새벽안개 들어올리는데  
기지개도 거뜰히  
땅크병출신 프락푼운전수 벌썬 웃는다

그 웃음에  
땅도 움썩 기지개를 켜다  
냉이국향기 감도는 봄들판에  
구수한 가을향기 한껏 들이키며  
감나무집아바이 병글서 웃네

### 바쁜 봄 바쁜 가을

바쁘다  
동구길이 비좁구나  
쟁매기 칭칭 건드려진 장단에  
보습날을 높이 든 프락푼소리  
보란듯이 화음맞춰 한소리 뿜는 새벽

제비처럼 날아에는 봄이의 목소리  
—이것 봐요.  
밀보리가 한뼘하구 또 반뼘이나 더 컸어요

아하, 가슴이 빠근해온다  
옛그제 눈이불 벗어버린 잎새들  
새로 낸 물거름 배불리 먹었더니

어느새 벌써...  
파아란 봄기운에 누으런 가을이 밀려오누나  
기계화반 정열이 쌍생 발걸음에 불이 인다  
봄이네와 약속한 새 종합수확기  
성공의 발동소리 가슴에서 먼저...

바쁘다  
아무렴 바빠야지 바빠야 하구말구  
샘골열흘같이 와닥닥 끝내자  
붉은기 펄펄 달려가는 대오  
바람처럼 날아가는 처녀들 웃음소리  
아, 바쁜 봄 바쁜 가을  
내 고향 봄들판의 환희로운 새벽이여

# 사랑



리 태 윤

1

군적으로 한명뿐이던 련포리 처녀관리위원장이 시집을 갔다.

그의 후임으로 온 리현심은 어제 저녁 관리일군들앞에서 부임인사를 했다. 부임소개라야 자기 소개같은것은 략하고 그저 힘을 합쳐 일을 잘하자는 식의 공식적인 말이었다. 3년씩이나 이 고장에서 3대혁명소조원으로 일한 현심이고보면 구태여 자기 소개가 필요없었던것이다.

련포리에 물이 좋아 번마다 달덩이같은 처녀들이 관리위원장으로 온다고 떠들썩 웃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반가와 어쩔줄 몰라했다.

새 사업에 대한 의욕과 근심속에 뜬눈으로 밤을 새운 현심은 오전 한것을 사무실에서 영농준비실태 료해에 바쳤다.

지금은 기계화반으로 나가는 길이다. 트랙트르운 전수 림육이를 만나야 했다.

바람이 불었다. 먼산, 가까운 들이 모두 바람꽃에 가리워 새뽕양다. 그저 들리느니 바람소리뿐이다. 길아래 모판자리에서 방풍장을 치던 청년이 휩 불어치는 바람에 나뉘를 안은채로 나동그라진다. 맛잡고 일하던 아주머니는 깔깔거리며 웃었다. 현심이 달려가 일으켜주려 하자 그 녀인은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에구, 놔두라요. 그 동무 요새 약해져서 그래요.》

여기저기서 그를 놀려주는 소리가 쏟아져나왔다. 결혼식을 한 후 오늘 첫 출근을 했다는것이였다.

바람이 웃음소리를 토막냈다.

현심은 얼른 돌아서고말았다. 좀체로 저런 룡담에 익숙될수 없는 그였다. 하긴 도시에서 나서자라 도시에서 공부했고 점잖은 선생님들과 학우들속에서 고상한것만을 몸에 익혀온 그가 어떻게 그런 《점잖지 못한》 말에 익숙할수 있겠는가.

아무튼 이런 광풍속에서도 웃을줄 아는 농장원들이 장했다. 그리고 시야에 드는 모든것이 대견했다. 새삼스럽게 친근한 감정이 솟구쳐올랐다. 이제 저 황량한 대지에 푸른 웃을 입히고 알심있게 가꾸어 풍만한 가을을 안아오리라. 하여 온 나라가 련포리를 알게 하자.

현심은 온몸에 뿌듯한 힘이 솟구치는것을 느끼었다. 그것은 소조원시절의 그것과도 판이한, 좋은 풀판을 만난 풀군의 감정과 비슷한 희열넘친 의욕이였다.

한낮의 기계화반은 조용했다. 기계화반장 우길섭이 사람좋은 웃음으로 그를 맞이했다. 봄날씨가 맛스러워 퇴비반출에 애를 먹는다고 몇마디 중얼거리고난 길섭은 무겁게 몸을 일으키더니 림육을 데리러 나갔다. 튕투무레한 몸집처럼 언행에도 무게가 있는 사람이다.

현심은 창문가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누르끼레한 회벽에서는 씩씩한 대진내와 함께 사내들한테서만 말할수 있는 텅텅한 냄새가 풍겼다. 앓은책상이며 전화기, 책장들도 헤여질 때 본 그대로다. 너렁청한 구내에는 새라새형의 련결농기계들이 콧들어찼다. 논두렁뜨는 기계며 제초기, 비료산포기, 벼동가리심는기계... 저것들은 전부 이 울안에서 자

체로 만든것들이다. 하얗게 회칠을 한 꽃바자안에  
자름자름한 자갈을 깔고 종류별로 들어앉힌 기계들  
은 어느 전람관의 농기계전시장을 방불케 했다.

흐뭇했다. 감개무량했다. 이 자리에서 다시금  
이 모든것과 마주설수 있는것만으로도 그는 만족  
스러웠다.

림옥은 문밖에서 신발털개를 요란스럽게 구를 때  
와는 달리 의젓하게 방에 들어섰다. 벌쭉 웃으며  
성큼성큼 다가온 그는 현심이가 내미는 손을 따뜻  
이 감싸쥐었다. 무슨 일을 했겠는지 손에도 얼굴에  
도 기름얼룩이투성이다. 그 손으로 뒤더수기를 굵  
적거리며 능청스럽게 현심을 쳐다보았다.

《내가 또 졌구만요.》

《?!》

《돌아왔으니 말입니다. 난 믿지 않았습니  
다.》

현심은 빙긋이 웃었다. 누군를 믿었겠는가. 현  
심이자신도 자기가 꼭 돌아올수 있으리라고는 생각  
지 못했었다. 다만 정든 마을사람들과의 작별이 쉽  
찮았고 곳곳에 하다가 만 일감을 그냥 두고 가는  
것이 너무 아쉬워 꼭 돌아오겠다고 했던것인데 일  
이 될 때라 마칠 결원중인 관리위원장자리에 자기  
가 임명되었던것이다.

유쾌한 통담과 반가운 인사말이 한동안 오간 다  
음 현심은 림옥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다.

《한가지 부탁하자요.》

그 부탁인즉 지금껏 자기가 주인이 되어 하던  
비탈밭가는기계를 림옥이가 말아서 완성시켜달라  
는것이였다.

림옥은 놀라와하면서도 선선히 응했다. 어찌보면  
그때주기를 은근히 기다리고있은듯싶다. 그것이 도  
리어 현심의 불안을 자아냈다. 혹시 이 동무가 기  
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것이 아닐까? 한번 빼기여  
보려는 실없는 욕망이 일을 망칠지도 몰라....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것저것 잔걱정섞인 소리  
를 하게 되었는데 림옥은 아마 그것이 펍 지루했  
던 모양이였다.

《참 관리위원장동무두, 그러다간 나이 서른도  
되기 전에 할머니가 되고말겠습니다.》

말허리를 툭 분지르며 눈꼬리로 흘려보는데 책망  
하는듯도 싶고 안심시키려는듯도 싶다. 그 우습강  
스러운 표정에 현심은 소리내어 웃었다.

《하긴 그래요. 제가 비탈밭가는기계를 착상한  
주인을 몰라봤군요.》

그 말에 림옥은 손을 저으며 황급히 변명했다.

《아, 아닙니다. 난 오히려 관리위원장동무를...  
얼매도 못 볼 나무에 두엄만 즐거봐 그러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처녀들이란 아무때건...》  
말끝을 흐리며 싱긋 웃는다. 뻔하지 않습니까 하  
는 능청이 뼈대처럼 박혀있다.

현심은 슬며시 얼굴을 돌렸다.

《사람두, 별 실없는 소리 다 하지 않나.》

길썩이 책망하러 드는걸 현심이 말렸다.

《팬찮아요, 뭐 통담인걸요.》

말은 그러하나 마음속의 따뜻하던 감정은 서서  
히 식어들고있었다.

(나를 여전히 나그네로 보는구나!)

현심은 섭섭한 생각을 감추려고 눈을 내리깔고  
손가락으로 장판바닥을 뽁뽁 문질렀다. 하지만 한  
번 들쩍 가슴은 좀체 진정되지 않았다.

임명을 받고 런포리로 돌아오면서 현심은 한번  
도 이런 질문을 받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다. 반  
가와하리라, 그리고 소조원시절처럼 믿고 사랑해주  
리라. 그래서 그의 가슴은 꿈으로 부풀었으며 수  
많은 구상과 설계로 머리는 현훈증을 일으킬 지경  
이였다. 그런데 그 꿈을 실현할 첫걸음을 내딛기  
도 전에 왕청같은 질문이 제기되는것이 아닌가. 마  
치 그 어떤 자격을 심의하는 심사원이 시험문제를  
내놓듯이...

반면에 림옥은 현심이가 스치듯 얼핏 던진 《비  
탈밭가는기계를 착상한 주인》이라는 말을 흡족한  
마음으로 되뇌여보고있었다.

지난해 어느 봄날이였다. 소재등비탈밭을 갈러  
갔던 아버지가 회한하게 고운 손수건을 들고 돌아  
왔다.

《엇다, 너나 써라.》

아버지는 땀시쟁이 누이동생이 불세라 손수건을  
얼른 림옥의 손에 쥐여주며 눈을 끔쩍했다. 빨강고  
소담한 함박꽃이 얼핏 눈에 띄였다.

《웬거예요? 어디서 났어요?》

《현심소조원이 날 쓰라구 준거다. 어서 감추  
래두.》

(도에 회의갔다더니 벌써 왔다.)

림옥은 고개를 기웃거리면서도 손수건만은 얼른  
바지주머니에 쑤서넣었다.

그런데 저녁을 먹으면서, 자리에 누워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뭔가 석연치 않은데가 있었다. 땀을 씻  
을것이 아니라 아예 땀흘리지 않고 발을 갈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며칠후 림옥은 하얀 종이장에 땅크비슷한 그림  
하나를 그려가지고 현심을 찾아갔다. 작업반장과  
함께 논머리에 앉아있던 현심은 《비탈밭가는기계  
입니다.》 하며 내놓는 림옥의 그림을 들여다보더  
니 입을 싸쥐며 웃었다.

《왜요? 안될것 같습니까?》

《아, 아니에요.》

현심이 당황해서 손을 짓는데 곁에 앉아있던 작업반장이 웃으며 말했다.

《자네 욕심이 소똥구리 한가지네그려. 들걸 들겠다구 해야지.》

줄지에 소똥구리가 되어버린 림옥은 잠시 어이없는 표정이더니 곧 태연한 자세로 손수건을 꺼내 이마며 입언저리를 닦았다.

《도대체 요즘은 미술가들까지 농장원을 그리라면 목에 수건을 걸쳐놓는단 말입니다. 땀뻘은 수건이 뭐 농장원들의 치레거린가요?》

맥락이 닿지 않은 앞뒤말을 풀이하느라 반장은 눈만 뜰부럭거리는데 현심의 얼굴은 서서히 달아올랐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 그후 소조에서는 현심을 중심으로 비탈밭가는기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현심이가 관리위원장으로 부임되어오자마자 가뜩이나 그 운명을 걱정하던 비탈밭가는기계를 자기에게 맡겼으니 림옥이로서는 병어리총각 장가든것만치나 기쁜 일이 아닐수 없었다.

한낮의 쉼누런 해별이 창문으로 엿비듯이 비쳐들어 세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채색했다. 그것은 반가운 사람들의 상봉이 이루어진 이 자리의 화기에 애한 의미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듯싶었다. 하지만 그 해별도 제각기 다른 생각에 잠겨있는 세사람의 마음속까지는 한가지 색깔로 물들여주지 못했다.

《그럼 믿고 가겠어요.》

현심은 조용히 방을 나섰다. 우길섭이 담장밖에까지 따라나와 그를 바래였다. 혼연히 웃으며 이말저말 하지만 펍 미안해하는 기색이었다. 허나 실은 미안해할것도 없다. 현심은 지금 세대주의 자격을 가지고 나그네대접을 받는데 대해 피로와하는것이 아니라 자기가 과연 이 땅의 영원한 주인으로 될수 있겠는가 하는것을 장담할수 없어 피로와하는것이였다. 어째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는지 알수 없는 일이었다.

(림옥동무, 동무는 오늘 또 나를 딱하게 만드는데군요.)

현심의 머리에는 문득 그와 처음 만나던 때의 일이 떠올랐다.

재작년, 그가 이곳 련포리에 3대혁명소조원으로 온지 2년째되던 해 가을이었다. 농장에는 한꺼번에 일곱명의 제대군인이 왔다. 리문화회관에서는 성대한 환영모임이 진행되였다. 그날 담당인 3작업반에 나갔다가 늦어서야 돌아온 현심은 회관에 들어서다 우뚝 서버렸다. 여느때없이 흥성거리는 분위기가 여기서부터 느껴졌던것이다.

넓은 홀 한복판에 놓인 탁구판에서는 단식경기가

한창인데 어깨성을 쌓은 구경군들속에서는 연방 환성이 터져올랐다. 농장탁구팀의 기동선수인 수리분조장과 마주선 사람은 면내의바람인데 차림새로 보아 이번에 온 제대군인이 분명했다.

둘 다 솜씨들이 여간 아니였다. 특히 제대군인청년의 외로치기는 경탄할만 했다. 끝내 수리분조장이 3대 2로 지고말았다.

《에에— 나두 이젠 늙었어. 주장자리를 넘겨줘야겠다니까.》

아쉬워하면서도 너그러운척 청년의 손을 잡은 수리분조장은 그를 던지시 자기네 분조로 초청했다.

《3반 림령감의 아들이라지? 땅크병출신이구.》

《그렇습니다.》

《봐둔 처녀는 있나?》

《없습니다. 딸이 있습니까?》

대답이 희뻑다.

처녀들은 입을 싸쥐며 키들거렸다.

《누이동생이 있지. 우리한테 오면 매부삼을수 있어.》

《비탈밭을 소로 갈더군요.》

아직도 소로 밭을 갈도록 내버려둔 당신네 수준을 알만 하다는 소리다. 폭소가 터졌다. 쓰겁게 입맛을 다시며 돌아서던 수리분조장은 사람들의 뒤에서있는 현심이와 눈길이 마주치자 환성을 질렀다.

《아 소조원동무, 어데 갔댔소?》

제잡담 손을 잡아끌며 복수전을 부탁했다. 황급히 달아나려 했으나 처녀들이 야단치며 등을 떠미는 바람에 현심은 하는수없이 탁구판앞에 나서게 되였다.

《림옥입니다. 많이 배워주십시오.》

청년은 발뒤꿈치를 딱소리나게 모으며 깉듯이 레의를 표했다. 어깨가 넓고 허리가 늘씬한데 부리부리한 눈이 인상적이였다.

《전 잘 못합니다.》

하면서도 현심은 은근히 승벽이 살아나는걸 어쩔수 없었다. 중학교때부터 탁구소조원으로 활약해온 그는 농업대학에 와서 두차례나 전국적인 경기들에 출전한 전적을 가지고있었다.

경기가 시작되였다. 처음에는 너자라고 얄잡아보았던지 강타에도 그닥 힘을 넣는것 같지 않던 림옥이 두차례의 공방전을 통해 상대가 풋내기가 아니라는걸 알았던지 본격적인 완력전으로 나왔다. 그릴수록 현심은 여유작작하게 경기를 운영하면서 짧은 깎아치기와 함께 순간강타를 들이대어 적수를 당황케 했다.

응원소리가 어찌나 자지러졌던지 도고하기로 소문난 처녀관리위원장과 리당비서까지 나왔다.

이렇게 되자 현심은 생각을 달리하게 되였다. 실

력은 뻔하다. 품들인 재간이야 어데 가겠는가. 이 왕 고향에 돌아온 제대군인들을 기쁘게 해주자는 행사인데 처음부터 승리자의 패감을 맛보게 하자.

현심은 남이 눈치채지 못하게 탁구판에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다. 림옥의 외로치기강타가 연거퍼 두알이나 성공했다. 머리를 기웃거리던 림옥이가 탁구채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처음처럼 또 두발을 딱 모으며 《미안합니다. 제가 졌습니다.》 하고는 저고리를 찾아들고 회관밖으로 나가버렸다.

사람들은 아연해졌다. 현심은 자기의 실책에 허를 깨물었다. 우월감이 강한 제대군인청년에게 쓸데없는 자비심을 베풀었다는걸 때늦게야 깨달았던 것이다.

(까다롭겠어. 저런 사람은 상대하기가 어려워.)

그후 지나보니 파연 그는 대상하기 조심스러운 데가 없지 않았다. 터무니없이 너그럽다가도 때로 별치 않은 일에 울컥하곤 하는데 그 한계점이 어디인지 알수 없었다.

지금도 그렇다. 뿔때문에 나를 못 미더워하는가. 혹시 도시로 출가한 전 관리위원장에 대한 불티가 나한테까지 튀어오는것이 아닐까? 사실이 그렇다면 그것은 너무 편협한 생각이다. 사랑이란 심장이 하는것이다. 이것을 모르기때문에 저 사람이 어직껏로 총각소리를 듣고있는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던 현심은 혼자 어이없는 웃음을 웃고말았다.

아무튼 수이 다시한번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나서 푹푹한 대답을 주어야 할것이다. 비록 그것이 룡담으로 한 말일지라도 말속에 말이 있다지 않는가. 지휘관이 그런 까치둥지같이 영성민심에 의지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실패를 면치 못할것이다.

믿음, 믿음을 주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2

하지만 현심은 몇달이 지나도록 그럴 기회를 얻지 못했다. 씨뿌리기가 인차 시작되는데다 강습까지 갔다오고보니 부임 첫날의 일은 까마득한 옛일처럼 잊혀지고말았던것이다.

그만치 그에게 있어서 관리위원장사업은 벅차고 힘겨우면서도 열정을 짱그리 쏟아부게 하는 보람찬 사업이었다.

림옥이가 비탈발가는기계제작에 착수했다는 말을 우길섭이한테서 들은것은 강습에서 돌아온 날 저녁의 일이었다. 잘돼간다고 했다.

《부탁해요.》

현심은 이 말 한마디로 그에 대한 믿음을 표시하고 농장의 어느 한두가지 일에만 몰두할수 없는 자

기의 립장을 밝혔다.

파연 그는 바빴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행정한 처녀라고 했으며 손탁 센 일군이라고 했다.

오늘도 그는 이른새벽부터 별판을 돌아보고있었다. 이신작칙을 일군의 첫째가는 미덕으로 알고있는 현심은 오전 한것은 늘 포전에서 보냈다. 그는 자기뿐아니라 관리일군들모두가 그렇게 하도록 요구했다.

별은 벌써부터 끓고있었다. 김매는기계가 통통거리며 달려오더니 순식간에 빙그르 돌아 까마득히 미끄러져간다. 조종손잡이를 잡은 처녀의 머리에서 파란 수건이 기발처럼 날렸다.

현심은 걸음을 멈추고 논판을 살펴보았다. 방금 김매는기계가 짓이기고 지나간 자리에 벼포기 몇대가 쓰러져있다. 현심은 얼른 눈에 들어가 그것들을 일으켜주었다. 이번에는 여기저기 김이 눈에 띄었다. 김을 뜯고 벼뿌리를 굽으며 나가다나니 어느덧 일이 되었다. 흙은 부드럽고 물은 따스하다. 무성하게 아지를 친 벼포기밑에서 개구리와 미꾸라지가 숨박꼭질을 한다.

아침해가 솟아오르고있었다.

현심은 허리를 뻗다. 주위는 삼시에 열배나 더 밝아지고 벼숲이 환희롭게 술렁거렸다. 잎사귀에 맺힌 이슬방울이 반짝거리는 모습은 푸른 실에 꿰인 구슬알같았다. 바다기슭까지 쪽 뻗어나간 광활한 대지가 하나의 거대한 무지개로 되어 태평스레 누워있다. 그우에서 밤을 샌 물안개가 서서히 떠오르며 백양나무우듬지를 가락치처럼 둘러쌌다.

뚝-뚝 물닭의 울음소리, 짜악 짜악 개구리소리, 개짖는 소리조차 아슴푸레 들려오는 먼 들판에서 맞는 아침은 언제보나 신비의 세계이다.

《좀 쉬고 하자요.》

김매는기계를 타던 처녀가 쟁쟁한 목소리로 소리친다. 그는 현심을 향해 《관리위원장동지!》 하고는 발머리를 손으로 가리켰다. 여기저기서 기계소리가 멎고 발로 물을 차는 소리만이 질버덕거린다. 벌써 강냉이발머리에서는 캐드득거리는 처녀들의 간지럼타는듯 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현심은 천천히 그쪽을 향해 논판을 가로지르기 시작했다. 뺏뺏한 벼이파리가 장딴지를 알알하도록 스친다.

《야 이런, 딱!》

낮으나 경탄에 찬 목소리가 울렸다.

《오늘이 우리 조카 생일이야요.》

뿔내듯 쟁쟁하게 울리는 목소리의 임자는 아까 소리치던 처녀같다.

《응, 그런걸 난 또... 가슴이 다 철렁했뎌네.》

《왜요?》

《동무가 약혼식을 하지 않았나 했거던.》



《호호, 우습다. 아무러문 동무가 무슨 상관이야요?》

《상관있지. 내 이때뵈두 동무 오빠를 처남 삼으려는 사람이야.》

《애개-》

바스라지는듯 한 소리와 함께 종주먹을 쥐고 달려드는 처녀의 모습이 보였다. 단고 쫓기며 아우성이 일어났다.

현심이가 발머리에 이르렀을 때 처녀는 태를 지어먹은 새초롬한 표정으로 땀그릇을 덮은 보자기를 벗기며 웅알거리고있었다.

《씨, 누가 동무같은 사람을 본대요?》

《그럼 동무두 누구처럼 도시로 갈테야?》

총각은 그냥 느물거렸다.

《그걸 날보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내 심장에 물어보라요.》

현심은 그렇게 말하는 처녀의 얼굴을 찬찬히 쳐다보았다. 룡담이면서도 도무지 룡담같이 느껴지지 않는것이 이상했다. 혹시 이 동무들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재담을 하는것이 아닐까?

마침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찾아오는 바람에 현심은 딱한 처지를 모면할수 있었다.

《하 거참, 일두...》

그는 현심이를 따로 불러놓고는 선뜻 말을 못했다. 차림새를 봐선 수산분조에서 들어오는 길이 분명한데... 혹시 일이 잘 안됐나?

현심은 잠자코 서서 그의 거동만 살폈다.

술밭덕에 있는 40여채의 집을 남산봉밀으로 옮기기로 하고 군농촌건설대가 달라붙은것은 지난 봄이었다. 좋은 땅도 얻어내고 마을도 규모있게 정리하자는것이였다. 그런데 군농촌건설계획에 딱 쏘아박혀있는 이 일이 뜻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문제는 목재였다. 50여리밖에 있는 룡안림산작업소에서 목재를 받게끔 계약은 되어있으나 온 군에 룡안 하나를 믿고 벌려놓은 건설이 많다보니 일은 한정없이 밀리기만 했다.

《어찌겠어요, 우리가 살 집인데... 무슨 수가 없을까요?》

머칠전 관리위원회 회의뒤끝에 현심이가 걱정을 했더니 부위원장이 방도를 내놓았다. 요즘 잡기 시작한 전어생선이나 한차 싼고가면 뚫어볼 승산이 있다는것이였다.

썩 좋은 안은 아니였다. 우선 몇몇한 국가일을 하면서 누구에겐가 무엇을 들고가서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는것이 현심의 비위에 맞지 않았다.

이들을 생각해보았다. 끝내 다른 방도를 찾지 못한 현심은 하는수없이 부위원장한테 이 일을 맡겨버렸다. 어제 저녁 전어배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그는 신심에 넘쳐있었다. 래일 아침 일찌기 룡안엘 다녀오겠다고 했다.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는지 알수 없는 일이었다.

마침내 현심이가 수산분조장을 만나봤느냐고 물어서야 그는 《농장원들 먹이라는 물고기를 가지고 그런짓 해서야 되우?》 하더라는 말을 힘겹게 했다.

현심은 말없이 돌아서고말았다. 몇걸음 옮기다 되돌아와서 논머리에 놓인 신발을 찾아들고 물길쪽으로 재빨리 걸어가는 그의 마음은 나이들어 이제 는 파단성이 적어진 부위원장에 대한 측은한 생각으로 무거웠다.

...수산분조 앞마당은 물고기비린내로 들썩했다.

트락트르 한대가 그물건조장곁에 서있었다. 손바닥만 한 피창으로 머리만 버섯처럼 내민 림옥이가 그물을 뒤적이는 어로공들과 씩둑거리며 웃고있는것이 보였다.

소형자동차에 물고기통을 싣던 수산분조장이 현심을 보자 허리를 펴며 알은체 했다.

등이 파랗고 갈쭉갈쭉한 전어는 통통하게 살이 올라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웠다. 이 아까운걸 수고하는 농장원들한테 맛도 보이기 전에 남의 집에 들고갈 일을 생각하니 분하기 그지없었다.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불시에 배속에서 쏘르륵 소리가 났다. 뒤이어 싸늘한 전물같은것이 온몸을 휩쌌다. 현심은 그제서야 자기가 여직껏 아침도 안먹고 돌아치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온몸이 노근해지며 땀이 오싹 났다. 일른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았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때에 먹으라고 함속 어머니가 쿵을 닦아서는 바가지에 담아 머리말에 늘 놔주는데 다른 일에 움해있다나니 번번이 이런 실수가 되풀이된다.

(참, 코코에 말썹이라니까.)

현심은 딱히 무엇이라고 짚어말할수 없는것에 화를 내면서 분조장을 불러가지고 분조실로 들어갔다. 앞뒤창을 활짝 열어놓아 방안은 바깥보다 오히려 서늘했다.

《얼마나 잡았대구요?》

얇은뱀이책상옆에 쪼그리고앉으며 현심은 분조장을 지켜보았다. 꺽충한 키에 가슴이 훑쭉한 분조장은 벌써 뭔가 좋지 않은 예감에 앉지도 못하고 문결에서 서성거렸다. 그것이 또한 현심의 부아를 더 돌게 했다. 자기의 정당성을 확신한다면 내앞에서도 당당해야 할것이다.

관리위원장동무, 난 그렇게 못하겠수다.

왜 이 말 한마디를 못하는가.

안타깝게 쪼그리고앉아 초들초들 마른 입술만 감

빠는 현심의 모습은 보기에다 측은하리만치 초췌했다. 살이 쏙 빠지고 눈확이 꺼먼데 《멋쟁이소조》라고 불리우던 그 시절의 자취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이 분조장의 동정을 자아냈는지 한참만에야 심드렁한 목소리로 떠엄떠엄 말했다.

《뒤튼이면 될가요?》

《…》

《림옥이 차에 실을가요?》

《그래줬으면… 고맙겠어요.》

고개를 돌린 현심은 림옥이한테로 어정어정 걸어가며 수산분조장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저너석이 말을 들겠나… 운전수들 반찬감때문에 왔겠는데…》

실없는 걱정 다 하지 하고 현심은 생각했다. 반찬감 실러 왔다면 룡안 가는 뚝에 덧붙여 싣고가다 부리워주면 될게 아닌가. 아무튼 빨리 들어가야겠다. 누에가 석잠에서 깨났다고 했는데 양잠반 지원사업도 조직해야 할게고… 장마철도 다가오는데… 머리속에 뒤편지는 생각에 파묻힌 현심은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랐다. 갑자기 발동소리가 높아지는 바람에 정신을 차려보니 트랙토르가 마당을 가로질러 곧장 들길로 접어드는 것이었다. 뭐라고 소리치며 몇걸음 따라가던 수산분조장이 쫓겨난 먼지속에 말뚝처럼 서있었다.

눈을 깜박거리며 멀어져가는 트랙토르 뒤편무니를 쫓던 현심은 이윽해서야 저 차가 어딜 가느냐고 물었다. 팔을 척 드리운 분조장은 아무 말도 않는 데 그물집던 어로공들이 한마디씩 했다.

《하, 그 사람 성미두 참…》

《꼭 불 안간 수돼지같다니까.》

그리고는 키들거리며 웃었다.

모든것으로 미루어보아 짐작이 갔다. 분조장이 룡안에 올라가라니까 우물렁거리며 내뿔을 것이다. 그리고 작업반에 가서는 관리위원장이 농장원들의 생활에 무관심하다고 투덜거리겠지.

까맣게 잊고있던 부임 첫날의 일이 떠오르면서 림옥에 대한 못마땅한 생각이 가슴속에 소용돌이쳤다.

탁아유치원에 공급되는 물고기를 실은 소형자동차가 앞에 와뒀더니 운전사가 차문을 열어잡고 소리쳤다.

《타십시오, 관리위원장동지.》

현심은 무심히 한발 내짚다가 이내 도리를 저었다.

《가세요, 잠깐 들렀다갈데가 있어요.》

얼결에 거짓말을 하고나서도 그는 자기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 실은 림옥의 차를 타

고가려 하지 않았던가.

길은 벌써 뜨겁게 달아있었다. 그 길로 현심은 걸어들어왔다.

두고보자, 가만두지 않을테다.

걸음마다 옥버리며 마을에 다달은 현심은 합숙이 아니라 관리위원회로 곧장 들어갔다. 전화로 기계화반을 찾았더니 마침 우길섭이 나왔다.

《림옥이 말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현심은 말없이 송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웬일인지 자기가 너무 웅졸하게 처신하는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감정을 앞세우면서 직권으로 아래사람들을 놀려보려 하는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다. 리성은 그러나 감성적으로 그것을 극복하기는 조련치 않았다.

림옥이가 제발로 현심을 찾아 합숙마당에 들어선것은 해질무렵이었다.

식당어머니를 도와 토방앞에서 풋배추를 다듬던 현심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다만 팔을 내밀면 닿을듯 바투 와 멎은 신발코숭이의 기름얼룩을 보며 신발이나 좀 빨아신을게지 하고 생각했다.

《태일 나무를 싣기로 했습니다.》

림옥의 말소리는 머리우에서 울렸다. 그의 말에는 언제나 서론이 없다. 그는 작업지시나 하듯이 동원되어야 할 차대수며 도착시간을 말했다.

《돌아가겠습니다.》

림옥의 발이 빙그르 돌아갔다. 현심이 머리를 들었을 때 그는 벌써 대문가에 가있었다.

《저…》

현심은 일손을 놓고 일어섰다. 여직껏 풀지 못하고있던 까부장한 속을 그냥 품고있기에는 그가 가지고온 소식이 너무나도 희한했던것이다.

《어떻게 된거예요? 갑자기…》

처다보는 눈빛은 깔끔했으나 말소리는 떨렸다.

림옥은 사연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룡안 림산작업소장을 만났했다는 소리만 했다.

미덥지 않았다. 그길로 관리위원회에 나가 전화를 걸었더니 소장은 없고 지령원이 받았다.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서쪽창문으로 비쳐든 노을빛이 방안을 보라색으로 물들이고있었다. 그속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방안의 기물들처럼 뭐가 뭔지 종잡기 어려운 생각속에 현심은 한식경이나 멍하니 앉아있었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서 룡안을 다녀왔을까? 작업소장과는 어떤 사인가? 친척인가?…

다음날 아침 림산작업소에 올라와서야 현심은 그 의문을 풀수 있었다.

《내 산판일을 30년나마 해먹어도 손내밀며 턱

아래소리 하는 사람은 수태 뵈어두 저런 녀석은 천 찼소.》

오달진 체격에 당돌하게 생긴 작업소장은 마당에서 배구를 치느라 휘젓고돌아가는 림옥이를 킁킁하며 어이없어했다.

느닷없이 달려든 젊은 녀석이 눈을 부라리며 울러메더라는것이였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 당신들한테 보낼 때 언제 값을 받자고 하던가, 그 쌀을 먹으며 나무를 찍은 당신들이 자기를 먹여살린 우리더러 나무를 빨리 받겠거든 인사를 차리라니 이런 몰상식이 어데 있는가....

《허허, 남의 밥상을 넘보면서 입다심이라도 했더라면 큰일났겠소.》

작업소장은 어처구니없다는듯 껄껄 웃었다.

그랬었구나! 그런것도 모르고 나는 갇은 추측을 다 해봤지.

현심이가 대신 용서를 빌자 작업소장은 손을 뻗내리그었다.

《농사군의 배짱이 그쯤이야 해야지요.》

마치 훈장이라도 달아주는것 같았다. 그리고는 창밖을 향해 소리쳤다.

《이 사람 우쭐래미, 마당깨지겠네. 밭다면 깨요한다더니 벤장놈의 배구는 무슨...》

림옥이도 지지 않았다. 공과 함께 뺏다내려지군하며 신이 나서 떠들었다.

《아바이두 성냥이나... 한팩 준비하시라요. 새집들이에... 청할테니.》

게으른 산골해가 골안에 퍼질무렵 림옥의 차에 나무를 싣기 시작하는것을 보며 현심은 토장을 떠났다. 이왕 예까지 왔던김에 통안돼지종축장에 들러볼 생각이였다. 거기에 좋은 종자돼지가 있다고 했다. 보고 맘에 들면 새끼라도 한쌍 뽑아갈 작정이다.

몸은 오늘도 가볍지 않았다. 욕심스레 차려놓은 누에때문에 요즘 농장에서는 불이 일었다. 현심이라도 어제 밤늦도록 뽕을 뺐다. 입안이 소태같이 쓰고 기운이 없다. 게다가 아까 작업소장한테서 들은 말이 그냥 속에 얹혀있다. 림옥에 대한 칭찬이었지만 꼭 자기를 비웃는것만 같았다. 너한테는 왜 그런 배짱이 없느냐? 그래도 어제날의 소조원이였다구? 파단성있는 일군이랴구?...

오르락내리락한 산골길을 자전거로 달리기란 짜증날 일이였다. 또 언덕반이다. 엇가락처럼 꼬이는 다리로 자전거를 밀며 그냥 생각한다.

나의 파단성과 림옥의 파단성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확실히 나에게 없는것이 그에게는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프락포르소리가 덜칠듯 다가오고있었다. 림옥이

가 뒀을것이다. 차도 주인을 닮아 성급하고 우쭐거린다. 이상한 사람이야. 남들과 대하는걸 보면 더 할나위없이 서글서글한데 날보고는 왜 그럴까?

소조원시절에 그들은 펍 자별한 사이였다. 종중책을 들고와서는 수학공식이나 외국어단어를 물어보곤 했고 비탈밭가는기계를 시작하자부터는 열정적인 토론상대가 되어주었다. 저 기계가 지금처럼 크기가 유모차만 해진데는 림옥의 사색이 깃들어있다. 현심이가 관리위원장으로 올 때까지만 해도 림옥은 지금같지 않았다. 일을 잔뜩 벌려놓고 그 일에 빠져 현심이가 눈코뜰새없이 돌아치자부터 그는 웬일인지 슬며시 멀어지기 시작했다.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게 아닐까?)

나무를 가득 실은 프락포르가 곁에 와 멎은것은 그가 언덕반이를 절반도 오르기 전이였다. 운전칸에 뒀던 호송원이 뛰어내리더니 앞을 막아섰다.

《타십시오.》

자전거를 잡은 그는 다른 손으로 현심의 어깨를 부축했다. 현심은 시키는대로 했다. 림옥이가 근심어린 눈으로 그의 얼굴을 지켜보다가 슬며시 눈길을 돌렸다.

《수고했어요.》

현심은 그에게 웃어보이고싶었으나 잘되지 않았다.

차는 떠났다. 현심은 등반이에 몸을 실었다. 그담에는 무엇이 어떻게 되였는지 모른다.

군인민병원앞에 멎은 프락포르에서 현심이를 안아내릴 때 그의 주머니에서 닳은 봉 몇알이 땅에 떨어졌다. 뒤따르던 의사가 그것을 집어들더니 림옥을 무섭게 노려보았다....

그날 저녁이였다. 밥상둘레에 모여앉은 식구들앞에서 림옥은 낮에 있는 일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집에 재목 좀 장만한것 있지요, 아버지?》

그의 기분은 침울했다.

《왜, 재목이 모자라겠느냐?》

《예.》

《아침에 차를 가지고오려무나.》

아버지는 혼연히 대답했다. 제것이라면 고뿔도 남주기 아까와하는 성격의 어머니도 이번만은 아들의 말을 긍정했다.

《쉽지 않은 처너지. 그러니 사람들이 따를수밖에... 뉘니뉘니해두 자식한테 정성을 다한 부모라야 봉양두 깅듯이 받는 법이란다.》

참으로 그런가보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온 동네가 떨쳐나는 바람에 걸린다던 재목은 쓰고도 남으리만치 모아졌다.

...새집들이가 늦어져 첫눈이 펄펄 내리는 날에야

김장을 담그느라 법석이는 새 마을을 돌아보며 현심은 감개무량함을 금할수 없었다.

《이보라구, 현심관리위원장!》

보는 사람마다 손목을 잡아끌며 자기네 양념맛을 보라고 야단들이다. 부르는 말투부터 달라졌다. 마치 집난이의 이름이나 부르듯이 스스럼없다. 저렇게 불리웠던 소조원시절이 생각났다.

무엇이 우리들을 이처럼 가깝게 하였는가?

현심은 갑자기 부닥친 일에 어리둥절해서 몸둘바를 몰라했다.

### 3

민들레, 바랭이, 길쭉구들이 앞다투어 움터나는 언덕길로 현심은 쫓기듯 걷고있었다.

겨울과 봄이 함께 사는 계절이었다. 흰눈이 녹지 않은 웅덩이우에 냉이꽃이 노랗게 피어있다.

(괜한 소릴 해가지구... 내가 어찌자구 점점 이 모양일까?)

고개마루에서 현심은 거듭하여 얼굴을 쓰다듬었다. 아직도 뜨거운 얼굴이다.

오늘 아침 군에서 전화가 왔다. 머지않아 중앙에서 농기계전시회가 열리는데 새로 창안한 기계가 있으면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급히 기계화반으로 나갔다. 립옥은 없었다. 기계시험을 위해 나갔다고 했다. 가벼운 무한게도자리가 샘고개쪽으로 뻗어있었다. 그 자욱을 따라가는 길에 현심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되고 결국 벼모판씨뿌리기작업장을 돌아보는데 만나절을 보냈다. 샘고개길 7반 3분조 랭상모판에 다달은것은 하루해가 설핏해질 무렵이었다.

이날따라 이곳 농장원들은 흥이 난 얼굴들이었다. 방풍장너머집에서 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했다. 그러고보니 고소한 기름냄새며 흥성거리는 분위기가 여느집과 달랐다.

《자, 날래 해치우구 용락이 색시구경이나 가자구요.》

《좋겠다. 혈기좋은 청춘에 냉이꽃피는 봄철이라. 기나긴 봄밤이 왜 이다지도 짧으냐.》

풍월조의 너스레에 이어 여기저기서 걸쭉한 덕담들이 쏟아져나왔다. 녀인들도 곧장 맞장구친다.

처녀들은 큰일날 소리 한다는듯 눈을 할기작거리면서도 입가에 벅글거리는 웃음만은 감추지 못했다.

산산한 봄바람이 떠도는 방풍장안에 때아닌 화기가 넘쳐흐른다. 땀을 철철 흘리며 연방 복토감흙을 퍼올리는 사람, 들것체를 맞잡고 오리처럼 어기적거리며 내닫는 사람, 으쓱으쓱 어깨춤추며 고물

개질을 하는 사람...

손발이 딱딱 맞았다. 일자리가 폭폭 났다. 확실히 여기에는 그 어떤 들리지 않는 가락이 있었다. 춤추는 무희에게 안땅이나 휘모리장단이 제격이듯이 육체노동이라는 물동에는 덕담이라는 장단이 제격인것 같았다. 그것으로 해서 단조로운 팔다리의 운동에는 예술적인 매력이 부여되고 딱딱하고 고된 자연과의 싸움에는 달콤하고 향긋한 좁이 도는상싶었다. 자기가 여직껏 《점잖지 못한》 것이라고 멀리하던 그것이 마치 잘 켜 빵반죽에 떨어진 중조마냥 생활을 부근부근하고 감칠맛있게 한다는것을 느끼기 시작한것은 언제부터였는지 그자신도 잘 모른다. 이제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는 어느덧 그 생활에 익숙되었을뿐만아니라 매우 친숙해져있었다.

《용락동무 색시가 그렇게 곱대요.》

풍선처럼 부풀어오른 새말간 비닐박막뒤에서 처녀가 속삭이는 말이였다. 그와 박막을 맞잡은 녀인은 뚱뚱보였다.

《인물이나 고우면 뭘하니, 일을 잘해야지.》

《인물도 고와야지요 뭐.》

현심이가 참네했다. 그는 지금 분조장과 함께 파상너비를 재보고있었다.

《그래야 이 런포폴안이 더 환해질게 아니나요.》

그는 두팔을 학의 날개처럼 벌리고 빙그르 돌았다. 그에 따라 벌을 끼고앉은 샘산이며 자성산이며 하는 조막같은 야산들이 곁따라 돌아갔다. 참말로 이 동화같이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마음처럼 인물도 꽃갈기만을 바라는 그의 마음이었다.

사람들이 떠들썩 웃어댔다.

《에그, 관리위원장 욕심두...》

뚱뚱보녀인이 징치듯 법석였다.

《아무렴 인물맵시치구 관리위원장만 한 녀자가 또 있을라구.》

이렇게 되어 화제는 현심이한테로 돌아왔다. 나중에는 관리위원장은 언제야 국수를 먹겠느냐는 소리까지 나왔다.

《자자, 일들이나 하자구요.》

분조장이 닭쫓는 시늉을 하지 않았던들 무슨 소리가 나왔을지 모른다.

현심은 어떻게 모판을 빠져나왔는지 알지 못했다. 고개마루에 올라와서야 뒤돌아보니 웃음소리, 말소리가 여름강변의 아이들 뛰노는 소리같이 들려왔다.

참으로 웃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무슨 웃을 일이 저리도 많을가. 일은 힘겹고 애로와 난관도 없

지 않다. 그런데도 저 사람들은 그저 태연히 웃는다. 뭐나 다 수월하고 가능할뿐이다. 땅과 빛과 씨앗만 있으면 걱정할것 없다는 배짱인것 같다. 은연중 현심이란데도 그런 버릇이 생겨 우에서 무슨 지시가 내려오면 별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대답해버린다. 방도는 그다음에야 찾아보게 되고 또 찾는것이다. 책에서는 이런것을 가리켜 《필요성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정식화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그런 리론이 따로 없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리론의 정당성을 실천으로 증명하고있는것이다.

소독탕크결에서 문득 앞을 막아서는것이 있었다. 비탈밭가는기계였다. 그제야 현심은 자기가 림옥을 찾아 떠났던 길임을 상기했다.

급히 돌레를 살펴보았다. 림옥은 우묵한 잔디판에 팔배개하고 번듯이 드러누워있었다. 무슨 생각에 잠겼는지 눈귀를 한껏 쏘프리고 하얀 이새에선 잔글거리는 미소가 흘러나온다. 머리말에 핀 파란 조팝꽃이 유난스럽다.

저도 모르게 가슴속에서부터 킁킁 하는 웃음이 솟구쳤다. 반가웠다. 장난기가 살아났다. 발은 벌써 그쪽을 내짚는다. 허리는 고양이처럼 착 까부라지고 숨소리는 쉼겨거린다.

귀구멍을 간지럽혀줄래야!

길고 가는 풀대 하나를 낚시대마냥 앞으로 내민 현심은 아득히 흘러가버린 장난바치시절의 계집애로 되돌아가는 자신을 어렴풋이 느끼며 림옥이결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한걸음, 한걸음만 더...

밭밀에서 삭정이가 딱 하고 부러졌다.

림옥은 텅기듯 일어났다. 위험한 지경에까지 다가온 현심이를 멍하니 바라보던 림옥은 불시에 웃음을 뒤로 제끼며 소리높이 웃었다.

제풀에 놀란것은 현심이었다. 풍당 주저앉은 그는 손바닥을 딱 마주치며 새된 소리를 질렀다.

《뭐예요? 여기서...》

그것은 오래만에 자기를 드러낸 처녀 리현심의 진짜모습이었다.

또 한바탕 웃고나서야 림옥은 넘적한 립을 들썩하며 《보십시오, 저 하늘... 얼마나 맑습니까.》하고 중얼거렸다.

쳐다봤다. 가없이 푸른 하늘에 하얀 구름송이 몇 개가 가볍게 떠있을뿐이다. 날씨때문에 자주 쳐다보는 하늘에는 어제도 그제도 저런 구름이 떠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지금처럼 아름답지도 순결하지도 않았었다.

어찌된 일인가. 태양이 가까와서인가? 아니면 둘이서 함께 보는 자연이어서?...

《어릴 때 우리는 봄이면 이 등판에 자주 와서 티티새를 잡곤 했습니다.》

림옥은 새창에 딱장벌레를 끼워놓고 이 웅덩이에 들어와앉아 새창 튀는 소리가 찰칵하기를 숨막히게 기다리던 그 시절을 감회깊게 회상했다. 그때도 여기는 잔디가 이렇게 좋았다고 했다.

《한번은 아버지의 담배를 몰래 훔쳐가지고와서 피워봤지요. 쓰더군요. ...》

그날 저녁 담배갑이 없어진것을 알아낸 아버지는 아들의 종아리를 호되게 답새겼다. 저녁도 못먹고 쫓겨난 림옥은 제때 두명과 함께 다시 이 웅덩이에 기여들었다. 바람은 쌀쌀하고 밑에 깬 강냉이짚은 폭신한데 하늘의 못별은 계집애들처럼 새싹새싹 잘도 웃었다.

다음날 아침 따스한 이불밑에서 잠을 깬 림옥은 어리둥절해서 사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간밤의 이야기를 했다.

《원 애두, 꿈을 꾸게로구나!》

어머니는 웃으며 여느때없이 닭알지짐을 듬뿍이 지저 그의 앞에 놔주었다.

《썩 후날에야 나는 그날 밤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찾아 얼마나 해뻐는가를 알았습니다. 군대에 나가서도 이 언덕은 늘 고향의 향기처럼 가슴속에 그려지더군요. ...》

이 동산과 관련된 그의 추억에는 끝이 없을상 싶었다.

고향이란 그런 곳이다. 그곳 도시에 가면 현심이란데도 그런 추억이 수없이 많다. 명절날 부모님손 잡고 거닐던 강안유보도며 넘어져 무릎이 깨졌던 그네터...

허나 여기에는 그런것이 없다. 여기에는 다만 현재만이 있을뿐이다. 그 현재가 마련된 동기는 매우 순진한 꿈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중학교 높은학년때의 어느 봄날 그들은 교외에 있는 농장에 나가 강냉이영양단지를 옮기는 일을 도왔다. 일은 힘겨웠으나 대신 풍요한 자연이 소녀를 현혹시켰다. 여기서는 높은 산과 넓은 들을 파랗게 장식하는 나무와 풀잎을 제 손으로 직접 만져볼수 있었고 책이나 영화에서만 듣던 종다리 울음소리를 목을 젓히고 하늘을 쳐다보며 싫도록 들을수 있었다. 검누런 흙은 또 얼마나 부드럽고 따듯한가. 땅을 파고 물을 주면 야들야들한 잎새를 쳐들고 가볍게 춤추는 감쪽한 강냉이모에서 팔뚝같은 이삭이 달린다는것은 믿어지지 않으리만치 신기했다. 현심은 여름내내 그 강냉이를 그리워했다. 얼마나 컸을가? 정말 강냉이가 달렸을가?...

그후 중학교를 졸업한 그는 농업대학에 갔다. 하여 오늘의 이와 같은 현재가 마련된것이다. 비록 높은 리상을 안고 내디딘 걸음은 아니지만 그 우연한 첫걸음이 가져다준 현재는 결코 하찮은것이 아

니었다. 그것이 어린시절만 못지 않다는것을 그는 체험을 통해 잘 알고있었다.

얼마전이었다. 어머니가 몹시 앓는다는 기별이 왔다. 현심은 한달음에 달려가보았다. 어머니가 앓는다는것은 공연한 소리고 좋은 혼처가 나섰다는것이였다. 만나봤다. 총각은 나무랄데없이 툭툭하고 잘생겼다. 의학대학을 나와 어느 방역기관에서 일한다는데 그는 농사일의 중요성과 농장원들의 수고에 대해 깊이 알고있었다.

현심이가 이해해주어 고맙다고 말하자 그는 오히려 얼굴을 붉혔다.

《중요한거야 아는것이 아니지요. 나한테는 현심 동무와 같은 용기가 부족합니다.… 농장을 떠나오기가 조런치 않겠지요?》

현심은 고개를 숙이고 애꿎은 손가락만 비틀었다.

총각을 멀리까지 내려주고 돌아온 딸의 어깨에서 눈을 털어주며 어머니는 은근히 물었다.

《어떻니?》

현심은 한숨을 푹 쉬고나서 말없이 침대에 몸을 던졌다. 흥떡이는 침대의 파동에 몸을 맡길채 현심은 마음속으로 빌었다.

(현심, 제발 마음만은 흔들리지 말려무나.)

끝끝 허를 차며 머리맡에 와앉은 어머니가 칠칠한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허나 그 애무도 그의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했다. 현심은 어머니를 부르며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린 그 품에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자기가 떠나올수 없는 그 고장과 그 고장 사람들에 대해 두서없이 중얼거렸다. 아, 투박하고 무뚝뚝한, 그러면서도 푹배기의 장맛처럼 푸수한 그들 하나하나가 어찌면 이다지도 살뜰하게 안겨오는것인가.

《어머니, 난 피로워요.… 그 동무가 날 건방지다고 욕하겠지요?》

《총각이 네 맘에 들었던 모양이구나!》

현심은 웅석부리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차라리 맘에 들지 않는 총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괜히 너를 오라구 했는가보다. 벌써 농사군이 다 된 아이를 가지구...》

어머니는 심란해서 중얼거렸다.

《그렇게 보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빙그레 웃었다. 그 웃음은 딸의 마음속까지 환히 들여다볼줄 아는 어머니만이 지을수 있는 그런 웃음이었다.

《고마와요, 어머니.》

현심은 어머니의 목을 꼭 끌어안으며 목메여부르짖었다. 달콤한 유혹을 이겨낸 자신이 스스로의 생

각에도 장해보였던것이다.

고향에서의 하루는 답답하고 무료했다. 창밖을 내다보면 누가 심었는지도 모르는 가로수가 흰눈을 소복이 들썩쳐 서있고 거리에 나서면 화려하나 생소한 사람들이 결는 한번 팔지 않고 그의 결을 지나갔다. 일감을 찾아보았으나 할만 한 일감도 없었다. 손발이 편안한것이 이렇게 괴롭다는걸 현심은 처음 깨달았다.

딸의 거동을 민망스레 지켜보던 어머니는 그를 청량음료점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서는 창턱에 쌓이는 흰눈을 바라보며 아이스크림을 먹을수 있었다.

《야, 우리 사람들한테도 이런걸 먹었으면...》

달고 시원한것이 목젓너머로 스르르 넘어가는 순간 현심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두엄생산에 바쁠 마을사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마을에 돌아오자 현심은 기술자들을 모아놓고 그 일부러 의논해봤다. 이왕 판을 벌려놓을바엔 빨래집까지 차려놓자는 그의 말에 사람들은 싱글벙글 웃기만 했다. 반대한것은 우길섭이뿐이었다. 기본 생산시설도 아닌 그런것에 품을 들인다는건 탈선이 라는것이였다.

현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결의 사람들이 야단쳤다.

《이 사람 길섭이, 자네 띄약벌아래서 김을 매봤나?》

《저 친구 마누라한테 일러줘야 해. 당장 저녁두 못 얻어먹구 쫓겨나게시리.》

《합시다. 우리 애들이 알면 얼마나 좋아하겠소.》

기계는 벌써 제작이 끝나가고있다. 머지않아 4월의 명절에는 첫 시제품을 뽑아 유치원아이들과 농장원들에게 먹일 계획이다.

마을에 새로운 그 무엇이 생길적마다 사람들은 더없이 좋아하며 현심의 수고를 치하했다. 그때마다 현심은 아들이 아버지의 인사를 받은것만치나 황송해했다. 자기야말로 부러운 나머지 몇마디 말이나 했을뿐인데 손발이 닳도록 애쓰며 자기의 꿈을 현실로 꽃피워준 사람들이 도리어 고맙다고 하지 않는가.

순박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이제는 이 땅에 소중한것이 너무나도 많아졌다. 이제 문득 이 모든것과 헤어지게 된다면 현심은 아마 목놓아울것이다.

아, 녀자의 행복이란 꼭 정든것과의 작별속에서만 꽃피나는것일까?

끝없는 상념속에 잠긴 현심은 자기의 두눈이 축축하게 젖어드는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눈

을 림옥이가 몰래몰래 훑쳐보고있다는것도 알지 못했다.

문득 림옥이가 허리를 꼴꼴이 펴며 일어섰다.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나봅니다. 봄철이다보니...》

그의 거동에는 어느덧 제대군인의 팽팽한 탄력이 살아있었다.

《아, 아니에요. 재미있게 들었어요.》

쌀쌀하게 대꾸하며 따라일어서는 현심의 몸에서도 관리위원장의 기품이 느껴졌다. 지금 그는 불쾌감을 애써 누르고있었다. 제 말만 말이라고 떠벌이고는 엉치를 툭툭 터는 이런 사람을 진중일 찾아다니는것이 어이없었다. 다들 웃고 노래하는 오락회에서 지명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일어서는듯 한 기분이었다.

(하긴 사업상용무로 찾아왔던것이니까....)

《림옥동무, 오늘 아침 군에서 전화가 왔는데...》

마침내 현심은 똑바로 서서 림옥을 쳐다봤다. 엄정한 그 눈빛에서 덩지 큰 사내는 순식간에 부동자세를 취했다. 현심의 말을 들은 림옥은 벌쭉 웃었다.

《해야지요.》

대답이 너무 수월하다. 미덥지 않았다. 그 기미를 느꼈는지 림옥은 뒤덜미를 문지르며 《저두 이젠 대학생이 아녘니까.》 하고 웅얼거렸다.

그렇다, 그도 일하면서 농업대학을 다니고있다. 저러다 혹시 청춘시절을 다 보내지 않을까?

당치 않은 걱정이라는 생각에 쫓기면서도 현심은 저도 모르게 그의 신발을 굽어보게 되었다. 고운 흙이 묻은 새 신발에는 이미 기름얼룩이 없었다.

(어마, 발두 꽤나 크네!)

그것은 림옥에게서 발견한 또 하나의 새로운 면모였다.

그날 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바람에 우는 문풍지소리를 들으며 현심은 오투도록 잠들지 못했다.

(머지않아 꽃이 피겠구나... 장차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 4

요즘도 현심은 하늘을 쳐다보곤 한다. 그때마다 그는 파수원잔디밭에서 바라보던 하늘을 그려보는 것이었다. 웬일인지 그날부터 하늘은 늘 아름다웠다. 지어 구름끼고 바람부는 날에조차 그것대로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진행된 모내기총화모

임에서 돌아오는 지금도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있었다.

들쭉날쭉한 지평선으로 불같은 노을이 타고있었다. 창공을 향해 치솟아오른 형형색색의 구름들은 거대한 불기둥을 형성하면서 누리를 하나의 색깔로 물들였다. 바람을 받아 룡트림하는 화염같았다.

저러다 온 벌판을 태워버리지 않을까?

아닌게아니라 논밭은 쇠물처럼 끓고있다. 그 성급한 색깔에 비해 오종종 줄지어선 벼포기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가냘파보였다. 붉은 하늘, 붉은 대지사이로 왁새 한마리가 날고있었다. 붉은 그늘의 날개에서도 번쩍거렸다. 펍 쓸쓸해보였다. 자신의 외로움때문에 그렇게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언제부터인가 현심은 때없이 찾아드는 외로움에 시달리고있었다. 그것이 나이찬 처녀의 가슴속에 지퍼진 불때문이라는것을 알았을 때 현심은 여간 놀라지 않았다. 빨라 3~4년후의 일로 생각했던 일이 이렇게 급히 닥치다니!

이미 그에게는 이런 체험이 있었다. 스무살을 쳐다보는 대학입학초기의 일이었다. 그때의 붉은 초원에 붉은 불처럼 참으로 맹렬했었다. 하지만 지향은 없었다. 그저 바람부는대로 마구 내달릴뿐이었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나 보다 원숙해진 처녀 리현심의 가슴속에 다시 지퍼진 붉은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것은 마치 서서히 타들어가는 겨불처럼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지속적이고 지향이 명백했다. 따라서 외로움의 첫 파도가 들이닥쳤을 때는 그자신도 그 까닭을 몰랐었다. 마침내 자기가 그 누군가를 그리워하고있다는것을 깨달았을 때 문득 떠오른것이 림옥의 얼굴이었다.

무슨 일이야?!... 어마, 내가 어찌자구...

처음에는 자지러지도록 놀랐고 다음은 당황했다. 아니라고, 절대로 그럴수 없다고 강경히 부정해보았으나 허사였다. 치면 칠수록 더 넓게 퍼지는것이 불인것처럼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더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림옥이었다.

그의 무엇에 반했는지 알수 없었다. 그저 그의 전부가 훌륭하게 느껴졌다. 지어 심술스럽게 오른 쪽으로 약간 찌글서한 두툼한 입술까지도 남성다운 그의 기질을 보여주는듯 했다.

현심은 핑계를 만들어 종종 작업장에 찾아가보곤 했다. 림옥은 태연하고 정중하게 그를 대해주었다. 각듯이 《관리위원장동지》라고 그를 존대해 불렀고 그의 말을 귀담아들었다. 룡담 세고 활동적인 그의 이와 같은 태도는 현심의 기분을 자극했다. 우정 저러는거야, 끌려주느라구...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돌아오는 길에 현심은 매번 눈두덩을 내리깔고

입술을 감쳐물곤 했다.

어느날 저녁무렵 우길섭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며칠째 시험작업을 하던 비탈밭가는기계가 돌부리에 보습날을 거는 바람에 리대편을 모조리 끊어먹었다는 것이었다.

현심은 송수화기를 귀에 댄채로 고개를 돌려 창문밖 멀리를 바라보았다. 여기서는 기계가 가 있다는 밤나무끝이 뻗히 건너다보였다. 모든 나무들이 앞을 다투어 꽃피고 잎피는 때에 유독 거기서만은 여전히 잠자듯 침울한 겨울빛이 떠돌았다. 그 침울한 기분을 가시려는듯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필 바쁜 대목에 그렇게 됐군요.》

현심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밤나무끝에서는 밤새껏 모닥불이 탔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현심도 온밤 사무실창문가를 지켰다. 아직도 밤이면 서리가 하얗게 내리는 계절이었다.

밖에서 얼마나 추울까. 내가 괜히 우는소릴 했다니까...

현심은 몇번이고 문밖을 나섰다가 돌아서곤 했다. 자기가 나타나면 그가 더 우쭐해질것만 같았던 것이다.

(하긴 요새 두엄실이하느라구 밤일하는 사람들이 한둘이라구... 하지만 추울거야...)

날이 밝자 그는 서둘러 밤나무끝으로 건너갔다. 수리를 끝낸 림옥은 발을 갈고있었다. 발을 갈며 노래를 불렀다.

...

김장군이 주신 땅에 봄이 오며는  
하늘에 올라가는 발갈이노래

...

기계의 진동으로 가느다랗게 떨리며 높이 울리는 그의 노래소리는 아침하늘의 종다리소리마냥 랑랑하고 멋스러웠다.

뚜껑을 잡아제긴 땅에서는 뽕얀 김이 피어올랐다. 벌레를 쪼아먹으러 모여온 새들은 그의 두리를 환희롭게 날아돌며 대륜무를 펼쳐놓았다. 그속으로 걸어가는 림옥은 하늘나라의 신선같았다. 아니, 자연을 길들여 자연의 시중을 받으며 자연궁전을 거니는 자연의 왕자같았다. 참으로 인간이야말로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것을 확인하는듯 한 저와 같은 상징적인 형상은 도시에서는 물론 어느 예술가도 창조할수 없다는것을 현심은 안다.

그날 아침 림옥은 현심이가 들고온 빵을 맛있게 씹으며 처음으로 피곤하다는 말을 했다.

《좀 쉬세요.》

꺼멓게 꺼진듯 한 림옥의 눈화를 바라보며 현심은 가장 상냥하게 말했다. 이 사람도 피곤에 지칠수 있다는것이 왜 이다지도 기쁜지 알수 없는 일이었다.

그때로부터 두달이 지났다.

림옥은 요즘 주행부분에 무한계도대신 유압식다리를 만들어붙이고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15도까지의 경사밭을 갈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내고야말겠다는것이 그의 결심이였다. 오늘로 조립을 끝내고 시험운전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다...

관리위원회에 들어선 현심은 전화로 기계화반부터 찾았다. 그러는데 곁에 앉아있던 창고장이 문득 생각난듯 《참 림옥이가 다친걸 압니까?》하고 뻔히 쳐다보았다.

《다치다니요?! 무슨...》

현심은 너무 놀라 송수화기를 놓는다는것이 잉크병우에 올려놓았다. 그바람에 잉크병이 땅에 떨어져 박산이 났다. 창고장은 바빠맞았다. 유리조각을 줍는다, 걸레질을 한다 하며 부엌계 변명했다.

《큰 사고는 아니고 다리가 좀... 처치가 끝났을텐데...》

병원쪽을 기웃이 내다보기도 했다.

현심은 아무말없이 병원으로 건너갔다. 마침 림옥이가 병원문을 나서고있었다. 우길섭이 곁에서 부축했으나 봉대감은 다리가 땅을 짚을적마다 그는 몸을 기우뚱거렸다.

현심은 가슴을 움켜잡으며 못박힌듯 서버리고말았다. 림옥의 전체는 갱그리 무시되고 허연 다리만이 눈앞에 가득찼다. 곁에 놓인 긴의자에 주저앉은 림옥은 거기에 상한 다리를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현심이를 향해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 한번 다녀와야겠다고 똥판지같은 소리를 했다. 그를 안심시키려는것이 분명했다.

우길섭이 상한 경위를 설명했다. 유압피스톤이 제멋대로 작용하면서 기계가 굴러났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으며 현심이가 상한 부위를 가만히 어루만지자 림옥은 전기에라도 닿은듯 다리를 가늘게 떨었다.

《아파요?》

림옥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허나 실은 아프다는 감각보다 흡족하고 유쾌한 감정이 더 우세했다. 땀짜게 넘어진 아이가 용타고 추어주는 바람에 으쓱해서 뿔뿔이 일어나는것과 비슷한 숏기라 할까...

(미련둥이, 우둔쟁이... 기계가 굴러나도록... 제 몸 상할줄을 왜 모를까.)

설음이 북받쳐올라 현심은 얼른 일어서고말



았다.

사무실에는 창고장이 그냥 앉아있었다. 뭔가 끔찍하다가 이상한 눈초리로 현심을 쳐다보았다. 되돌아왔으나 갈곳이 없었다. 잠시 복도에서 서성거리다 찾아간 곳이 경비실부엌이었다.

아, 이런 때 집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가.

현심은 아궁앞에 쪼그리고앉아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놀란듯 쾅한 유리창문이 묵묵히 처녀를 지켜보고있었다.

## 5

무거운 쇠불이가 든 배낭을 지고 열차에서 내렸을 때 림옥은 앞을 막아서는 현심이가 자기를 마주나왔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회의 왔됐습니까?》

《회의두 있구… 이제 그 유압식다린가요?》

현심은 자전거뿔프처럼 생긴 쇠불이를 꺼내보며 좋아서 어쩔줄 몰라했다.

그들은 배낭끈을 맞잡고 표 받는 곳으로 향했다. 걸으며 림옥은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 갔던 이야기를 했다. 다 잘됐다고 했다. 성공의 문어구에 확고히 이른 그는 좀 흥분 기분이었다.

《이제 보십시오. 우리 기계화반 진렬장의것들을 전부 별판에 내다세우겠습니다. 일을 해야 기계지요.》

《개조하세요. 그럼 나는 우리 농장의 모든 논밭을 기계화포전으로 만들겠어요. 늦어도 5년안으로… 그담에는…》

《거짓말 마십시오. 그때까지 그냥 있겠습니까?》

《왜요? 쫓아내겠어요?》

그들이 웃으며 역을 나서자 거기 자전거우에 웬집이 또 하나 있었다. 성냥을 샀다는것이였다. 현심이 변명하듯 중얼거렸다.

《새집구경을 가야 할텐데…》

림옥은 처음 무슨 소린가 했다. 잠시후에야 그 뜻을 깨닫고는 큰소리로 웃었다.

《아니, 관리위원장님도 그런걸 다 압니까?》

떠들썩 고아대는 바람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다. 현심은 몸둘바를 몰라했다.

아무튼 그것은 놀라운 발견이였다. 어찌다 도시물림의 이 처녀가 이다지도 속속들이 농촌의 세태적인 관습에 밝은지 알수 없는 일이었다. 유쾌했다. 필경 그 유쾌한 기분이 림옥이로 하여금 무모한 강행군길에 나서도록 부추겼는지도 모른다.

《산보도 할겸… 우리가 언제 이렇게 걸어보겠

어요?》

사뭇 두눈을 새물거리며 내놓는 현심의 제안에 선뜻 응해버렸던것이다.

쇠불이는 자전거에 싣고 성냥은 현심이가 들었다. 그리고는 좀 질러간다는 여위천체방향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해는 뉘엿뉘엿 지평선너머로 찾아들고있었다. 모살이가 한창인 논에는 벼술이 우거졌다. 가늘고 긴 두사람의 그림자가 엄청나게 먼 동쪽포전 벼포기우에서 꾸물거리고있다. 현심은 벌써부터 축 늘어지는 성냥보통이를 이쪽저쪽으로 자주 옮겨쥐며 종종걸음으로 따라온다. 그때마다 림옥은 뒤돌아보며 걱정스러워했다.

《무겁지요?》

입은 그러하나 눈은 마냥 처녀의 얼굴을 살피고있었다.

오늘 현심은 무척 아름다웠다. 미색바지에 까만 소매짧은 셔츠를 입었을뿐인데 그것은 이 세상 어느 처녀도 따를수 없는 세련미를 나타냈다.

마을에서도 늘 저렇게 입지 않았던가. 수많은 녀인들속에 내다세운탓에 더 눈에 뜨이는것이 아닐가?

가득이나 소조원시절부터 《멋쟁이소조》라는 말을 듣던 처녀의 이와 같은 아름다움은 림옥이로 하여금 야릇한 위축감을 느끼게 했다. 늘씬한 키, 미출한 다리, 상큼한 목… 어울리지 않는것은 혹처럼 어깨에 둘러멘 성냥보자기뿐이다.

《좀 쉬어갑시다.》

마침내 림옥은 어느 한 수문옆에다 배낭을 내려놓으며 멈춰섰다. 현심이도 섰다.

《무겁지요?》

손수건을 꺼내 이마의 땀을 자근자근 누르며 이번에는 현심이가 걱정했다. 손수건의 함박꽃이 낯익다. 림옥이도 손수건을 꺼내들었다. 레의 그 손수건이였다.

《아이, 그걸 아직까지 가지고있군요.》

현심의 눈에 기쁨이 찰랑거렸다. 소슬한 저녁바람에 그 녀자의 자분치가 살랑살랑 나뭇긴다.

《아직까지라니요. 두고두고 보면서 관리위원장동무를 추억해야지요.》

림옥은 걸걸한 목소리로 웃었다.

불시에 현심의 눈까풀이 바르르 떨리더니 살포이 내리드리웠다. 그가 언짢을 때마다 나타내는 버릇이다. 그는 입술을 오무작거리며 뭔가 골똘히 생각한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다.

《림옥동문 제가 가길 바라나요?》

《그, 그야 뭐… 무슨 재간에…》

《그럼 또 귀먹은 욕을 하겠군요.》

《육이야 무슨… 오, 응당…》

림옥은 불현듯 현심이와 탁구치던 생각이 났다. 어쩐지 그때처럼 피동에 빠진 자신이 화가 났다. 자기도 처넣기를 해야 할텐데 공을 손에 잡을수 없는것이 안타깝다.

《자, 또 잡시다.》

이번에는 림옥이가 배낭을 메고 자전거를 타고서 천천히 몰아갔다.

자전거가 저너비사람을 헤가르기 시작했다. 여위 천물우에 한줄금 바람이 스치자 옅은 잔파도가 일었다. 번들거리는 물가에 웅크리고앉은 하얀 그림자들이 드문드문 보인다. 낚시군들이었다. 그것은 어둠의 포근한 담요를 덮고 깊은 명상에 잠겨 하루의 피곤을 풀고있는 자연의 침상을 지켜선 초병들처럼 엄숙했다.

현심은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무슨 고향에 대한 노래였다. 노래소리는 가벼운 풍선처럼 천천히 떠오르면서 푸르른 달빛과 암청색어둠이 어우러진 동쪽길로 살뻗살뻗 퍼져갔다.

기분이 좋았는데! 하고 림옥은 생각했다. 허나 반대로 현심이 불안에 쫓길 때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는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오늘 오후였다. 기계화반장 우길섭이 자동차를 가지고 관리위원회에 왔었다. 림옥의 마중을 가겠다는것이였다. 현심은 단마디로 잘라치웠다.

《반장동무 빈차운행이 죄스럽지도 않아요?》

《…》

《그럴 시간이 있으면 논판에 가루비료라도 한차 더 실어주세요.》

《옳지 않습니다. 관리위원장동무.》

길섭의 눈꼬리가 길죽해졌다.

《앙갚음을 그런 식으로 해서야 되오?》

그가 이렇게 화를 내는것을 처음 보았다. 길섭이 짜개져라 문을 후려닫고 나간 다음 현심은 창고에서 자전거를 꺼내가지고 읍으로 향했다.

이렇게 마련한 30리길이 지금 자전거바퀴 밑에서 빨리도 줄어들고있는것이다. 벌써 멀리 남산봉의 우중충한 봉우리가 보인다. 밤나무꽃은 그보다 더 지척에 있다. 그 언덕만 넘어서면 마을이다. 참으로 맹랑한 산보였다. 차라리 우길섭이 나섰을 때 그냥 내버려둘걸 하는 후회도 났다.

《관리위원장동무.》

림옥이가 가만히 불렀다.

《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난 노래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좋아합니다.… 뜨겁게 부를줄 알지요!》

《…》

《난 이제 노래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관리위원장동무가 떠난 다음의 마을은 펍 쓸쓸할거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그의 진심이였다. 지금 그자신이 성냥보 자기를 들고가지만 현심이야말로 성냥같은 처녀였다. 자기의 한몸을 깡그리 태워 더 큰 불을 일으키는 일군,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이처럼 자기의 한몸을 아낌없이 태울줄 안다면 밝은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 밝아질것이며 생활에서는 또 얼마나 큰 변혁이 일어날것인가. 마을에서 일어나는 전변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올해 농장에서는 1만톤농장의 봉화를 추켜들었다. 사람들은 그 목표를 향해 료원의 불길같이 일떠섰다. 과연 리현심관리위원장이 불씨가 아니란 말인가!

《이봐요, 림옥동무.》

현심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느덧 개구리소리는 뒤로 멀리 물러가고 풀벌레 우는 소리가 비발치듯 한다. 길은 나무그림자들로 얼룩얼룩했다.

《난 요즘에 와서야 그때 동무가 열매도 못 볼 나무에 두엄만 줄거라고 하던 말에 왜 대답을 못했던가를 알았어요. 뜨거운 사랑이 없었던거예요. 땅과 우리 사람들에 대한…》

참다운 행복은 뜨거운 사랑을 바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는 말뜻을 나는 이제야 알것 같아요.》

《참, 관리위원장동무도 그걸 아직…》

《현심이라고 불러주세요. 현심동무 하고 말이예요.》

《예?!》

《저도 영영 런포땅의 주인이 돼야 할게 아니나요.》

말을 마친 현심은 가슴울렁이는 두려움과 함께 먼길에서 돌아온듯 한 홀가분함을 느끼었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왔고 처녀의 고결한 녀마저 기꺼이 바치고싶어지는 이 땅에 더욱 가까이 다가설 마지막대문을 그는 마침내 두드린것이다.

그것은 그대로 뜨거운 불덩어리가 되어 총각의 가슴, 바로 심장 한복판에 확 들이박혔다. 림옥은 와플 놀라며 뒤돌아봤다. 그 서술에 자전거가 모로 군드러졌다. 림옥이 산비탈 밋밋한 풀판우에 번듯이 나가넘어졌다. 둘의 맹랑한 웃음소리가 방울소리처럼 줄달음쳤다.

머리우 사슴뿔마냥 얼기설기한 나무가지사이로 푸르른 달빛이 쏟아져내렸다. 밤꽃향기가 골안을 진동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밤꽃이 피었다는것을 의식하지 못하고있었다.

## 밀 천

리 성 식

훌륭한 인간을 만날 때처럼 삶의 의미가 새삼스럽게 깨우쳐지는 때는 없는가보다.

나는 취재길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

평범한 날들중의 어느 하루였다.

아침의 청신한 대기속에 집마당을 한창 쓸고있는데 길쪽에서 젊은 녀자의 쉼쉼한 웨침소리가 울려왔다.

《신발들을 주문하십시오.》

사무용가방을 옆에 낀 중키의 녀인이 집집의 문을 두드리고있었다.

나는 대뜸 그가 신발공장의 사출직장 작업반장임을 알아보았다. 며칠전 그곳에 경제선동을 나갔을 때 보았던 녀인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새해 신년사를 받아안고 그 강령적과업판철에 펼쳐나선 신발공장 로동계급을 고무하기 위해 현장에 달려나간 우리들은 생산자들과 함께 일하며 노래도 부르고 보람찬 하루를 보냈었다.

그날 아침 사출직장 작업장에 들어서서 질 좋고 보기도 좋은 신발들이 자동흐름선에 실려 척척 완성되어 나오는 기대들을 희한한 눈길로 둘러보던 나는 어느 한 곳에 무릎 발길이 멎어섰다.

한 녀성로동자가 유별나게 기장이 길거나 볼이 넓은 특이한 형태의 신발을 천채 조형기앞에서 씨름을 하고있었기때문이었다.

《저 동무가 완성작업반 반장인데 특이한 형태의 신발을 제작하느라 저렇게 애를 쓰고있습니다.》

우리를 안내하던 공장일군의 말이었다. 특이한 형태의 신발이란 다름아닌 남달리 발이 크거나 발바닥이 넓고 발등이 높은 사람들에 필요한 신발을 두고 하는 말이였다.

나는 그의 말뜻이 인차 이해되였다.

바로 우리 옆집에 체질이 남달라 늘 신발때문에 애를 먹곤 하는 처녀애가 있었던것이다.

발기장에 비해 앞볼이 불균형적으로 툭 퍼진지라 공장에서 계절생산되어 나오는 구두나 신발은 도무지 맞는것이 없었다.

그때마다 딸애의 신발때문에 안타까와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목격하곤 하던 나로서도 무척 속이 좋지 않았었다.

내가 잘 아는 친구의 형인 기계공장 제관공도 그 특이하게 큰 발때문에 새 신발을 한번 사신으려면 많은 고심을 들여야 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발에 맞는 신을 제작한다니 작업반장녀인이 무척 돋보였다.

그 녀인은 특이한 형태의 신발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고심을 했다고 한다.

몹시 감동되어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공장일군은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저 반장동무 우리 공장의 보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옥과 같이 깨끗하고 불길과 같이 뜨거운 마음을 지닌 저 반장동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것이 우리 공장의 밀천이라 할수 있지요.》

그 말이 쿵 우리의 가슴을 울리였다.

예로부터 경제를 발전시키자면 그 활성화의 첫 고리로서 자급이나 자원 같은 밀천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한 밀천은 재부를 마련하는 첫 단계이며 부흥의 바탕이기도 하다.

하다면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념원이요 리상이었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는 오늘날 우리의 밀천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밀천으로 온갖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신심에 넘쳐 강성국가를 건설해나가고있는것인가.

그것은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과 헌신의 정신이 아니겠는가.

즉 애국애민의 뜨거운 마음인것이다.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 한생을 깡그리 불태우시며 바쳐오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체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뜨거운 불길로 지펴주신 **김정일**애국주의가 바로 우리 강성국가건설의 커다란 원동력이고 추동력이라고 더불어 생각된다.

우리 행복과 번영의 밀천인 애국심!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복무정신을 간직하고 스스로 좋은 일을 찾아할줄 아는 우리 시대의 참된 애국자들!

그렇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으로 받들고 실천으로 구현해나가는 저런 애국자들의 뜨거운 마음, 숭고한 애국충정의 마음에 떠받들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령도아래서 이 땅우에는 인민의 리상과 만복이 꽃핀 사회주의강성국가가 반드시 일떠서고야말것이다.

나는 서둘러 작업반장을 소리쳐불렀다.

《어마나, 작가선생님.》

《수고많습니다. 저는 작가로서가 아니라 이곳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인사를 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갑시다. 우리 옆집에 신발주문할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봄정기를 머금은 이른아침의 거리에 즐거운 웃음소리 울려퍼졌다.

## 꽃은 피여날수록 아름답다

함 정 남

잇을수 없는 모습으로 가슴깊이 간직된다. 소박하면서도 짙은 향기를 풍기며 피어나는 꽃처럼 정겹게 마음속에 자리잡고 그 매력을 한껏 뽐내는 그 모습은 단편소설 《재부》 [전충일 작 《조선문학》 잡지 주체101(2012)년 9호]의 주인공의 모습이다.

조국이 어려운 길을 걸을 때 조국과 숨결을 같이하며 그 길에서 애국을 알고 헌신의 땀을 바쳐가는 주인공의 모습은 말보다 실천으로 조국을 받들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우리 시대 참다운 애국자들의 고결하고 아름다운 산모습이다.

소설에서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오늘의 대고조총돌격전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점차 자신과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조국의 만년재부를 창조해나가는 길에서 아름다운 한떨기 꽃으로 활짝 피어난 한 녀성의 성격성장과정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문학예술작품은 어떤 생활을 반영하든지 반드시 사람들의 혁명의식이 자라나는 과정, 정신세계의 변화발전과정을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단편소설 《재부》가 독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길수 있게 된것은 주인공의 성장과정, 즉 그의 정신세계의 변화발전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보여준 데 있다.

소설에서 주인공의 성격발전과정에 대한 형상은 그대로 이 작품이 제기하고있는 기본문제, 녀성의 참된 보람과 행복을 가정에서가 아니라 어머니조국과 숨결을 같이하고 조국의 재부를 마련하는 길에서 자기의 땀을 보탬줄 아는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제사상적해명으로 이어지면서 깊이있게 묘사되고있다.

작품의 주인공 — 《나》(최영희)는 희천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초기복무사관의 안해이다.

소설에서는 처음 주인공의 정신세계의 발전과정을 가정생활 초기 그의 사상정신상태를 출발점으로 하여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초기복무사관의 안해인 주인공 — 《나》에게 있어서 결혼후의 모든 생활이 결코 즐겁기만 한것이 아니였다. 평양산원에서 첫 아이를 낳고 퇴원하던

날 남편들이 끌고온 차를 타고가게 된 만족감으로 하여 즐거워하는 다른 산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남편에 대한 야속한 마음에 젖는 《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나약하고 어린 주인공의 정신세계를 볼수 있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날 오지 못한 남편에 대한 원망의 감정까지는 가지지 않았다. 《나》도 이 시대의 인간이기에 사생활보다 혁명과업을 중히 여기는 남편, 오늘에는 희천발전소건설장에 나간 그를 두고 세상에 소리쳐 자랑하고싶은 마음을 가진 녀인의 한사람이다.

여기에서 비록 아직은 완성되었다고는 할수 없으나 아름답고 고결한 주인공의 정신적아름다움을 찾아볼수 있다.

소설은 주인공의 이러한 아름다움을 디딤돌로, 출발점으로 하여 더 높은 의식발전의 형상으로 지향시켜나가고있으며 그 발전의 계기들에 대한 깊은 탐구로 우리 시대의 전형, 선군시대 애국녀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창조하고있다.

소설은 다음으로 생활의 여러 계기들과 밀착시켜 주인공의 성격발전과정을 진지하게 보여주고있다.

가족지원대와 함께 들끓는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은 《나》는 기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이 위훈의 전투장에서 자기의 남편도 만사람의 눈길을 모으는 건설의 한복판에 서서 이름떨칠것이라는 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믿었던 남편의 모습을 들끓는 언제우에서가 아니라 한적하기 그지없는 골재장에서 찾게 될줄이야. ...

그러나 이런 서운한 마음도 한순간, 교대운전수도 없이 낮과 밤을 이어가며 굴착기안에서 밥도 먹고 쪽잠을 자야 하는 남편의 지친 모습앞에서 남편에 대한 자랑의 감정은 뒤전으로 밀려나고 그를 위해 자기를 다 바치려는 안해로서의 분발심이 솟구친다. 하여 《나》는 세살잡이딸애를 본가집에 맡기고 다른 가족들과 함께 건설장으로 자진하여 달려나온다.

남편을 위하여는 그의 분발심은 이 건설장에서 새로운 미풍의 창조에도 이어진다.

어쩌다 짬이 생겨도 안해와 이야기를 나눌념도 못하고 피곤에 몰려 잠에 폴아떨어지곤 하는 남편의 모습에서 가슴아픔을 금치 못해하던 《나》는

마침내 굴착기운전법을 배워 모자라는 잠시간을 보태줄 결심을 굳히게 된다. 그리하여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른 굴착기에까지 찾아가 짬짬이 운전법을 익혀보았건만 남편이 잠깐 자리를 뜬 사이에 굴착기를 운전해보다가 하마터면 사고를 칠뻔하였다. 이 일로 남편의 꾸지람을 듣고, 굴착기운전이 자신에게는 너무도 힘에 부친것이라는 나약한 마음의 동요도 일으키고...

하지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정치위원의 지지속에 남편에게서 굴착기를 배우게 된다. 이날 《...나를 생각하는 당신의 그 마음을 모르는바 아니요. ... 그러나 우리 장군님의 로고에 비하면야 이 김윤일의 고생이라는게 도대체 뭐요?...》라고 눈물을 머금고 한 남편의 그 뜨거운 속삭임은 《나》의 가슴속에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는 말로 남게 되었다.

자기 한몸의 편안과 가정의 행복보다 조국위한 애국헌신의 길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 생각에 눈물짓는 남편의 모습에서 주인공이 받는 충격은 실로 큰것이였다. 그러나 그 순간에 주인공의 정신세계가 완성의 경지에 오른것은 아니었다.

소설은 이 생활의 계기를 새로운 의식발전의 전환적계기로 하여 주인공의 정신세계를 보다 진지하게 탐구하여 그러나감으로써 그 형상의 론리성과 감화력을 더욱 확대하였다.

부대정치위원이 굴착기운전을 배우려는 《나》를 지지해주었다는 소식이 건설장에 퍼지자 다른 굴착기운전수가족들도 발벗고 나서는 속에 이제는 《나》의 운전수준도 높아져 남편을 대신해줄수 있게 되었고 부부운전수들에 대한 소문도 온 건설장에 자자해졌다. 이것을 온 나라에 소개하자고 사진기자까지 내려온다. 남편과 나란히 신문에 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던 《나》는 《저 언제우에는 훌륭한 부부운전수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면서 취재를 거절하는 남편의 모습에서 다시한번 강한 충격을 받았다.

결사관철의 투사들이 살며 일하는 여기 이 희천땅에서 《나》의 존재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고 생각하는 주인공의 정신세계의 밑바탕에는 분명 새로운 모습, 한 가정의 울타리속에서가 아니라 시대와 집단과 동지들의 세계에로 한걸음 전진한 새로운 지향이 흐르고있다.

신문에 나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눈물겹게 느끼면서도 먼 후날 딸애가 볼수 있게 얼음버개가 하얗게 들어붙은 굴착기리대판에 등을 기대채 남편과 나란히 소박한 사진 한장만 남기는 주인공의 형상에서 남편과 함께 거창한 애국의 바다에 마음을 합쳐가는 그의 정신세계를 엿볼수 있다.

드디어 《나》는 남편과 당당히 맞교대를 하게

되었다. 이제는 자기도 지원자가 아니라 남편과 같이 이 건설장의 당당한 전투원이라는 자부심이 주인공의 마음속에 물결친다. 그래서 남편보다 골재를 한바가지라도 더 푸려고 쉽게 운전칸을 내여주려 하지 않는 이악쟁이가 되었다. 그런 속에서 시간마다 바뀌여지는 속보판에 《나》의 이름이 하루종일이나 나있었다 한다. 운전사의 이끌림에 끌려다 지워진 속보판에서 겨우 남은 이름자를 보고 이 사실을 알았건만 그 순간 이제는 자기의 이름이 낡다는 기쁨보다 자기를 위해 마음쓰는 동지들의 뜨거운 마음에 더 고마움을 금치 못해하는 《나》!

이런 《나》를 위해 본인이 보지 못한 속보의 글을 굴착기운전칸 앞시창의 한구석에 누구인가 붙여놓은 학습장크기의 전투소보—《언제우에 활짝 핀 아름다운 꽃!》

주인공은 이렇게 성장하였다. 딸애와 남편의 기쁨속에 자기의 기쁨을 찾던 한 가정의 녀인으로부터 동지들을 알고 집단을 알며 조국을 아는 녀인으로 성장하였다. 언제건설을 끝마친 그날 축하의 꽃보라와 꽃다발속에 묻혀 조국의 만년언제우에 수놓은 자신의 모습을 소중히 새겨안아보며 샘솟는 눈물을 금치 못하는 주인공의 공지에 찬 성장의 모습은 얼마나 뜨겁게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게 안겨오는것인가!

소설은 이처럼 평범한 이 나라의 한 가정주부로 부터 순결한 애국의 녀을 소중히 간직한 조국의 딸로 성장하는 주인공의 정신세계변화발전과정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형상하였다.

소설은 또한 주인공의 의식발전과정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리기 위한 예술적탐구에 있어서도 좋은 경험을 보여주었다.

작품에서는 주인공의 내적체험과정을 섬세하게 그리기 위하여 1인칭형식을 취하고있으며 《나》의 내적심리와 그 변화발전과정을 보여주는데로 묘사를 집중하였다. 특히 주인공의 성격발전과정을 잘 보여줄수 있는 다양한 계기들과 정황을 옹골케 설정하고 세부적으로 그리면서도 《나》의 심리변화과정과 밀착시켜 깊이있게 묘사하고있다. 작품의 이러한 특성은 소박하고 아담하면서도 감동깊은 형상의 여운속에 주인공의 독특하고 개성적인 성격과 아름다운 생활의 모습을 감명깊은 화폭으로 간직하게 한다.

우리 작가들은 이러한 창작경험에 기초하여 현실주제소설창작에서 위대한 번영의 새시대와 더불어 끊임없이 탄생하는 선군시대 애국의 전형들이 지닌 높은 정신세계의 변화발전과정에 대한 깊이있는 묘사로 작품의 형상적감화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할것이다.

## 애국심의 뿌리는...

—시초 《조국과 녀인》을 두고—

정 광 수

이 땅에 사는 녀인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어있는 소박하면서도 뜨겁고 절절한 애국심의 뿌리는 어디서 내린것인가?

이에 대한 형상적해답을 우리는 시초 《조국과 녀인》(럼형미 작)의 진실한 생활화폭을 통하여 찾을 수 있다.

작품에서는 사랑하는 자식에 대한 진실한 체험과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펼쳐보이면서 한없이 귀중한 내 나라, 내 조국에 바쳐가는 이 나라 녀성들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심은 자기 부모처자에 대한 사랑, 자기 고향마을과 일터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싹트게 되며 그것이 나아가서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자리나게 됩니다.》

작품은 선군조국이 있어 우리 녀인들의 행복한 생활이 있다는 사상을 추상적인 개념이나 주장이 아니라 생동한 생활적화폭으로 밝히면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우는데서 무한한 기쁨과 보람을 찾는 이 나라 녀인들의 사상감정세계를 시화하고있다.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너무나 명백한 생활의 진리를 절절한 체험세계속에서 생동한 생활감정에 굴절시켜 형상해낸 여기에 이 작품이 거둔 창작성과가 있다.

시초에서는 어머니조국에 대한 사상감정을 소박하고도 진실하게 펼쳐보이고있다.

사랑하는 자식을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보내는 순간에 서정적주인공은 한 가정주부의 이름과 나란히 하나로 불리우는 더없이 위대하고 신성한 조국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감정을 토로하면서 참다운 애국에 대한 사색을 펼쳐나간다.

...

크나큰 조국도 어머니!  
이 작은 녀인도 어머니!

너무도 엄청난, 그러면서도 너무도 절절한 대비이다.

한 자식의 밥그릇조차 변변히 채워줄수 없었던 시련의 나날에 이 나라의 평범한 어머니가 느낀 조국에 대한 사상감정은 수천만자식들을 한품에 안고 그 운명을 지켜 선군의 총대를 높이 든 위대한 어머니조국, 모진 시련과 고난을 이기며 후대들에게 천가지, 만가지 복을 마련해준 은혜로운 품에 대

한 고마움이였다.

하기에 이 나라의 녀인들은 조국을 지키는 조국보위초소에 사랑하는 자식들을 내세우는것을 너무도 당연한 의무로, 행복으로 여기는것이며 거기서 진정한 애국의 보람을 찾는것이다.

...

너를 키운 이 땅과 푸른 하늘  
너를 믿는 사람들의 정다운 눈빛  
사랑한다 말로써 하지 말어라  
사랑은 제 피와 땀 바치고서야  
진정 제것되는 값비싼 재부거니

—시 《제일 큰 대학》중에서—

예로부터 어머니의 힘은 강하며 역세다고들 말해왔다.

그러나 이 나라 모든 어머니들의 모성애를 다 합친것보다 더 뜨겁고 무한한 사랑이 있으니 그것은 이 나라 녀인들과 함께 그들의 자식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나라의 기둥감으로 어엿이 내세워준 어머니조국의 사랑이였다.

서정적주인공은 그러한 생활의 진리를 자식을 초소로 떠나보내는 순간에 스스로 자각하고있다. 하기에 끝끝한 자식앞에서 어릴적처럼 이름을 부르기도 서슴어지는 순간 녀인은 이렇게 당부한다.

...

아들아 부디 명심하거라  
조국을 버린 자식은 뿌리잘린 나무  
다시는 불러볼 어머니 이 세상에 없음을!

—시 《조국과 녀인》중에서—

그렇다. 조국을 떠나선 아들도 어머니도 뿌리잘린 나무와 같다.

《뿌리 잘린 나무》가 되어서는 조국을 어머니라 부를수 없다는 서정적주인공의 웨침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정서적여운을 남겨준다.

조국의 《그 품에/ 귀한 아들 서슴없이 떠맡기고》 초소에 내세운 자식에게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길에서 값높은 생을 빛내이라고 절절한 소원과 믿음의 당부를 하는 어머니의 서정토로는 절절한 생활체험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더욱 감동깊게 안겨온다.

## 치마바위산

평안북도 철산의 운암산성에는 그 생김이 녀성들이 입는 치마처럼 생겨 치마바위산이라고 부르는 바위산이 있다.

원래 이 산은 흙산이었다고 한다. 그러던것이 지금으로부터 수백년전 하늘의 조화로 치마처럼 가파롭게 생긴 바위산으로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고려시기 우리 나라에 침략하여왔던 몽골침략군은 가는 곳마다에서 대참패를 당하고 점점 쫓겨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구주성(오늘의 구성)싸움에서 패전한 몽골침략자들은 살아남은 놈들을 모두 묶어모아가지고 서해쪽으로 도망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놈들의 한무리가 철주(오늘의 철산군)의 운암산성쪽으로 몰려들었다.

이때 운암산성을 지키던 군사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수적으로 훨씬 우세한 적들을 대상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날이 갈수록 마지막 발악을 하며 달려드는 원쑤들과의 싸움은 더욱 가열하고 힘겨워졌다. 게다가 날이 감에 따라 식량도 화살도 다 떨어지고 굴러던질 돌마저 다 결판나기 시작하였다. 하나, 돌 희생자들이 늘어나고 군사들과 백성들속에 지쳐 쓰러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안타까운것은 원쑤들에게 날려보

낼 화살이 다 떨어진것이였다.

군사들이 장검을 빼어들고 마지막결사전을 준비할 때였다. 성안의 녀인들이 치마폭에 주먹돌들을 담아 날라왔다. 군사들은 화살대신 돌팔매질로 원쑤들의 상판을 후려갈기기 시작하였다.

사방에서 놈들의 비명소리가 울리고 고려군사들이 화살이 다 떨어졌다고 기고만장해서 졸병놈들을 울리밀던 적장놈도 눈깔이 뒤집혔다.

바로 이때였다. 뜻밖에 하늘에서 천둥소리가 울리고 벼락이 치더니 원쑤들이 까맣게 달라붙어 기여오르던 산이 갑자기 가파로운 바위산으로 변하는것이였다.

그리고 《짱, 파르릉-》 하는 하늘땅이 뒤집히는것 같은 요란한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돌사태가 쏟아져내리며 침략군놈들의 머리우에 죽음의 벼락이 들썩워졌다.

그리하여 운암산성에 기여들던 몽골침략자들은 이 바위산에서 한놈도 살아가지 못하고 모두 황천객이 되었다. 그후 이곳 사람들은 새로 생겨난 이 바위산이 신통히 치마처럼 생겼다고 하여 치마바위산으로 불렀다고 한다.

옥 성 일

서정적주인공은 한 어머니의 사랑만을 받으며 자란 아들이 아니기에 조국이라는 위대한 어머니의 귀중함을 목숨처럼 간직할것을 아들에게 바라는것이며 애국의 의미를 알고있는 아들이기에 조국을 지키는 결전장에서 용맹하게 싸우리라는 믿음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스스로 없어보는것이다.

작품에 관통되고있는 사상감정은 한 아들을 키운 어머니의 감정세계에 굴절된 조국에 대한 고상한 애정이며 그 조국을 지키고 빛내갈 숭고한 애국의 마음인것이다.

시에서는 사상적요구에 생활을 따라세우려고 한것이 아니라 생활속에서 그러한 사상감정이 스스로 우러나오도록 체험을 깊이하고 사색을 기울임으로써 감명깊은 시형상을 창조할수 있었다.

이런 사상감정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조국이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운명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칭송의 사상감정에 그 기초를 두고있는것이다.

이처럼 시초 《조국과 녀인》은 선군조선에 사는 이 나라 녀인들의 숭고한 애국심은 바로 조국의 운명이시고 우리 혁명의 승리이시며 인민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뜨거운 사상감정에 그 뿌리를 두고있는것임을 생활적으로 감명깊게 형상해냈다.

거대하고 절절한 생활철학을 구체적이고 평범하면서도 의미깊은 생활감정속에서 밝혀낸 여기에 시인의 창작기교와 작품의 형상적묘미가 있다고 볼수 있다.

특히 시초의 형태상특성에 맞게 참신한 시적세부와 특색있는 시적표현들을 탐구하여 재치있게 활용한것은 녀성미가 풍기는 다정다감한 정서속에서 시의 생명인 서정성을 부여하여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한층 높이는데 효과적인 작용을 하였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이 작품에서는 이미전에 독자들의 인상속에 깊은 감명을 남겼던 시형상들의 반복과 답습으로 인하여 구태의연한감을 느끼게 하는 아쉬움을 남겨놓고있다.

비반복성을 생명으로 하는 창작에서 이러한 부족점은 심오한 시사를 주고있다.

실례로 《어째서 그 이름은 하나일가/ 크나큰 조국도 어머니/ 이 작은 녀인도 어머니》라는 표현은 이미 나온 시에서 느낀 감정을 편상케 하고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시대정신의 반영과 구체적인 생활감정속에서 크나큰 사상주제적문제를 감명깊게 형상해내었다.

우리 시인들은 격동적인 시대의 요구에 맞게 시형상창조에서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생활적으로 훌륭히 형상해냄으로써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 삼의 뿌리



박 경 철

## 1

새날을 알리는 방송소리와 함께 갈매기섬은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집집마다 병긱병긱 전기불이 켜지고 화 수도물 나오는 소리가 울린다.

아낙네들은 어느새 부엌안을 부지런히 맴돌지만 방안에서는 남정들과 아이들이 아직도 폭신한 이불속에서 움지려거릴 시간이다.

하지만 한춘삼은 꿈 잠자리를 털고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매일 아침 마을과 분조포전을 한바퀴 돌아보는 습관이 있었던것이다. 마을의 좌상이며 이제는 이 간석지농장의 주인이라는 책임감에서랄가.

춘삼은 먼저 또 한밤 자기를 품어준 보금자리가 보고싶어서랄가, 마당가에 우뚝 선채 자기 집부터 휘돌러보았다. 어렵פות한 려명속에서도 번듯하게 잘 지은 새집이라는것이 대뜸 알린다. 작년 마가울 천산식료공장 초급당비서 안용국이 직접 두대의 자동차에 로동자들과 집재목을 싣고와 불이 번쩍 일게 세워준 집이었다. 그후에 또 이사집을 싣고올 때에도 함께 따라와 세간품을 하나하나 방이며 부엌에 꺼들여 제자리에 놓아주던 그의 다심한 모습이 지금도 눈에 삼삼하다.

걸음을 옮겨 대문밖을 나선 춘삼은 킁킁 개짓는 소리를 귀맛종게 들으며 마을을 돌기 시작했다. 여라문채의 집앞을 지나치며 보니 싣통히도 부엌창가에는 앞가슴이 봉긋한 아낙네들의 모습만이 비껴있다. 그런데 단 한집, 분조의 막내라고 할수 있는 리정식의 집 부엌창가에는 다른아닌 그자신의 갱뽕한 모습이 비껴있었다.

다른 집들과는 달리 이 집에서는 주객이 전도된격으로 찍하면 남자가 부엌주인노릇을 하고 녀자는 손님격이 아니면 료리견습생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드문하다. 한것은 리정식이 간석지에 오기 전에 호텔료리사로 일한 경력을 가지고있는데다가 꼼찍이 사랑하는 안해가 요사이 산전휴가를 받은터여서 그의 손이 물에 젖는것이 벌써부터 싫어서라고들 마을아낙네들은 즐겁게 입방아를 찧고있었다.

그 입방아소리들이 또 금시 귀전에 들려오기라도 하는듯 춘삼은 느슨한 옷음을 지으면서 동구밖에 우중충 늘어선 바위우에 올라섰다. 그러자 대계도와 외곽제방의 웅장한 자태가 가깝게 바라다보이고 그뒤의 저류지와 내곽제방 또 그뒤에 무연하게 펼쳐진 분조논벌이 한눈에 안겨온다. 그러니 바다를 막기 전에 갈매기가 많이 깃들었다고 하여 《갈매기섬》이라고 불리우며 마치 바다우에 떠있는 큰 배처럼 솟아있던 이 섬은 이제는 수평선이 아니라 지평선에 솟아있는 섬아닌 섬이 되었다.

허나 섬이었다는 흔적은 오랜 세월 파도에 씻기워 매끈하게 다듬어진 이 기슭의 바위들이며 거기에 해쓱해쓱 돌아있는 조개자국들에 너무도 방불하게 남아있었다.

이사는 첫날 손자 성호가 이 바위우에 올라 낚시질흥내를 내는것을 보면서 한춘삼은 《이제는 여기서 물고기가 아니라 옥백미를 낚아야 한단다. 자, 봐라— 문전옥답이라더니 얼마나 기름진 땅이냐. 정말 산골에서는 구경조차 할수 없는 옥토가 끝간데없이 펼쳐져있구나.》 하며 아이들처럼 환성을 올렸었다.

그때처럼 올해 첫 농사에서부터 옥백미를 흠뻑



낙을 흐뭇한 생각에 춘삼은 바위에서 훌쩍 뛰어내려 분조포전으로 걸음을 다우쳤다.

봄날의 싱그러운 아침공기를 폐속깊이 들이키며 몇발자국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바삐 따라왔다. 돌아보니 마을의 두번째 좌상이며 분조원인 로천금이였다.

《밤새 안녕하십니까?》

《오, 자넨가. 일찍 나왔구만.》

《나야 여기 간석지토배기가 아녘니까.》

한발 앞서며 대꾸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남다른 긍지와 우월감이 어려있는듯 싶었다.

이윽고 갈매기섬의 활기로운 아침출근시간이 되었다.

붉은 기발을 추켜들고 작업도구들을 메거나 든 분조원들이 떼를 지어 별로 나가기 시작했다.

맨앞에 키가 크고 오래된 농립모를 푹 눌러쓴 로천금이 서서 가볍게 걸어가는데 마치 그가 대오를 이끌고가는 분조장인듯싶다. 하지만 실지 분조장은 그뒤에서 걸어가는 한춘삼의 아들 한일철이였다. 새해에 잡혀 그가 이곳 갈매기섬마을 분조장으로 임명되었던것이다. 그뒤로 리정식을 비롯한 분조원들, 이를테면 이름이며 나이, 성별이며 성미, 취미가 서로 다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늘어서고 그들을 모두 떠밀고가는듯 한춘삼이 맨뒤에서 무게있는 걸음을 옮겨놓고있었다.

유독 리정식의 안해만이 마을에 남아 조개껍질 쪼각들이 드문드문 박힌 담장가에 부끄러운듯 서서 이 광경을 살며시 바라보고있었다.

얼마후 현장에 도착한 분조원들은 분조장의 작업지시에 따라 논정리에 달라붙었다.

모든것이 흰눈밀에 짝 얼어붙고 차디찬 바다바람만 쉬임없이 몰아치던 겨울에는 별로 할일이 없는듯싶더니 봄이 되자 일감이 산처럼 나타났다. 내부망공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기본물길과 용수로, 퇴수로, 논두렁들은 형체만 되어있어 그것을 제대로 완성해야 했고 불도젤자국이 력력한 논판들도 수평고루기를 적지 않게 해야 했던것이다.

오늘도 한춘삼은 로천금과 리정식과 한조가 되어 논두렁가래질을 하게 되었다. 가래장은 술선 로천금이 쥐었다. 춘삼이와 정식이 교대로 쥐자고 해도 놓지 않았다. 오랜 농사꾼이며 간석지토배기인 자기가 아무럼 가래질을 해도 진출자들보다야 낫겠지 하는 배심이였다. 로천금의 집은 원래 갈매기섬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10리정도 떨어진 물에 있었다.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대계도간석지가 완성된 다음부터 소규모적이기는 하지만 간석지농사도 좀 지어보았다고 한다.

이곳에까지 내부망공사가 완공되어 지난해에 해

곡리라고 이름지은 새 간석지농장이 생긴 다음부터 보다 큰 꿈을 안고 갈매기섬으로 옮겨왔던것이다. 하긴 현재 그의 존재는 분조에서 무시할수 없는것이였다. 대개가 진출자들이고 간석지토배기는 얼마 없는탓으로 하여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는 분조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온 겨울 그가 선생이 되어 강의를 널리 한 덕에 이제는 분조원들모두가 간석지농사에 대해 일정한 파악과 자신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가지 아쉬운것은 간석지토배기인 자기가 분조장이 못된것인데 그래선지 그는 늘 책임적이고 앞자리에 서려고 애쓰는것이 알렸다.

《자, 어서 가래장을 인주게. 우리 두 가래장쥐는 법을 배워야 할게 아닌가.》

한춘삼이 거둬 고집을 써서야 로천금은 어물어물 가래장을 넘겨주었다. 서툴지만 한춘삼은 결싸게 삽질을 해나갔다. 가래장을 움직이면서 다시 보니까 땅은 그야말로 지고가고싶을 정도로 탐이 났다.

여기저기에 송송 갈계구멍이 나있고 소금기가 허영게 내배인 거무스레한 땅, 오랜 세월 쌓이고 쌓인 퇴적층으로 이루어진 이 땅은 찰기가 어찌나 많은지 삽날에 흙밥이 묻으면 잘 떨어지지도 않았다.

이런 땅에서라면 정당 10톤쯤은 식은죽먹기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15톤쯤은 암만이고 낼수 있을것 같았다.

《허- 여기 오면 누구나 저절로 농사꾼이 되고 싶겠군. 안 그런가? 정식이.》

기분이 붕 뜬 한춘삼이 이렇게 묻자 정식은 가래줄을 힘껏 당기느라 흥조가 물든 그 얼굴에 긍정의 미소를 피워올렸다.

《웁아요. 아바이, 난 말예요, 이 땅을 볼 때마다 요리하면서 썰군 하던 비계덩이가 생각나군 한답니다.》

《그러니 이 땅이 비계덩이같단 말이지. 정말 요리사다운 표현일세.》

한춘삼이 이렇게 칭찬해주자 로천금이라도 한마디 던지는것을 잊지 않았다.

《참 정식인 도소제지에 있는 호텔에서 요리사로 일했다지. 내 듣기엔 갓 결혼한 몸으로 안해와 함께 자원진출했다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온 호텔이 떨쳐나 환송두 크게 해주구...》

《예. 그땐 정말 산도 떠웁히고 바다도 메울듯한 용기가 온몸에 막 솟구쳐올랐지요. 그런데 진작 여기 와서 일해보니 앞으로 제구실을 꽤 해내겠는지 걱정이 큼니다.》

《음, 참이니 그럴수 있지. 형님, 정식이가 힘들어하는것 같은데 흙밥을 좀 작게 쓰시라구요.》

로천금이 권유했지만 한춘삼은 한본새로 무겁게

흙밥을 떠올렸다.

《물론 옥망과 실천사이의 거리가 먼 법이지. 그러나 그것두 사람의 의지만 강하면 문제될것이 없네.》

《명심하겠어요.》

선선히 대답하는 정식을 힐끗 쳐다보던 한춘삼은 그가 몹시 낮익다는것을 느꼈다. 이것은 그를 처음 보던 때부터 벌써 몇번째로 받는 느낌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느낌이 왜 생겨났는지 아직은 딱히 알수 없었다.

그때로부터 보름 가까운 나날이 흘렀다. 계절은 어느덧 4월 상순에 접어들어 날씨는 한결 따뜻해지고 수로들과 논배미들, 논두렁들은 완연하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있었다.

어느날 한춘삼은 내곽제방쪽의 마지막논배미에서 바닥정리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 바닥은 햇내기 불도젤운전수가 밟았는지 바닥굴곡이 매우 심하고 방 두칸만 한 개고자리는 채 메우지도 못하여 움푹 패여있었다. 한춘삼은 로천금과 리정식과 함께 한삽두삽 품들여 바닥을 정리해나갔다. 한동안 별로 말이 없이 수격수격 일하던 로천금이가 개고자리에 이르자 장승처럼 굳어졌다.

《어휴, 이걸 언제 다 메운담.》

《시작이 절반이라구 어서 메웁세.》

한춘삼이 제먼저 맞들이를 얻어왔다.

리정식이가 흙을 담아주고 둘이서 나르기 시작했다. 개고자리는 얼마나 깊은지 아무리 흙을 쳐넣어도 흙탕물만 올려튀기며 훌쩍훌쩍 다 받아먹었다.

《생겨먹은대로 그냥 놔두시다레. 난 말예요, 현재 있는 땅조차도 다 제대루 다뤄낼것 같질 못합네다.》

연방 맞들이질을 하던 로천금이가 더 못 참겠다는듯 짜증섞인 소리를 냈다. 처음엔 열성이 높던 그도 매일 흙을 다루는 일에 이제는 어지간히 지친 모양이었다.

《힘이 빠진것 같은데 좀 쉬고 하자구.》

세사람은 논두렁가녁에 풀썩풀썩 주저앉았다.

땅우에서는 따뜻한 해별을 받아 아지랑이가 아물아물 피어오르고있었다. 오늘은 이상하게도 바람조차 불지 않는 따뜻한 날씨가 로천금의 눈도, 리정식의 눈도 어느새 소르르 감겨들고있었다.

한춘삼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느닷없이 갈마드는 회억에 빠져들었다.

## 2

희미한 별빛이 우중충한 산들에 둘러싸인 천산읍을 조용히 비치고있던 지난해 가을이었다.

이 읍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나지막한 언덕에 백

양나무 한그루를 앞세운 집 한채가 폭 뿌리박힌듯 서있었다. 한춘삼의 집이었다. 길을 보나 안을 보나 든든히 자리가 잡히고 기쁨기가 흐르며 펍 안정감이 나는 집이건만 한춘삼은 어째서인지 이밤 쉬이 잠들지 못하고 손자결에 누워 이리궁식 저리궁식 몸을 뒤채기만 했다. 올해 선일곱을 보내는 그였지만 비교적 부한 몸집에 머리칼이 까맣고 너부죽한 얼굴색도 불그스레한것이 표정을 봐선 아무 근심걱정없는 사람같았다. 하지만 가늘게 쪼프러진 눈가를 살펴보면 짙은 고뇌의 빛이 어려있었다.

춘삼은 주섬주섬 옷을 입고 대문밖에 나섰다. 어둠속에 묻힌 읍거리가 어슬픈 룼곽을 그리며 안겨왔다. 이제는 깊은 밤이다나니 공공건물들이며 집집의 창가마다엔 불빛이 꺼진지가 퍼그나 되었다. 다만 읍거리 오른쪽강기슭에 덩지 크게 틀고앉아 있는 식료공장마당에 축수높은 외등들이 환히 켜져있을뿐이었다. 그 외등빛에 블록을 쌓거나 혼합물맞들이를 들고뛰는 사람들의 모습이 언뜻언뜻 보여왔다. 저속에는 아들 한일철과 며느리도 있었다. 요즘 원료창고를 더 크게 증축하느라 저녁술을 놓기 바쁘게 달려나가 밤을 새워가며 일하고있는 그들이었다.

원료창고를 크게 증축한다는건 원료가 많다는것을 의미하며 원료가 많다는건 그만큼 생산량이 늘어나고 군내 인민들이 그 덕을 본다는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천산군이 흥하는 징조가 아니겠는가.

하지만 지금 한춘삼의 기분은 그리 밝지 못하다.

《휴— 결국은 이 애비가 문제란 말이지.》

별안간 한춘삼은 이런 알지 못할 소리를 뇌었다.

그리고는 눈길을 돌려 대문옆에 우람차게 서있는 백양나무를 올려다보았다. 한아름이 넘는 밑둥에 우로 올라가면서 굽은 가지들을 사방으로 펼친채 거방하게 서있는 이 백양나무로 말하면 한춘삼이 27살 흥안의 시절 이 천산땅에 뿌리내린것을 기념하여 안해와 함께 심은것이였다.

그때 한줄기의 실버들갈던 나무가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세월이 세번이나 흐른 그 나날에 뿌리 또한 넓고 깊숙하게 내려 그 어떤 광풍에도 넘어지지 않고 거목으로 꺾끗이 자랐다.

(만일 이제 저 나무를 뿌리채 떼서 다른 고장에 그냥 옮겨심는다면 무척 힘들테지.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그래서 옛날부터 늙으면 자리를 옮기지 말라고 일러왔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춘삼의 심경이 이렇게 복잡한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며칠전 일요일이었다. 그날 공장에서는 휴식 겸 대계도간석지참관을 조직했다.

여기에는 장반에서 일하는 아들과 산파실가공반

에서 일하는 머느리가 선참으로 뿔뿔했다.

그런데 그날 날이 퍼그나 어두워서 돌아온 아들의 안색이 그리 밝지 못했다.

눈빛이 어두운 얼굴로 말도 묻는 말에나 건승 대답할뿐이었다. 한춘삼은 의아해났다.

세상에 소문난 대계도간석지에 다녀왔으면 웅당 눈에 광채가 돌고 당사자가 먼저 자랑거리를 줄줄이 쏟아내야 정상이 아닌가.

더구나 아들은 군대에서 제대되기 2년전에 받았던 표창휴가를 이 간석지건설장에 고스란히 바친 연고까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아침에 남달리 감개 무량한 얼굴로 기쁘게 떠나갔던 그가 대체 웬일이란 말인가. 머느리의 눈치를 보니 그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고 캐어물으니 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곤하실텐데 어서 쉽시다.》 하고는 미닫이문을 드르륵 열고 옷방으로 올라가버리는것이였다.

한춘삼은 더 알아보고싶었으나 단념하고말았다. 즐거운 참관길이기도 하지만 뜻밖의 상서롭지 못한 일이 있을수도 있지 않는가. 하루이를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본래의 기분으로 돌아올텐데 굳이 알자고 할노릇이 뭐란 말인가.

그런데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아들의 기분은 달라지지 않았다. 자주 한숨을 내뿜며 뭔가 고민하는듯 한 표정이였다. 밤에도 인차 잠들지 못하고 뒤치락거렸고 밥을 먹다가도 멍하니 무슨 상념에 골몰하기도 했다.

한춘삼은 사연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날 오후 초급당비서 안용국을 조용히 만났다. 그 자리에서 뜻밖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였다.

…오전 9시경에 대계도간석지에 도착한 일행은 먼저 기업소에 꾸려진 연혁소개실부터 들렀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우리 나라 굴지의 힘있는 기업소로 자라나 바다를 정복하는 영웅적투쟁으로 수많은 새땅을 얻어낸데 대한 해설을 듣고난 일행은 이어 날바다 한가운데로 억척같이 뻗어간 수십리제방을 돌아보았다.

대계도에서 바다도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점심 식사까지 한 다음 그들은 가을걷이가 한창인 간석지벌로 향했다. 그러던 그들은 뜻밖에도 불도젤바퀴자국만 나있는 거무스레한 빈땅과 마주서게 되였다.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은 저저마다 흙을 한줌씩 쥐어보면서 정말 땅이 아깝다고 아쉬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안내자가 나직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내부망공사를 하는 차레로 농장들이 생기다나니 여기 땅은 솔직히 몇년 묵게 되였습니다. 하지

만 이곳에도 이번에 해곡리라고 이름지은 간석지농장이 생겼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난문제는 역시로렵입니다.…》

지금껏 안내자의 얼굴에 함뿔 어렸던 궁지와 자랑은 순간에 안타까움으로 바뀌어졌다. 그러자 모두들 입을 다물고 덤덤히 서있었다. 이때 안용국은 남달리 불다못해 거뭇게 변해버린 한일철의 얼굴을 띄어볼수 있었다.

이윽고 빠스는 귀로에 올랐다.

얼마나 달렸는지… 그때까지 한마디의 말도 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한일철이가 옆에 앉은 안해와 무슨 말인가 진지하게 나누고나서 갑자기 안용국의 곁으로 다가왔다.

《저… 비서동지…》

《왜 그러오? 일철동무.》

《제가 해곡간석지농장으로 진출하면 안됩니까?》

안용국은 꿈쩍 놀랐다. 좁전에 간석지를 다룰 로력문제를 놓고 안타까와하는 안내자의 말을 듣고 자기도 생각이 많았는데 한일철은 선뜻 그곳으로 진출할 궁리까지 했으니 말이다.

《안되기야 뭘, 로동계급이 농민을 돕는거야 응당한 일이지. 그렇지만 이건 심각한 문제요. 운명적인 문제란 말이요.》

《알고있습니다. 전 제대되기 2년전에 비록 보름동안이기는 하지만 이곳에서 간석지건설자들과 함께 일해보았습니다. 그때 바다를 막아 새땅을 얻어내는 일이 얼마나 힘든가를, 때로는 피와 목숨까지도 바쳐야 한다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래서선지 그때 간석지건설자들은 저를 귀중히 여겨주면서 〈간석지의 아들〉이라고까지 값높이 불러주었습니다. 그후 전 이 간석지가 완공되었을 때 이곳에 자기의 땀도 습배여있다고 자부해왔지만 이렇게 묵고있는 땅이 있는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제대될 때 곧장 이곳으로 달려왔을걸 하는 후회도 생깁니다. 지금껏 조건도 좋고 잘 꾸려진 식료공장에서 편안히 살아온 것만 같아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비서동지, 전 이미 안해와 함께 결심했습니다. 저의 결심을 승낙해주시시오.》

한일철의 불같은 호소에 안용국은 한순간 난처해졌다.

《음… 그거야 본인의 의사에 따른것이지 내가 승낙하고말고가 있다. 다만 내가 걱정스러운것은 동무 아버지요.》

《예? 우리 아버지 말입니까?》

《그렇소. 동무 아버지야 이제 이 천산땅에 깊숙이 뿌리내리지 않았소. 고향인 도시를 떠나 30년 세월을 우리 식료공장에서 보내며 오죽이나 많은 일

을 해놓았소. 정말 이제는 잘사는 군으로 전변된 이 천산땅이야말로 식료공장과 더불어 동무 아버지의 한생이 깃들어있는 행복의 보금자리라고 할수 있지. 이제는 자기 고향과 같고 자기 살점과 같은 이 땅을 떠난다는건 아버지로서 쉽게 용단을 내릴수 없는 운명적인 문제가 아닐가?...》

그 말에 한일철은 그만 큰 실망을 느낀듯 고개를 떨구고말았다....

《일인즉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철동무가 고민하는것 같은데 너무 그러지 말라고 일려주십시오. 그리구 전 일철동무의 정신세계를 높이 삼니다. 그런 생각을 한것자체가 얼마나 크고 훌륭합니까.》

안용국은 따뜻한 어조로 뒤를 달았으나 오히려 한춘삼의 가슴속에 서늘한 회오리를 일으켰다.

속이 무죽한채 그와 헤어진 한춘삼은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퇴근길에 올라서도 두발에 무거운 추가 매달린듯 하여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시라소니같은것!) 하고 속으로 아들을 욕하면서도 아들로서는 어쩔수 없다는 생각이 뒤따르는것이였다. 그러니 이제는 모든것이 자기한테 달려있는 셈이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그때문에 지금껏 잠들지 못하고 속을 태우다가 종시 밖으로 뛰쳐나온 한춘삼이였다.

그의 눈길은 여전히 우람차게 서있는 백양나무에 못박혀있었다. 어디선가 소슬한 바람이 불어와 누런 잎사귀가 드문드문 매달린 잔가지들을 흔들여놓는다.

순간 30년전 실버들갈던 이 나무를 심던 일이 어제런듯 생생히 되살아나며 그 어떤 뜨겁고도 열렬한것이 파도마냥 흥벽을 치면서 펄펄 끓어오르는것이였다. 잊을수 없는 그해 가을 한춘삼은 군대에서 제대되어 고향인 도소재지로 가게 되였다.

바로 그때 당에서는 모든 면에서 뒤떨어진 산골군으로 많은 청년들이 갈것을 열렬히 호소했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똥은 심장속에 받아안은 한춘삼은 주저없이 제대배낭을 멘채 천산군으로 향했다. 그때 그의 온넛을 지배한것은 천산땅도 조국의 한부분이라는것이였다. 조국의 안녕을 지켜 언땅에 배를 붙이고 청춘을 바친 자기가 그 조국의 번영과 행복을 꽃피우는 길에 한생을 바치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고 여긴 그였다.

이런 높은 리상과 혁명적열정을 안고 천산땅에 온 그를 군에서는 식료공장에 배치해주었다. 공장을 한번 본때있게 일으켜세우라는 믿음에서였다. 온 공장이 떨쳐나 그를 친형제처럼 맞아주었고 얼마 안 있어 수더분하면서도 일 잘하는 한 처녀가

그의 반려자가 되어주었다. 공장에서는 온 읍거리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양치바른 언덕에 그들이 살 새집까지 번듯이 지어주었다. 그 집에 행복의 보금자리를 퍼던 그날 한춘삼은 안해와 함께 이 백양나무를 정히 심었던것이다. 헌데 이제는 그때의 열정이 식었던 말인가? 간석지도 조국의 한부분일진대 어찌 여생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며 외면할수 있던 말인가?

그게 어떤 땅이라구. 이 땅을 누구든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 나는 가야 한다.

아들며느리가 가려는 그 장한 길에 장애로 되어서는 안된다.

드디어 가슴후련하게 결심을 굳힌 한춘삼은 공장을 향하여 성큼성큼 걸음을 내짚었다. 좀 있어 밤작업이 끝나면 아들며느리를 앞세우고 초급당비서 안용국을 만날 심산이였던것이다. 멀어져가는 그를 백양나무가 사뭇 걱정어린 눈길로 지켜보는듯싶었다....

생각에서 깨어난 한춘삼은 다시 개고자리에 주의가 미쳤다. 어쩔가? 로천금이 말마따나 그냥 놔둬도 무방하지 않을까? 요만한 땅에서 벼가 나면 얼마나 나겠대구... 하던 그는 와플 놀라며 얼른 몸을 일으켜세웠다.

저도 모르게 핑 물기가 서린 한춘삼의 눈은 외곽제방쪽으로 향해지고있었다. 잊지 못할 12월 청천벽력같은 비보를 접하자마자 얼어질듯이 저 제방뚝을 달리던 간석지사람들의 모습이 금시런듯 생생히 어려오는듯싶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서계시였던 그 자리에 었드려 땅을 치며 터뜨리던 그 피눈물의 곡성도 너무도 쟁쟁히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아, 그때 우리는 무엇을 다짐했던가.

어버이장군님의 그 크나큰 애국헌신의 자욱아래 태어난 이 대계도간석지벌을 한치도 묵이지 말고 땅이 꺼지도록 농사를 잘 짓자고 맹세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가슴이 찢어지는듯 한 아픔속에 망연히 서있던 한춘삼은 눈물을 씹어삼키며 맞들이를 틀어잡았다.

《자, 어서들 일어나게. 힘을 내여 무조건 해내자구.》

저쪽에서 아들이 삽과 맞들이를 든 분조원들이 이끌고 오고있었다.

### 3

《평 — 꺾 — 평 —》

이른아침의 고요를 깨치며 갈매기섬 봉우리에서

장끼 한마리가 푸드득 나래를 쳤다.

그 소리에 집집의 문들이 열리며 눈을 크게 뜬 마을사람들이 웅성웅성 밖으로 나왔다.

어떤 아낙네는 행주치마에 손을 문대며 또 어느 집 아이는 발뒤축을 고여올리며 집뒤의 봉우리쪽을 바라보느라 부산을 피웠다.

울긋불긋 단장한 장끼는 보란듯이 벌판으로 날아내린 다음 논배미들을 짹째 타고넘으며 쏜살같이 질주한다.

《어허— 벌써부터 난알냄새가 물씬물씬 풍기는 가부다. 꿩이 다 날아드는걸 보니 올해 첫 농사부터 대풍이 들 징조로다. 가만, 이제는 이 갈매기섬을 《꿩섬》이라고 부르는게 어떨고?》

마을의 좌상적인 한춘삼의 제의에 모두가 기꺼이 응해나섰다.

5월이 시작되었다.

꿩섬의 크지 않은 봉우리는 어느새 연록색으로 물들고 크고작은 수로들과 늪가, 포전길가에는 남재기풀이며 갈, 줄, 왕골, 방동사니 등이 벌써 한뼘이나 자라올랐다.

기본수로를 따라 백마—철산물길의 맑은 물이 출렁출렁 굽이쳐오기 시작하자 분조장 한일철은 논물관리공문제를 두고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옛날부터 논농사는 물농사라고 일러왔은즉 논농사의 흥풍여부는 논물관리공한테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것쯤은 그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더우기 소금기가 많은 간석지논의 경우 논물관리공의 책임성과 역할은 특별히 더 중요하다는것을 그는 요즘 초급일꾼들의 모임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있었다.

논물관리의 중요성으로부터 올해부터는 논물관리공들에게 책임성을 높이는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한다고 한다. 꿩섬분조는 면적으로 보아 두명을 임명해야 했다. 한명은 이미 로천금으로 하리라 안을 굳혔지만 다음 한명이 문제였다. 암만 타산해보아야 천금이만 한 책임자가 없었던것이다.

이때 아들의 속마음을 알아차린 한춘삼이가 자기가 해보겠노라고 나섰다.

《아버지가요? 아니, 그만두십시오. 논물관리가 보통 힘들지 않는데...》

자기를 따라 간석지농장에 온것만 해도 고마운 일로 여기면서 늘 아버지를 위해 원심을 쓰고있는 아들이었다.

《헐치 않기에 내가 해보겠다는거다. 제발 무원칙하게 이 애빌 생각하는 마음을 버려라. 농사가 기본이 아니냐. 그러구 누군들 뭐 배속에서부터 일을 배워가지고 나왔니. 농사경험이 많은 로천금이 도 곁에 있으니 너무 걱정말아라.》

한번 한다고 하면 끝장을 보고야마는 아버지의

성미를 잘 알고있는 일철인지라 더 어찌는 수가 없이 승낙하고말았다. 하여 한춘삼은 로천금과 함께 분조의 논물관리공으로 임명되었다.

그들은 농장적으로 열린 논물관리공강습에 참가하고나서 정식 일에 착수했다. 첫날 유표한 주황색 논물관리공옷을 입고 팔에 완장까지 두른 한춘삼이가 논고를 만들기 위해 찰감탕흙을 한삽 푹 떠올리며 역시 같은 옷차림을 한 로천금에게 큰소리로 건넸다.

《잘해봅세. 이렇게 땅이 좋으니 첫해부터 10톤쯤 내보잔 말일세.》

로천금은 례의 오래된 농립모를 푹 눌러쓴 머리를 한번 기웃해보이고나서 입가에 맥없는 미소를 그렸다. 아마 10톤소리가 나오는것이 어처구니가 없는 모양이었다.

《형님, 그건 한갓 욕심에 불과하우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부터 말됐다구 간석지논에선 소금기때문에 첫해수확이 얼마 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3년쯤 지나서부터는 조금 나지겠는지...》

《음, 그래두... 정말 땅이 아깝네, 아까워...》

한춘삼은 아쉬운 눈길로 딛고선 땅을 한참동안 뚫어질듯이 내려다보고서야 다시 와썹 삼질을 해나갔다.

드디어 이 고장 사람들이 일명 단물이라고 부르는 맑은 물이 물길을 따라 용수논고를 통해 논배미마다 팔팔 흘러들기 시작했다.

물이 차는 차례로 프락프락이 씨레를 치고 잇달아 수직파작업이 진행되군 했다.

하얀 실끄트머리처럼 삭이 뜬 벼종자들을 용기에 담아맨 농장원들이 논판에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서서 호기있게 씨를 뿌리는 모습은 여기 간석지 새땅에서만 볼수 있는 이채로운 광경의 하나이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위로 이따금 갈매기까지 날아와 제비들과 어울려 너울거리는 풍경 역시 산골에서는 도저히 볼수가 없는것이였다.

수직파가 시작되자 한춘삼은 부쩍 바빠졌다. 이른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논판에서 살다싶이하며 논두렁을 메주밟듯 해야 했다. 아직 벼씨를 뿌리지 않는 논에는 제때에 물을 넣어 씨레조건을 지어주어야 하고 씨를 뿌린 논에도 간단치 않은 관심을 돌려야 하기때문이다. 특히 씨를 뿌린 논은 벼씨가 뜨지 않고 뿌리를 빨리 내릴수 있도록 물을 알게 대주면서도 또 소금기가 우러나게 살살 물갈기도 해야 하므로 마치 갓난애기 시중들듯 하는 심정이였다.

그러던 어느날 오전이였다. 한춘삼은 분조원들이 한창 벼씨를 뿌리고있는 논배미에서 로천금과 함께 마른 논배미들에 한창 물을 대고있었다.

오후쯤 되어 씨레를 치기로 되어있었던것이다.

씨를 뿌리는 포전에서는 말소리, 웃음소리, 노래 소리가 그치지 않고있었다.

독고아주머니라고 불리우는 한 녀인이 리정식에 게 큰소리로 묻는 소리가 들려왔다.

《뭘사니 아버지, 오늘도 연심이가 나오겠지요?》

아낙네들속에 섞여 씨를 뿌리던 리정식의 귀뿌리가 발갳게 달아올랐다. 아이를 낳기 전이라 하여 입심사나운 아낙네들이 정식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어서 대답해요. 연심이가 나오는가 말예요. 난 매일 한번씩 봐야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독고아주머니는 인차 대꾸를 못하고 찢찢때는 리정식을 바라보며 입가에 즐거운 웃음을 띄웠다.

연심이란 정식의 안해이름이었다. 매일 오전 10시쯤 되면 그가 간식을 보자기에 싸들고 포전에 나타나곤 하였던것이다. 부지깽이도 뛰는 계절에 산전휴가를 받고 집에 있는것이 죄스럽다며 스스로 정한 일과였다.

그것은 녀성의 웅당한 권리이고 국가적혜택이라고 아낙네들이 모다붙어 아무리 만류해도 듣지 않았다.

그러자 이제는 아낙네들이 오히려 음식감들을 연심의 집에 갖다주기까지 했다.

이것은 끔찍한 애처가인 로리전문가 정식이 음식을 만들고 연심은 그것을 가지고 포전에 나와서 얼굴만 보이면 된다는 뜻이었다. 정식은 그 파업을 아주 훌륭하게 집행하곤 했다. 오늘도 아마 그는 어둑새벽에 일어나 칼도마장단소리를 울리며 안해가 포전에 가지고나갈 로리들을 솜씨있게 만들었을것이다.

《예...예... 10시쯤 되면 꼭 나올겁니다.》

간신히 대답하는 정식을 향해 아낙네들은 까르르 웃음폭포를 터쳤다. 헌데 10시가 지나도 연심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때 한춘삼은 년장자만이 느낄수 있다 할 그 어떤 예감에 번쩍 정신을 차렸다.

마침 아들이 옆을 지나가고있었다.

《좀 쏘거라, 빨리 정식이를 집으로 들여보내야겠다.》

아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춘삼을 마주보기만 했다.

《매일 꼭꼭 나오곤 하던 연심이 나오지 않는 걸 보면 틀림없이 무슨 일이 생긴가보다. 얼추 날자를 타산해보도 지금쯤이면 해산을 할 때가 아니냐.》

그제야 깨도가 된듯 일철은 급히 정식을 집으로 들여보냈다. 그때로부터 얼마쯤 시간이 흘렀으나 정식의 집에서는 아무런 기미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무래두 나두 들어가봐야겠다.》

《아버지두요?》

한춘삼은 더 대꾸할 사이없이 마을쪽으로 반달음을 놓았다. 춘삼이 정식의 집앞에 거의 이르렀을 때였다. 얼굴빛이 새까맣게 변한 정식이 정신없이 대문을 뚫쳐나왔다.

《아바이, 야단났어요. 우리 처가 막 몸부림치는 게 꼭 죽을것만 같어요.》

정식은 금시 숨넘어가는 소리를 질렀다.

《원 사람두, 임자꼴이 더 가관이군. 정식이, 그게 바루 아이를 낳기 전에 녀인들이 반드시 겪게 되는 진통이라는건데 덤비지 말고 침착하게 안해결에 붙어있으라구. 내 얼른 가서 조산원을 데려오겠네.》

《아니, 아바이가 어떻게... 제가 갔다오겠어요.》

《우리 평섬마을이 생겨 처음으로 이 간석지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새생명이 태어나게 됐는데 이 좌상이 무관심할수야 없지.》

한춘삼은 그길로 자전거에 올라 부리나케 내달리기 시작했다. 논벌에서는 분조원들이 무슨 일인가 하여 우뚝우뚝 멈춰선채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정력으로 자전거를 몰아가는 한춘삼을 바라보고있었다.

드디어 오후 서너시쯤 되어 리정식의 집이 떠나갈듯 한 《으앙-》소리가 터져나오더니 떡돌같은 아들이 태어났다. 그날 저녁 리정식이 별스러워하는 기색으로 한춘삼의 집에 찾아왔다.

《애아버지가 된걸 축하하네.》

한춘삼의 기쁨어린 말에 정식은 뒤더수기를 슬슬 굶더니 뜻밖의 청을 하는것이 아닌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달라는것이였다.

《저두 이제 뭘사니 아버지란 부름을 면해야 하지 않습니까.》

《허허, 거야 물론이지. 하지만 아들이름이야 부모가 짓든가 그밖의 혈육이 지어야지 생똥같이 내가 무슨...》

《아바이, 아바이가 아니었다면 저의 안해가 혹시 순산을 못했을수도 있었어요. 그것이 고마워 이런 청을 드리는것이니 막지 말아주십시오. 이젠 제 안해의 부탁이기도 합니다.》

간절하게 울리는 리정식의 그 청을 춘삼은 더이상 뿌리칠수가 없었다.

한춘삼은 턱수염을 내리쓰는 흉내를 내며 잠시 궁리하다가 앞으로 이 간석지를 든든히 떠받드는 크고 역센 뿌리가 되라는 뜻에서 《리대군》이라고 짓는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아바이, 거참 사내다우면서도 뜻깊은 이름입니다. 제 마음에 꼭 듭니다.》

정식은 대변에 찬성하며 합격도장을 눌렀다.

옆에서 흥미있게 듣고있던 한일철과 안해, 성호까지도 짹짹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이때부터 며칠 동안 평섬마음은 리대근에 대한 이야기로 흥성거렸다. 그런데 그 즐거움을 깨치는 하나의 사건이 한춘삼이한테 생길줄이야.

그날 새로 씨를 뿌린 논판을 돌아보던 한춘삼은 갑자기 비칠하며 한자리에 멈춰섰다.

성호가 논판에 갇힌 물고기를 잡느라 갓 뿌린 씨앗들을 마구 밟으면서 쟁충쟁충 뛰어다니고있는 모습을 보았던것이다. 그 바람에 논두렁 한귀가 뭉쳐 허물어진 곳도 있었으나 성호는 그에 아랑곳 않고 온 정신을 물고기잡이에 쏟고있었다.

《예끼, 이녀석 씨 나오지 못할가!》

할아버지의 노성에 깜짝 놀란 성호가 비로소 자기의 잘못을 알아차린듯 머리를 푹 수그리고 슬금슬금 논판에서 나왔다. 춘삼은 한순간 온몸의 맥이 탁 풀리는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껏 성호가 이 간석지에 체일먼저 뿌리를 내린다고 생각해왔었다. 한것은 그가 이곳에 오자마자 아이들과도 인차 친숙해지고 좀 멀기는 하지만 학교에도 잘 다녔기때문이었다.

그리고 해토가 되면서부터는 간석지벌이 좁다하게 뛰어다니면서 해떨어지는줄도 모르고 고기잡이도 하고 장난질을 하는걸 보면서 역시 나무도 어린 나무가 새 토양에 빨리 뿌리를 내리는것처럼 사람도 어린 사람이 새 고장에 빨리 뿌리를 내리는가 부다 하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성호의 행동을 보니 저도 모르게 고개가 저어진다.

한춘삼은 상심한 표정으로 논두렁곁에 다가가 한삼두삽 흙밥을 떠올리고 반질반질 매질까지 했다.

이어 논판에 들어간 그는 어지럽게 난 발자국들 속에 묻힌 씨앗 한알을 골라내어 너부죽한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성호야, 이 씨앗을 좀 봐라. 지금은 요렇게 작은 한알이지만 앞으로 여기서 100알이상의 벼알이 생긴단다. 그런데 이렇게 땅속에 묻혀버리면 뿌리도 못 내려보고 죽고만다는걸 생각해봤니. 너를 이 작은 씨앗에 비길 때 가슴이 아프지 않냐 말이야.》

이어 한춘삼은 발자국자리들을 메꾸고 구우에 골라낸 씨앗들을 살작살작 박아넣기 시작했다.

그제야 성호도 조심조심 논판에 들어서서 그 일을 따라했다.

《그리구 한마디만 더 하자. 지금 한창 알쓸이철인데 배가 통통 부른 어미물고기들을 망탕 잡으면 그것 역시 앞으로 이 간석지의 풍경을 더한층 아름답게 해줄 술한 물고기들을 벌써 없애버리는것으로 된단다. 알겠니?》

할아버지의 그 절절하고 따뜻한 타이름에 성호는 감탕물이 텅진 그 까만 머리를 말없이 까닥거렸다. 한춘삼은 용수로의 물에 목수건을 적서 그 감탕물을 씻어준 다음 손자를 앞세웠다.

《자, 이젠 집으로 가자.》

바람이 불어왔다. 해종일 몇지 않는 남동풍이다.

이곳에선 잠풍한 날씨가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설새없이 바람이 불군 한다.

때는 저녁녘이라 불명이같은 해도 사그라져가고있었다. 천산읍에서는 동산에서 해가 떠 서산으로 지군 하지만 여기서는 동산에서 해가 떠 서해의 수평선으로 지군 한다. 얼마쯤 걸어가고있는데 왼쪽배미의 논두렁을 타고 머느리의 모습이 일썌 나타났다.

《아버님, 천산식료공장에서 비서동지가 왔어요. 자동차에 산골특산물이란 한가득 싣고 지원을 왔답니다.》

《뭐라구? 당비서동지가... 원 이런, 고마울데라구야. 우리가 간석지에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릴가봐 걱정돼서 왔나보군...》

한춘삼은 불시에 눈앞이 뿌옇해나는것을 느끼며 평섬쪽으로 허둥지둥 반달음을 놓았다.

## 4

평섬분조에서는 수직파를 최적기에 끝내었다.

반듯한 감탕속에 알릴듯말듯하게 박힌 새노란 벼씨앗들이 점차 뿌리를 내리고 파아란 잎을 물우로 뽕뽕뽕 올려밀기 시작했다.

분조장의 체계에 따라 분조의 논을 절반 나누어 한쪽구역은 한춘삼이가 다른쪽구역은 로천금이가 관리하게 되었다.

《이제부터 논물관리를 더 잘해야겠습니다. 비료와 농약시비때를 내놓고는 단물을 끊임없이 갈아대여 소금기를 최대한 뽑아내는것이 기본입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뭔가 골똘히 궁리하던 한춘삼이가 로천금을 뒤에 달고 마을로 들어가 말짱감이며 나래, 비닐박막파우들을 한아름 안고 다시 별로 나왔다.

《아무래두 자네 구역과 내 구역사이에 포전막을 하나 지어야겠네.》

《예? 난 또... 집이 었디면 코당을듯 한데 그런걸 지어선 뭘합니까?》

《산골이나 다른 벌방논들보다 여기서는 더 많은 시간을 포전에 붙어있다싶이 해야 할것 같네. 그러자면 이런 막이 하나 있는것두 나쁘지 않거던. 자, 어서 말짱을 박자구.》

그 말이 그럴사하다고 여겼는지 로천금이도 두

팔을 걷어올렸다.

바람맞고 번덕스러운 날씨속에서도 벼들은 어느덧 한뼘이나 자라올라 평섬분조포전들은 푸른빛으로 완연하게 물들었다.

산골이나 다른 별방논들에서는 논두렁들과 용수로, 퇴수로둑들에도 빈틈없이 콩을 심지만 여기서는 소금기때문에 당장은 그렇게 하지 못하므로 거무튀튀하게 비어있다. 요전번날 한춘삼이 그 비어있는 땅들이 정말 아깝다고 하면서 시험삼아 콩을 심으려고 하다가 로천금의 반대에 부딪혔다.

아직은 몇년은 실히 소금기가 빠져야 한다는 그의 말은 결코 부인할수 없는것이였다.

그 아쉬움이 늘 가슴속에 얹혀있는지라 한춘삼은 한알이라도 더 소출을 내기 위해 날이 갈수록 논물관리에 더욱 극성을 부렸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한손으로 삽을 세워잡은 채 첫번째 용수논고옆에 앉아 붕어며 망둥어, 메기 등과 같은 새끼고기들이 맹렬히 헤엄치는 논판을 이윽도록 들여다보던 한춘삼은 느닷없이 그 어떤 특감이 들어 남재기를 잘게 한줌 뜯어 흘려드는 단물에 띄워보았다. 남재기조박들은 거품이는 잔물결을 따라 반대편 퇴수논고쪽으로 춤추듯이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온 논판에 골고루 퍼지지 않고 어느 정도의 폭을 지어 흘러가는것이 아닌가. 이것은 논판에 흘러든 단물이 일정한 굵을 지어 퇴수논고쪽으로 흘러가 빠져나간다는것을 말해주는 산 증거였다.

순간 한춘삼의 눈이 번쩍 광채를 뿜었다.

그는 용수철 튕기듯 벌떡 일어나 침범침범 논판에 들어섰다. 그다음 단물이 흘러가는 굵의 물을 한웅큼 떠서 맛을 보았다. 벼씨뿌리기를 할 때부터 자주 이렇게 논물맛을 보는데 습관된 그였지만 오늘은 그 의미가 달랐다. 한춘삼은 잇달아 그밖의 구석진 곳의 물도 한웅큼씩 떠서 입에 넣어보았다. 확실히 짠맛이 달랐다.

말하자면 단물이 흘러가는 굵의 물은 짠맛이 덜하고 그밖의 구석진 곳의 물은 짠맛이 심했던것이다. 한춘삼의 입술사이로 가느다란 신음소리같은것이 새어나왔다.

(으음— 그러니 매 논판마다 아무리 단물이 많이 흘러들어도 골고루 퍼지지는 못하는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만일 매 논판마다 용수논고와 퇴수논고를 여러개 놓고 자주 엇바꾸어 물을 갈아주면 그만큼 소금기가 골고루 더 잘 빠지고 가을에 가서 수확고가 올라갈것이 아닌가. 그렇다! 방직공장에서 여러기대말아보기운동을 하는것처럼 우리도 여러논고말아보기를 해보자. 그러면 첫해부터 소출을 올릴수 있다. 당장 천금을 만나 의논해보자.)

말할수 없는 흥분에 사로잡힌 한춘삼은 꺾충 뛰

듯이 논쪽에 올라섰다. 그 바람에 감탕물이 튕겨 주황색의 논물관리공웃앞자락에 점점이 얼룩을 지어놓았다.

별안간 차디찬 기운이 온몸에 오싹 끼쳐들며 바다쪽에서 뽀얀 안개가 너울너울 밀려왔다. 뽀얀 안개때문에 몇걸음앞조차 잘 보이지 않아 한춘삼은 허리를 구부정한채 이 논배미, 저 논배미로 로천금을 찾아 헤매였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맡은 구역안의 그 어디에도 없었다. 거참 이상하다 하며 자기 구역으로 돌아오던 한춘삼은 포전막옆을 지나치다가 그안에 네활개를 쭉 펴고 누워있는 로천금을 발견했다. 농립도를 아무렇게나 벗어내치고 쉼평종계 낮잠을 자는 그를 보자 잡자기 기분이 흐려들었다. 이미 지내본데 의하면 논물관리공은 시간이 제일 없으면서도 또한 시간이 제일 많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었다. 이것은 농민의 량심과 책임성에 귀결되는 문제였다.

다시 포전막안을 둘러보던 춘삼은 그제야 한쪽에 비릿한 냄새를 풍기며 놓여있는 그물망태기와 끝이 뾰족하고 길이가 반메터쯤 돼보이는 쇠줄을 발견했다. 그물망태기속에는 네모나면서도 길죽길죽하게 생긴 조개가 너덧되박되개 들어있었다. 비로소 한춘삼은 아까 로천금이 작업시간에 슬그머니 내곽제방을 넘어가던 모습을 상기했다. 그러니 그때 조개를 잡으러 저류지로 갔다가 피곤에 못이겨 드러누운것이 불보듯 뻔했다.

로천금은 별안간 인기척을 느꼈는지 번쩍 눈을 뜨며 후닥닥 일어났다.

그리고는 그물망태기에 눈길이 머물러있는 한춘삼을 일별하자 《저… 아들녀석이 입맛이 없어하길래…》 하고 말을 얼버무리고는 그 그물망태기를 슬쩍 구석쪽으로 밀어놓으며 성큼 밖으로 나왔다.

한춘삼은 못 본듯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좁전에 자기가 생각한 여러논고말아보기를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쪼각달갈던 로천금의 눈이 대번에 등실해졌다.

《정신있습니까. 지금 논고 하나씩을 보재도 숨이 찬데 여러개씩 본다구요?》

《왜? 사람이 결심품고 나서면 못할게 없다고 하지 않나. 방직공장 처녀들을 보라구. 여러 기대를 말아보면서 연간계획을 두배세배씩 넘쳐하고있지 않나. 그건 그거구 이렇게 해야 첫해부터 소출을 부쩍 올릴수 있다는거야 자명한 리치가 아닌가.》

《차 이런, 첫해부터 10톤쯤을 꾸는게 아니요? 첫해엔 수확이 보잘것없다고 내 그만큼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째서 사서고생을 하려는지 내참…》

《그거야 한알의 쌀이라도 더 내구과 그러는게지. 그러면 그만큼 나라가 허리를 펴게 아닌가. 지금 나라의 식량사정이…》



《됐수다. 형님 혼자 나라걱정을 하는것 같군요.  
사실 나두 그래서 물을 떠나 여기루 왔단 말입  
니다. 농사조건이 좋은 물을 떠난다는게 말이 쉽지  
형님같으면...》

마지막말이 너무 야박스럽다고 느꼈는지 로천금  
은 스르르 입꼭지를 다물었다.

(그러니 물을 떠난 재세를 하자는건가....)

한춘삼은 허바닥을 박차고 튀어나오려는 이 말  
을 애써 누르며 돌아섰다. 젠장, 천금이 못하잖다  
면 나라두 할테다. 남에게 이래라저래라 할것없이  
나부터 앞장서야지.

며칠사이에 한춘삼은 밤을 새워가며 말은 구역  
안의 매 논배미마다 여러개의 용수논고와 퇴수논고  
를 그쁘히 갖추어놓았다. 이쯤되자 분조장을 비롯  
한 분조원들도 눈이 있는지라 가만있을리 만무했  
다. 그들은 왜 이런 좋은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고 천금을 나무람하면서 한결같이 달라붙어 그가  
말은 구역안의 모든 논배미들에도 여러개의 용수논  
고와 퇴수논고들을 만들어주었다.

천금은 울며 겨자먹기로 매일 그 많은 논고들을  
돌보느라 눈코 뜰새없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바쁜 날은 흘러 어느덧 이삭패는 시기가 지나고  
벼알들이 영글기 시작했다. 그날도 간밤에 내린 큰  
비와 세찬 바람때문에 군데군데 허물어진 논두렁  
들을 수리하느라고 팽이돌듯 하던 한춘삼은 별안  
간 다리관절이 새큰거려 좀 쉬려고 포전막으로 향  
했다. 그러다가 한자리에 우뚝 굳어졌다. 분조는  
구역이 끝나고 다른 분조논구역이 시작되는 경계  
선에 생긴 늪가에 낚시대를 드리우고 앉아있는 로  
천금을 발견했던것이다. 이제는 푸르청청한 갈대  
들과 줄대들때문에 사람의 형체가 잘 보이지 않았  
지만 이미 눈에 익을대로 익고 또 주황색의 유표  
한 논물관리공옷을 입은 천금의 모습을 어찌 몰라  
볼수 있으랴.

한춘삼은 쉬기를 단념한채 아픈 다리를 이끌고  
그리로 스적스적 다가갔다. 가면서 보니까 로천금  
이 말은 구역의 논두렁들은 더 한심했다.

사방에서 물이 팔팔 새고 어떤 용수논고는 콧 막  
혀 단물이 한방울도 흘러들지 못하고있었다.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로천금은 태평스런 자세  
로 낚시대를 휘 나꿔챈다. 그리고는 혼자소리로 두  
덜거렸다.

《에익, 또 먹이만 떼웠군. 요놈들이 날 놀리는  
게 아니야?》

한춘삼은 못 본체 하려다가 이내 머리를 저  
었다.

전번에도 작업시간에 조개잡으러 갔다온것을 보  
고도 그냥 지나쳤는데 후에 알고보니 그 조개는 그  
의 안해가 시장에 내다 팔았다는것이였다.

그때 춘삼은 천금의 다른 면모를 보는것 같아 속  
이 좋지 않았었다. 이런 일이 지속된다면 분조일에  
큰 지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한 한춘삼은 우정 기침  
소리를 내며 로천금의 등뒤에 다가섰다.

《낚시질같은거야 할일을 원만히 끝낸 다음에 해  
야지 이게 뭐가?》

순간 로천금이 휘딱 고개를 돌렸다. 몹시 못마땅  
해하는 눈치였다.

《이제야 농사를 다 지어놓은것과 다름없는데 뭘  
그다지 그러십니까?》

《그다지가 다 뭐가? 아직두 벼들이 많은 물을  
요구하고 소금기도 더 빼야 한다는걸 모르나. 실은  
이제부터 더 바짝 긴장해서 논물관리에 전심전력해  
야 한다 그 말일세.》

그 말이 로천금의 부아통을 터뜨렸다.

그러지 않아도 전번에 여러논고말아보기를 외면  
했다가 분조원들한테서 망신만 당하고 지금껏 안  
할 고생을 한다고 속으로 불만이 많던 그인지라 순  
간에 솟구친 감정에 못이겨 험한 말들을 마구 쏟아  
내었다.

《아니, 왜 자꾸 이러십니까? 내가 일하는게 그  
렇게두 눈에 안 차시우? 사실말이지 나두 요즘은  
속이 편치 않은걸 꼭 참고 일한단 말입니다. 어제  
저녁두 물에 있는 조카네 집에 불일이 있어서 가니  
왜 간석지복판에 나가 고생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 아마 아바이두 물에 있다면 그 사람  
들처럼 나를 비웃을지도 모를겁니다. 그리구 물을  
떠날 생각조차 안했을거우다.

하지만 난 물을 떠나 이 간석지땅에 와서 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쯤한거야 리해해야  
지...》

비로소 한춘삼은 더 자제하지 못하고말았다.

《그러니 물을 떠난 재세를 하자는거지, 물을 떠  
난게 큰일이란 말이지. 아니, 천만에! 우린 그 누  
구를 막론하고 이 땅 그 어디에 가셔도 자기를 다  
바쳐 일할 의무가 있네, 의무가!》

《의무가요?》

《그래, 의무가! 왜냐면 아무리 험하고 사람 못  
살 곳이라고 해도 그곳은 한치도 버릴수 없는 내  
나라 땅이고 어머니조국이기때문이지. 이걸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물이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곳  
에서 산다 해두 참된 삶의 뿌리를 내릴수 없는 법  
이야!》

《뭐라고요? 그럼 난 뿌리를 들고다니는 사람이  
란 소린데 좋수다. 내 다시 물으루 갈테니 뿌리를  
내리는가 못 내리는가는 어디 두고보시우!》

맞받아 내뺄고난 로천금은 그길로 집에 들렀다  
가 안해가 붙어잡는것도 뿌리치고 곧장 물으로 나  
가 조카네 집에 틀고앉았다고 했다.

그날 밤 한춘삼은 집에 들어갈 생각도 있고 포전 막앞에 쭈그리고앉아 멍하니 분조포전만 바라보고 있었다. 혈색 좋던 너무죽한 얼굴은 그새 폭 꺼져들고 가랑고 꺼칠꺼칠해져 어떻게 보면 험상궂게 안겨온다. 그는 지금 한숨속에 가슴을 칼로 저미는 듯한 아픔을 느끼고있었다. 내가 너무한게 아닐까? 그렇게 아픈 말을 해주었어야 옳았을까?

그가 이곳에 와서 점점 주인답게 일하지 못하고 있는것만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일부 농민들이 가지고있는 리기심때문이지 본심이 나빠서야 아니지 않는가. 조건이 더 좋은 물을 떠나 이곳으로 온것이 야말로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그걸 생각해서라도 따듯이 일깨워주고 이끌어줘야 할 내가 그가 달아나도록 처신하다니...

바다쪽 저 멀리에서 《붕-》 하는 배고동소리가 울려오고 등대불이 반짝거렸다. 그리고 대계도 뒤쪽에서는 발파소리가 《왕-왕》 요란스레 메아리쳐온다. 이것은 계속 바다를 막아 새땅을 얻어내는 소리였다. 그렇다! 조국의 대지가 끊임없이 넓어지고있다. 하지만 그 귀중한 땅을 잘 가꾸지 못한다면... 한춘삼은 소스라치듯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삼을 찾아들고 로천금이 말았던 구역으로 바삐 다가갔다. 일을 해야 했다. 천금이 떠나갔지만 누구든 그를 대신해서 포전을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가 어둠속에서 간신히 몇개 논판의 논두렁들을 수리하고있을 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밭깍을 손에 든 아들이었다. 아까는 손자와 며느리가 찾아나오더니 이제는 아들까지 나온것이다. 그는 오늘 분조원들을 이끌고 물에 있는 연대봉으로 풀베기하러 갔었다.

저녁녘에 돌아오자마자 비상사건을 알았지만 작업반에서 열린 분조장들의 회의에 참가하느라 이제야 돌아온 모양이었다. 그의 거뭇하게 탄 얼굴에도 피로운 빛이 력력하게 어려있었다.

《아버지, 어서 포전막에 들어가 식사하시고 좀 쉬십시오. 래일 로력을 한명 떼서 논물관리에 돌리겠습니다.》

《아서라. 내가 다 말아할테니 풀베기로력은 떼지 말거라. 그러지 않아도 정식이야 안해와 아기를 데리고 도소재지에 있는 큰집에 휴가를 가고 없지 않느냐. 내가 로천금이를 잘 도와주지 못해서 일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책임지는게 응당하지.》

《참 아버지두, 그제 어디 아버지탓입니까? 천금동지 잘못이지. 사람은 지내봐야 안다구 그는 이곳에 뿌리내릴 사람이 못되니 차라리 떠나가버리게 잘했지요.》

《아니다. 그는 꼭 다시 돌아올게다. 그러니 당분간 내가 그의 뭇까지 할테니 그의 이름으로 로력

일도 올리려무나. 자, 여기 일은 걱정말고 어서 들어가 폭 자거라. 그래야 래일 또 풀베기전투에서 혁신할게 아니냐.》

아버지의 고집에 한일철은 더 어찌지 못하고 주춤주춤 돌아서고말았다.

이때부터 한춘삼은 순간도 포전을 뜨지 않고 더욱더 긴장하게 일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오전엔 하늘이 찌뿌둥한채 비가 올듯말듯 하더니 오후쯤 되자부터 비가 억수로 쏟아져내렸다. 결들여 사나운 바람까지 터졌다. 시간이 갈수록 비발은 더 굵어지고 바람 또한 미친듯이 갈개쳤다. 한춘삼은 아예 비옷을 벗어내치고 미끈거리는 논둑길을 따라 이 포전, 저 포전으로 분주히 오고갔다. 그런데 모든 퇴수논고들을 다 열어놓았지만 논판의 물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차오르는것이 아닌가.

얼마후에야 한춘삼은 리유를 알아차렸다.

저류지쪽으로 퇴수가 빠져나가게 내곽제방밑에 묻어놓은 콩크리트관아구리가 제방 한쪽이 뭉쳐무너지면서 메워졌던것이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온 분조논판이 물에 잠겨 버들이 못쓰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했다. 한춘삼은 더 생각할 사이없이 가슴노리까지 차오르는 찬물속에 침병 뛰어들었다.

그리고는 물속에서 삼질도 하고 자맥질도 하면서 관아구리를 막은 흙과 돌들을 밖으로 꺼내기 시작했다. 삼십분정도 신고를 하여 겨우 관아구리앞을 처리했으나 물은 조금씩밖에 빠지지 않았다. 바위같은 큰돌 하나가 아직도 뚝 가로막고있었던것이다. 다시 자맥질을 하여 그 돌을 흔들여보았으나 움쩍도 하지 않았다. 온몸의 힘은 이미 다 빠져버린 뒤라 더이상 움직일 기력이 없었다.

(후- 이제 늙었는가?...)

실감함에 빠져 행여나 허허벌판을 휘돌러보던 그의 비물에 젖은 눈동자에 한가닥 밝은 빛이 스쳐갔다. 누군가가 마을쪽에서 비칠거리기도 하고 모로 넘어지기도 하면서 뽀얀 비발속을 뚫고 이쪽으로 달려오고있지 않는가. 인차 손자 성호라는것을 알아보았다. 무등 반가왔다. 그가 도착하기 바쁘게 관아구리를 가로막고있는 돌소리부터 꺼냈다. 성호가 싱긋 웃었다.

《나두 자맥질을 할줄 알아요. 할아버지, 어서 꺼내자요.》

돌이 뛰어들었으나 그 망할놈의 돌은 약간 드물사 할뿐 도저히 들어낼수가 없었다.

《젠장, 확 폭파라도 해치웠으면...》

바로 이때 등잔심지처럼 타드는 그의 마음을 헤아린듯 내곽제방길을 따라 두사람이 바삐 마주왔다. 리정식과 로천금이였다. 도소재지에 휴가를 보

내려 갔던 정식은 비가 많이 내리자 분조포전이 걱정되어 도저히 마음을 안정할수가 없었다. 그는 끝내 휴가기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홀로 먼저 그곳을 떠났다. 간석지에 거의 이른 그는 목이 말라 어느 한 집에 들렀다가 뜻밖에도 로천금을 만나게 되었다. 로천금은 마치미라는듯 정식을 붙어잡고 분조를 떠나온 사연과 한춘삼에 대한 설분을 더놓는 것이었다.

《...굴러온 돌이 배긴 돌 뻔다는 소리가 무슨 소린가 했더니 글썄 이 간석지물계야 아무럼 로배기인 내가 더 잘 알고 또 내가 할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지 않으리, 원...》

그 말을 듣고난 정식은 섭섭함을 금할수 없었다.

《천금동지, 전 천금동지가 이럴줄은 정말 몰랐어요. 전 그때두 천금동지가 간석지토배기로서 누구보다도 자기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잘하고 항상 우리앞에 서서 듬직하게 우릴 이끌어줄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춘삼아바이에 대해 그렇게 말하면 안됩니다. 전 이번에 큰집에 갔다가 춘삼아바이를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글썄 우리 역전동태생으로서 우리 아버지와 중학교를 함께 다닌 동창생이 아니였겠어요. 하지만 도시에 배치받은것도 마다하고 자진하여 수백리나 떨어진 산골군으로 갔고 오늘은 또 이렇게 간석지에까지 와서 한알의 쌀이라도 더 내기 위해 아글타글 애쓴다는것을 알았던 말입니다. 그 밑바닥에 자기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오직 애국심 하나밖에 없습니다. 늘 그막에 생활의 뿌리를 옮긴다는게 어디 간단한 일입니까. 난 정말 춘삼아바이를 무척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감동에 젖은 그 말에 로천금의 얼굴이 서서히 달아오르더니 땅이 꺼지는듯 한 긴 한숨이 입술사이로 뿜어져나왔다. 담배 몇대를 연방 갈아태우며 한 자리에 뿌리박힌듯 앉아있던 그는 갑자기 벌떡 몸을 일으켰다.

《정식이, 어서 분조포전으로 가자구.》

이렇게 되어 급히 이곳으로 달려온 그들이었다. 두사람이 한춘삼의 앞에 이르렀을 때 로천금이가 먼저 질척한 땅에 무릎을 꿇고앉았다.

《춘삼아바이, 날 때려주시우. 내가 몸쓸놈이었습니다. 기껏해서 10리나 떨어진 물에서 왔다는 재세를 하며 뿌리를 들고다니는 놈이었던 말입니다.》

전 이제야 아무리 간석지토배기라 해두 애국심이 없으면 물에 등등 떠다니는 벼씨앗처럼 종내 이 땅에 진정한 삶의 뿌리를 내릴수 없다는걸 똑똑히 알았습니다.》

한춘삼은 부둥켜안듯이 로천금의 어깨를 뜨겁게 잡아일으켰다.

《천금이, 저앞을 보라구. 우리 장군님께서 생전에 세찬 바다바람을 맞으며 서계시던 제방뚝을 말일세. 우리 눈에 흙이 들어간들 장군님의 그 로고를 잊을수가 있나. 그걸 잊으면 사람이 아니지. 우리 힘을 합쳐 장군님의 사랑인 이 귀중한 조국땅, 이 간석지벌의 드림없는 뿌리가 되자구.》

《아바이...》

로천금이 솟구치는 걱정을 이기지 못한채 한춘삼의 마디굵은 손을 짝 부여잡는다. 그우에 정식의 손이 덧놓여진다. 곧 판이 열리고 퇴수가 팔팔 흘러나갔다.

×

가을이 왔다. 간석지벌 그 어디에나 무겁게 고개 숙인 벼이삭들이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맡기고 좌와 설레인다. 평섬은 마치 황금의 벼바다를 헤쳐가는 한척의 큰 배같았다.

성호가 그 배에 척 앉아 포랑포랑 동요를 읊조린다.

간석지에 우뚝 솟은  
우리 평섬은  
벼바다를 헤쳐가는  
큰 배같지요

저 많은 흰쌀고기  
언제 다 잡을가  
선장인 울아버지  
걱정을 해요

정말 걱정할만도 했다. 예상수확고판정에 의하면 평섬분조는 정당 4톤이 결렸던것이다.

벼가을을 도와주러 천산식료공장에서 또 안용국당비서가 로동자들과 많은 산골특산물을 차에 싣고 찾아왔다. 이삼일동안 와닥닥 일을 끝내고 떠나려고 할 때였다. 안용국당비서가 한춘삼의 손을 꼭 잡으며 뜨거운 어조로 말했다.

《난 말입니다, 한춘삼아바이가 이렇게 빨리 간석지에 뿌리내리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어버이장군님의 애국의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많고 또 그 어디에 산다 해두 참된 삶의 뿌리를 인차 내리고 조국이라는 거목을 억세게 떠받드는가봅니다.》

《비서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힘들 때마다 찾아준 그 뜻을 잊지 않고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많은 산골특산물을 싣고왔는데 우린 무얼 보낼가요? 참, 온 여름 키워놓은 살찐 물고기들이 여기 가는 곳마다 옥실거립니다.》

## 소설가 김문창과 장편소설 《열망》

백두산위인들의 품속에서 세대를 이어가며 더욱 풍부해지고있는 주체문학사에는 혁명하는 사람들의 삶의 길동무로, 인생의 교과서로 되고있는 훌륭한 작품들과 그것을 창작한 미더운 작가들이 수없이 기록되어있다.

깨끗한 작가적량심을 지니고 성실한 생활의 탄부, 광부가 되어 주체문학의 보물고를 풍부히 한 우리의 작가들속에는 소설가 김문창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작가의 활동은 당과 수령의 위업수행과 밀접히 련결되어있다. 우리 나라에서 작가는 당건설과 활동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이며 당문예로선의 철저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철자이다.》

작가 김문창은 창작활동의 거의 대부분을 현실체험속에서 보냈다. 남보다 뒤늦게 문학의 길에 들어서서 남다른 지향을 안고 성실한 땀을 바쳐온 그는 생애에 그리 많은 작품을 남기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창작활동의 전기간 개성적인 성격창조와 예리한 사회적문제점의 제기, 진실한 생활반영을 지향한 그의 작품들은 하나하나가 그대로 보석이 되어 주체문학의 보물고를 빛나게 장식하고있다.

해방전 화전민의 넷째아들로 태어난 김문창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셔서야 진정한 삶의 길에 들어설수 있었다.

김문창은 고급중학교시절 처음으로 소설의 세계에 접하고 작가가 될 열망을 지니었다. 협동조합에서 꾸준히 생활체험을 하면서 첫 단편소설인 《협동의 품에서》를 창작하였으며 작품은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조직한 전국적인 문학작품현상응모에 입상되였다.

특별한 문학수업이나 지도도 없이 실지 체험한 생활들가운데서 쓰고싶은것, 잘 아는 생활을 반영하여 작품에 담은 김문창은 현실체험의 중요성을 문학창작의 첫걸음에서부터 깨닫게 되였으며 그 이후 로동계급의 생활로 뛰어들었다.

나라에서는 평범한 문학청년에 불과한 그의 재능의 싹을 귀중히 여기어 해마다 문학통신원강습에

불러주었으며 그속에서 김문창의 창작실력은 나날이 높아지게 되였다.

그후 **김일성**종합대학 작가양성반(당시)을 졸업한 김문창은 함경북도작가동맹 작가로 사업하면서 다년간의 생활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본격적인 작품창작의 길에 들어섰다.

작가들의 자애로운 스승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작가대오에 갓 들어선 김문창에게도 커다란 믿음을 안겨주시였으니 그의 첫 중편소설 《깊은 산속에서》가 창작과정에 고초를 겪고있을 때에는 친히 그 해결방도를 가르쳐주시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으로 완성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끝없는 사랑속에 우리 문단의 중견작가로, 함경북도작가동맹위원회 위원장으로 성장한 작가 김문창은 자신뿐아니라 도안의 전체 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문필전사답게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도록 힘썼으며 참다운 로동계급의 투쟁모습을 높은 예술적수준에서 형상하여 문단의 초점을 모은 첫 장편소설 《탄부》(1986)를 창작발표하였다.

천대받고 버림받던 화전민의 아들을 어엿한 작가로, 한개 도의 작가동맹 위원장으로 내세워주신 당의 은덕에 보답할 일념으로 불타고있던 작가 김문창은 드바쁜 나날속에서도 언제나 현실체험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으며 결발림식체험, 취재식현실체험이 아니라 로동계급속에 몸을 푹 잠그고 생활을 같이하면서 그들과 숨결을 같이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썼다. 하기에 그의 작품들은 생활반영이 진실하고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개성적이며 예리한 사회적문제점들을 제기한것으로 하여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후 작가는 집단주의정신에 기초한 우리 시대 영웅들의 영웅적삶에 대하여 인상깊게 노래한 장편소설 《백금산》(1997)을 창작하여 내놓았으며 2년 후에는 자기 창작활동의 대표작이라고 말할수 있는 장편소설 《열망》(1999)을 창작발표하였다.

장편소설 《열망》은 김문창의 창작활동을 대표하는 작품인 동시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주체

형의 당일군을 형상한 주체소설문학의 대표적작품의 하나로 되고있다.

작품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자력갱생에 대한 관점과 립장문제를 사회적문제점으로 제기하였으며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주인공 전영범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개성적인 성격을 창조하고 당의 부름에 산악같이 일떠선 로동계급의 투쟁모습을 진실하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텔레비죤극으로도 각색되어 광범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작품의 시대적배경으로 되고있는 1990년대 후반기는 천만뜻밖에도 민족의 태양을 잃은 가슴아픔,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와 련이은 자연재해로 하여 우리 혁명앞에 력사상 류례없는 가장 엄혹한 시련이 가로놓였던 시기였으며 아버지수령님 넘겨주신 혁명의 붉은기를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있던 시기였다.

이처럼 엄혹한 시기에 그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믿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겹쌓이는 난관을 헤쳐나가는것은 혁명발전의 그 어느 시기에도 그러하였지만 이 시기에 더욱더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작품은 이러한 사회적문제점을 제기하고 주인공 전영범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의 자력갱생은 땀배기식으로 자리지킴이나 하면서 단순히 눈앞에 제기되는 난관이나 극복하는것이 자력갱생이 아니라 하나를 해도 세계적수준으로,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 배짱을 가지고 최후승리를 위한 전환적국면을 마련해 나가는 자력갱생이라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작품의 사상은 소설의 주인공 전영범이 우에서 대주는것이 없는 형편에서 어떻게 하든지 생산을 보장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원단위소비기준을 초과하고 제품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면서도 생산수자나 채우려고 망탕 사업하는 기사장 강형모에게 가하는 준절한 비판에서 잘 나타나고있다.

…기사장동무는 오늘의 자력갱생이 어떤 자력갱생인지 그걸 똑똑히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가 죽는가,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켜내는가 못 내는가, 우리의 운명문제가 거기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오늘의 자력갱생은 그저 걸리는것을 구멍 땀배기식으로 메꾸기나 하면서 단순히 제기되는 난관이나 극복하는 자력갱생이 아닙니다. 최후승리를 위해 전환적국면을 마련하는 자력갱생이란 말입니다. …

이와 함께 장편소설 《열망》은 주인공 전영범과 지배인 최관형, 기사장 강형모 등 여러 등장인물들의 개성적인 성격을 창조한것으로 하여 독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작가는 작품에서 기본인물들의 형상을 자기 식으로 새롭게 창조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대하여 작가 김문창은 자기의 창작수기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열망》에서 류사성을 범하지 않기 위해 기본인물들인 당비서, 지배인, 기사장의 성격을 다르게 설정했다. 주인공인 당비서는 인정도 깊고 뜨거운 반면에 매우 성급하고 신중성이 적었으며 그 기질적인 약점때문에 사업에서 실수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자기를 고쳐나가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으로 하였다. 즉 완성된 당일군이 아니라 발전하는 성격으로 만들었다. 부주인공인 지배인도 다른 작품들에서처럼 설정하지 않고 반대로 몸도 체소하고 말도 적고 욕할줄도 모르는 조용한 성격, 그러면서도 기술과 기업관리에 밝고 론리적이며 그 어떤 직권 앞에서도 굽힘을 모르는 내강한 성격으로 묘사하였다. 반면에 기사장은 체통도 크고 손탁이 세고 배짱이 이만저만 아닌 완력형으로 그렸다. …

이처럼 등장인물들의 성격창조에서 도식과 류형을 피하고 자기 식의 새로운것을 지향하였기에 작품은 첫시작부터 독자들의 눈길을 잡고 놓지 못하게 한것이다.

이외에도 소설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당정책관철에 펼쳐나선 로동계급의 투쟁모습을 꾸밈이 없이 진실하게 형상하여 작품의 친근감을 더해 주었다.

작가 김문창은 백두산위인들의 품속에서 당의 작가로 자라나 당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모습을 반영한 작품창작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었으며 위대한 아버지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이 기억하는 당의 참된 전사, 영원한 동행자, 재능있는 작가로 자기 삶을 장식하였다.

창작활동의 전기간 새로운 성격탐구, 진실한 생활반영, 예리한 사회적문제점의 제기를 지향한 작가 김문창의 창작경험은 오늘도 우리 창작가들의 작품창작에서 귀중한 도움으로 되고있으며 그의 작품들은 세월이 가도 자기의 생명력을 잃지 않고 독자들의 기억속에 남아있을것이다.

박 승 일

시 초

## 나는 탄전의 교향악을 듣는다

류 정 실

### 탄부의 손

지원자들 막장에 왔다고  
덥석 내 손을 잡아쥐고 기뻐하더니  
멋적어하는 제대군인 탄부여  
부끄러워하지 말아다오  
내 하얀 손과 탄물은 자기의 손을 보며

누가 탓하랴 탄가루배인 그 손  
어제날 총기름배인 그 손  
오늘은 탄가루배인 그 손  
손바닥에 깊은 못이 박혔다고  
그 손 부디 감추지 말아다오

한껏 잡고 놓고싶지 않구나  
근로가 박아준 그 못이  
내 손에 그대로 옮겨지게  
천길막장에서도 났지 않는  
탄부들의 백옥같은 그 마음도

그렇다 그 손은  
온 나라 집집의 온돌도 짚어보는  
알뜰하고 정이 넘치는 마음의 손

그 손은 석탄을 추켜들어  
땅우에 빛과 열을 주는 보배손

내 소중히 잡아보는 탄부의 손  
그 손에서 뻗치는 근로의 정신  
그 손에서 내배는 뜨거운 정  
그 손에서 내 심장에 툭툭 마쳐오는  
끝모를 애국과 헌신의 열정

그래서 아, 그래서 조국은  
근로의 그 손을 보배손 만능손으로  
우리 당 기념탑에  
마치를 높이 든 손으로  
높이 빛내주지 않았더냐

다시 한번 잡아보자  
석탄으로 조국을 지키고  
조국을 지키여 만복을 창조하는  
귀중한 손 탄부의 손  
**김정일**애국주의를 운명으로 틀어쥔 손을

### 탄부의 심장은 얼마나 뜨거울까

나는 탄부의 딸  
탄부 그대들을 위해  
내 노래의 불을 드니  
그 노래 먼저 울려오는 노래  
내 심혼의 끝까지 울려주누나

용광로에서 쇠물이 끓는 소리  
비료며 비닐론이 쏟아지는 소리  
새로 일떠선 창천거리  
층층높은 창가마다에서  
떨기떨기 피어나는 웃음소리

나는 탄부의 안해  
탄부 그대들을 레찬하러  
내 시가의 불을 드니

불꽃에서 번쩍이는 빛  
나의 시정에 불을 지퍼주는 열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  
노래소리 끝없는 수도의 거리로  
끝없이 걷게 해주는 은은한 불빛  
땅우의 은하수인양 대동강의 불빛  
인민대학습당의 은은한 종소리...

아, 나는 탄전의 공민  
내 탄부 그대들에게 묻고싶노라  
끝모를 열과 빛을 땅속에서 안아내는  
탄부 그대들의 심장의 열도는 그 얼마며  
탄부 그대들이 지닌 애국의 빛은 얼마인가

# 석탄과 버럭

이 땅우에  
한낱한시에 태어났어도  
석탄은 탄차에 실려 빛을 뿌리고  
버럭은 골짜기에 묻혀 빛이 없구나

아, 석탄과 버럭  
검은금과 버럭앞에서  
탄부 나는  
다시 한번 내 인생을 가다듬노라

## 나는 탄권의 교향악을 듣는다

착암기소리 없이야  
어찌 막장이라  
발파소리 없이야  
무슨 막장이라

압축기의 높은 숨결  
배풍기의 잦은 가락  
쉬임없이 오고가는 탄차들  
레루를 울리는 바퀴소리

웃음이 없이야 무슨 탄부라  
동발을 세우는 마차소리 톱소리  
전차공처녀의 코노래  
갱식당의 칼도마소리

막장에 일고 잦는 음향  
오션지에 옮길수 없어도  
탄부들의 마음속에는  
강성국가전설의 지하의 대교향곡

보라 막장 끝까지 따라온  
배관들과 전선줄들

불빛 실고 번쩍이는 레루  
그것은 땅속에 그려진 오션지

그우에 흐르는 막장의 환희  
그때 그것이 악보가 아니란 말인가  
레루우로 끝없이  
석탄실고 달리는 전차들의 엇갈림

그때 얼마나 훌륭한 교향악인가  
막장과 이어진 발전소화실  
수도의 거리를 달리는 궤도전차들  
방안에 흐르는 더운물소리...

이 땅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깨끗한 마음들이 울리는  
애국충정의 음향이며 노래이기에  
인간의 가장 깊은 심금을 울리나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불러주신  
석탄전선의 막장교향악  
시대의 메아리는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다운가

**조선문학** 주체102(2013)년 제3호 (루계 제785호)

**편집위원회**

내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2(2013)년 3월 1일

발 행 주체102(2013)년 3월 5일

7-36030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3

D P R Korea

ISSN 1727-9402